금주의 법구-〈불유교경〉
참회하는 마음은 쇠갈고리 같아서
인간의 잘못된 마음을 억제한다.
참회하는 마음을 잊어선 안된다.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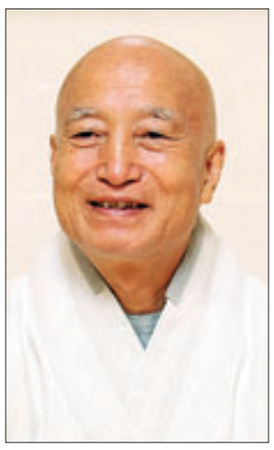
불기 2561년 단기 4350년(음력 8월 8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 m 제1166호 2017년 9월 27일 수요일

조계종 제35대 총무원장 선거

설정 · 수불 · 혜총 · 원학 스님 4자 구도

9월 20일 후보등록 마감
26일부터 선거운동 시작



기호1번 **설정 스님**
· 現덕숭총림 방장
· 現원로의원
· 前중앙종회의장



기호2번 **수불 스님**
· 現안국선원장
· 現부산불교방송사장
· 現불교미래포럼 통섭



기호3번 **혜총 스님**
· 現대각회 이사장
· 前포교원장
· 前복지법인 불국토 대표이사



기호4번 **원학 스님**
· 現군위 인각사 주지
· 前중앙종회의원(4선)
· 前불교중앙박물관장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9월 20일 후보등록을 마감한 결과 제35대 총무원장 선거에 설정 · 수불 · 혜총 · 원학 스님(이상 기호 순) 총 4인이 출마했다.

후보등록 사무가 시작되기 전인 18일 오전 접수를 대기한 덕숭총림 방장 설정 스님과 안국선원장 수불 스님 측 대리인들은 선거법에 따라 추첨을 통해 기호를 정했다. 추첨에서 설정 스님이 기호 1번을, 수불 스님이 기호 2번을 배정받았다. 같은 날 오전 11시경 후보등록 한 대각회 이사장 혜총 스님과 마감일인 20일 오전 접수한 군위 인각사 주지 원학 스님은 각각 기호 3번과 4번이 배정됐다.

기호 1번 설정 스님은 총림 방장이자 원로의원으로서 총림 대중을 아우르고 수많은 납자들을 제접했다는 점에서 수행자의 면모가 드러난다는 평가다. 수덕사 주지를 비롯해 중앙종회의장을 역임하며 행정능력도 두루 갖췄다. 다만 최근 불거진 서울대 학력 논란으로 인해 형성된 일부 부정적 여론은 걸림돌로 작용되고 있다. 이에 설정 스님은 서울대 부설 방송통신대 졸업임을 공식적으로 해명하고 정면 돌파했지만 논란은 아직 현재 진행형이다. 그럼에도 현재로써 가장 당선에 가까운 유력후보로 손꼽힌다.

기호 2번 수불 스님은 오래 전부터 부산과 서울 등에 안국선원을 세우고 도심포교와 간화선 전파에 힘을 쏟은 인물이다. 7박8일 간화선 집중수행을 통해 수만 명의 출 · 재가자들이 간화선을 체험하도록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불교신문사장, 범어사 주지 등을 역임하고 현재 부산불교방송사장, 동국대 국제선센터 선원장, 불교미래포럼 통섭 등을 맡고 있다. 일부 중앙종회의원과 영향력 있는 스님들이 지지하고 있어 설정 스님 대항마로 떠올랐다. 하지만 안거 대중공양비 전달과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 정견발표 등으로 인해 선거법 위반과 후보자격 논란에 휩싸인 것이 발목을 잡고 있다. 〈관련 기사 2면〉

기호 3번 혜총 스님은 前포교원장 출신으로서 종단 포교종책 개발 등에 헌신했다. 특히 인덕(人德)을 바탕으로 한 대중과의 소통능력이 장점이다. 사회복지법인 불국토 대표이사,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 총재 등을 역임하며 대사회적인 활동도 펼쳤다. 다만 타후보에 비해 뒤늦게 출마입장을 밝혀 탄탄한 선거운동조직을 갖추지 못한 것이 당선에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기호 4번 원학 스님은 중앙종회 사무처장, 총무원 문화부장 및 총무부장, 제10 · 11 · 12 · 15대 중앙종회의원 · 불교중앙박물관장 등 종단 각종 주요소임을 역임해 뛰어난 행정능력에는 이견이 없다. 2009년 총무부장 재직 당시 스스로 '삼이(三耳)'라는 호를 지었다. 원학 스님에 따르면 '총무원 소임은 봉사하는 자리, 즉 머슴살이와 같은데 귀 밝은 머슴이 되기 위해서는 귀가 3개쯤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최근 몇 년간 총무원 외부 소임을 주로 맡은 데다 넓지 않은 지지기반이 단점이라는 분석이 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25일 각 후보에 대한 자격심사를 마친 뒤 최종 후보를 확정한다. 이어 26일부터 공식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며 후보들은 이날 종책발표 기자회견 등을 예고했다. 교구선거인단은 9월 27일부터 10월 1일까지 각 교구 종회서 선출된다. 〈차주상보〉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本紙 노덕현 차장 제25회 언론문화상 신문부문 최우수상

'Z세대 포교' 기획보도로 "신세대 포교 방안 제시"



本紙 노덕현 취재부 차장〈사진〉이 제25회 불교언론문화상 신문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은 제25회 불교언론문화상 수상작 선정 결과를 9월 21일 발표했다. 대상에는 KBS의 '3천배, 나를 찾는 수행'이 이름을 올렸으며, 本紙는 노덕현 차장의 '이제는 Z세대 포교다(이하 Z세대 포교)' 기획보도가 신문부문 최우수상으로 선정됐다. 本紙 보도 'Z세대 포교'는 최근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Z세대에 대한 성향 분석 및 유튜브 내 불교, 기독교 콘텐츠 비교를 진행했으며, 유튜브 콘텐츠 확보를 위한 방안을 법륜 스님, 정토TV 팀장 등 전문가의 의견을 빌어 제시했다.

本紙 보도에 대해 심사위원들은 "최근 Z세대라 불리는 신세대들은 기존의 세대들과는 또 다른 특징을 갖는다"면서 "그들이 가진 특징과 성향을 분석하고 이에 맞는 포교방안을 고민했다는 점에서 불교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고 평했다.

이와 함께 불교언론인상에는 이태행 前 BTN방송본부장이 선정됐다. 방송 부문 최우수상에는 전주MBC의 '마음챙김', 우수상에는 KBS의 '돌부처의 숲, 경주 남산'과 BBS FM특집 다큐멘터리 '소리의 힘' 2부작이 각각 이름을 올렸다. 신문 부문 우수상엔 법보신문이 연속 보도한 '여성질환 사각지대 비구니 스님'이 선정됐다.

BBS 통합 어플리케이션이 뉴미디어 부문 최우수상에 이름을 올렸으며, 특별상에는 영화 '무문관'의 윤용진 감독과 인터넷 1인미디어 'I GO 절 RUN'이 선정됐다. 신성민 기자



'국수' 한 사발 '자비' 한 그릇

서울 영등포역 6번출구 뒷골목 쪽방촌에는 1평도 채 되지 않는 방에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티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번화가의 화려한 불빛을 뒤로 우리 사회의 어두운 이면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이 골목에서 추석을 앞두고 훈훈한 온정이 피어났다. 18년째 매주 목요일 마다 쪽방촌에서 무료급식을 펼쳐오고 있는 쪽방촌도우미봉사회가 9월 21일 낮 12시에도 어김없이 국수공양을 진행한 것이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수를 전해주는 봉사회 김윤석 경위〈사진 왼쪽〉나 국수를 받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의 표정에서 미소가 슬며시 번진다. 한 그릇으로 모자라 2인분씩 국수로 허기진 배를 채운 이들은 불자들로 구성된 봉사회 회원들에게 연신 감사의 인사를 표했다.

글 · 사진=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사 령

명)편집국 취재부 기자 **박 진 형**
2017년 9월 25일 부
이상 1명

1167호는 추석 연휴 관계로 발송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양해바랍니다.

대원 문재현 선사님 현재 97권째 서적 출간
해인사 용성선사로 이어진 강맥을 한 몸에 받은
대한불교조계종 수덕사 만공 · 전강선사로 이어진 법맥과

선문염송 30권, 전등록 30권을 모두 역해하여
세계 최초로 1,463칙 전 공안에 착어한 혜안으로 화엄경 81권의 역해를 마치다!!



불조정맥 제78대인 명안종사의 눈으로, 역해와 더불어서 각권과 각품마다 자문자답의 결문으로 선미(禪味)를 더하여, 대천세계를 손바닥의 겨자씨 들여다보듯이 한 불보살님들의 지혜와 신통으로 누리는 불가사의한 화엄세계를 열어 보였다.

화엄경 81권 중 18권 출간

출간 불사

모연문

전자책 5권 무료 다운로드

전자책 1, 2, 3, 4, 5권을 무료로 공개하였으니 읽어 보시고 만인에게 권할 만한 화엄경이라고 여기신다면 81권의 서적과 전자책 출간에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료 전자책은 아래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www.zenparadise.com / 불사문의 : 010-4520-7963〉

방거사 어록

말 밖의 말을 어쩌면 이렇게 자연스러운 일상의 말로 잘 할 수가 있었을까. 감탄사가 절로 나온다. 여기 방 거사의 말은 본연의 바탕에서 꽃피우는 일상의 함이라 하리라.

– 대원 문재현 선사 서문 중에서...



바로보인 유마경



禪의 일상, 禪의 누림!

유마경은 가히 부처님법의 최정점을 찍는 경전이라 할 것이니, 불보살님이 교화하는 경지에서의 깨달음의 실경과 신통자재한 방편행을 보여주는 최상승 경전이다.
대원 문재현 선사가 〈대원선사 토끼뿔〉로 이 유마경에 걸맞는 최상승법을 이 시대에 다시금 드날렸다.

☎ 031-534-3373 도서출판 문젠(구, 바로보인)



총무원장 당선인 편백운 스님과 신임집행부 소임자들이 상견례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태고종 제26대 총무원 집행부 구성

재경부원장 성오 · 교육부원장 능화 스님 등

태고종 제26대 총무원장 당선인 편백운 스님이 임기 시작을 앞두고 9월 23일 1차 집행부 인선을 마쳤다.

편백운 스님은 재경부원장 성오 · 교육부원장 능화 스님을 비롯해 총무부장 은담 · 교무부장 월조 · 재경부장 법정 · 문화부장 석천 · 사회부장 진원 · 규정부장 혜암 · 홍보부장 성철 스님을 내정했다. 사서실장에는 도해 스님이 임명됐다. 내정된 스님들은 향후 열리는 중앙종회서 임명동의를 받을 예정이다.

편백운 스님을 비롯한 신임 총무원 소임자들은 9월 15일 오전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 3층 대불보전에서 함께 예불을 모시고 상견례를 했다. 이 자리서 편백운 스님은 "소임자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종도들 위에 군림하는 모습은 없어야 한다. 승가의 본분을 늘 되새기면서 종도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길을 안내해주는 좋은 길라잡이가 돼 종단 위상을 바로세우기 위한 각고의 정진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신임 집행부는 22일로 임기가 만료된 前총무원장 도산 스님을 예방하고, 종단 위상 회복을 위한 노력을 거듭 다짐했다. 도산 스님은 전국 종무원의 추천을 받아 구성된 새 집행부에 축하의 덕담을 건네며 "초심을 잃지 말고 앞으로 굳은 각오와 공심으로 종단 운영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태고종은 9월 28일 오후 2시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 3층 대불보전에서 제25대 총무원장 도산 스님의 이임과 제26대 총무원장 편백운 스님의 취임법회를 봉행한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더불어 사는 인성교육 대안, 불교에 있다"

조계종 포교원, 국회 의원회관서 9월 16일 포교연찬회



인성교육을 주제로 열린 연찬회에서 박범석 교수(왼쪽 두 번째)가 발표하고 있다. 이날 연찬회에는 종교 인성교육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해 활발한 토론 등을 진행했다.

"오늘날 우리 교육의 문제점은 서로 존중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임을 청소년들에게 알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불교 보살정신 등 상생의 사상은 국가 인성교육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청소년 폭력사태 등으로 인성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불교계가 국회에서 인성교육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열어 눈길을 끈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홍)은 9월 16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 3세미나실에서 '미래사회의 인성교육과 불교의 역할'을 주제로 제74차 포교연구실 연찬회를 개최했다. 연찬회에는 조계종 포교원장 지홍 스님을 비롯해 정갑윤 · 노웅래 국회의원이 참석해 관심을 보였다.

이날 세 번째 발제를 맡은 성해영 서울대 인문학연구원 교수는 '국가의 인성교육 정책과 불교적 인성교육의 상호관계' 주제를 통해 국가 인성교육에서 불교 인성교육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진단했다.

성 교수는 "오늘날 법과 제도로 청소년 인성을 함양하겠다고 나선 사실은 우리 사회가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에 기초해 운영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반증한다"며 "불교의 자비, 기독교의 사랑, 유교의 인 등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을 살기 좋은 곳으로 변화시키려는 덕목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 교수는 "종교만큼 공동체의 삶을 강조하는 사상이 없다. 특히 불교의 경우 천혜 자연환경에 자리 잡은 사찰이라는 치유와 상생의 인프라, 또 자신을 성찰하는 수행법, 출가자라는 인적 자원은 인성교육의 좋은 기반"이라며 "국가 주도형 인성교육의 한계를 보완할 가능성이 많다"고 평가했다.

청소년문제 대안 '인성교육'
보살정신 등 불교 가능성에
포교 아닌 근현대사상 반영
지홍 스님 "교단 차원 접근"

하지만 성 교수는 인성교육이 포교나 전법 개념으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성 교수는 "이슬람 근본 원리주의처럼 종교 근본으로 돌아가 인성교육을 하자는 것은 아니다. 인성교육의 개념이 근현대 도입된 만큼, 각 종교에서도 근현대 발달한 인권사상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성 교수는 "불교계에서 인성교육을 진행할 때 불교지식을 쌓는 교육이 되어서는 안 된다. 바로 실천이 가능한 공동체 교육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사회복지제도와 긴밀한 연결을 통해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발표한 박범석 서울대 종교문제연구소 연구원은 불교 인성프로그램의 과제로 △명확한 지침과 틀 제시 △효과성 드러내는 논의기구 운영 △평화, 중재, 관용 등 통합적 지혜를 키우는 활동 △불교인성교육 전문가 양성 교육과정 도입 등을 제시했다.

또 김영래 고려대 교육문제연구소 교수는 "불교 인성교육에 인터뷰, 설문지, 델파이조사 등 경험적 연구방법과 사변적 이론적 연구를 병행해 효과성에 대한 정보를 쌓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날 연찬회를 주최한 포교원장 지홍 스님은 "모든 중생은 불성이 있다고 했다. 불성이 곧 인성이다. 불교 교단 역시 인간 본성 회복과 함께 사람과 사람, 자연과 사람이 더불어 살아가는 연기적 존재라는 삶의 지혜를 전파하는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2015년 1월 인성교육진흥법을 제정해 인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조계종은 2012년 인성프로그램 개발에 나서 13개 인성프로그램을 개발해 청소년 마음등불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현재 2600여 청소년들이 청소년 마음등불 사업에 참여해 인성교육을 받았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중앙선관위, 수불 스님 선거법 위반 고발

선거운동기간 전 기자회견 정견발표 문제로

조계종 중앙선관위가 9월 18일 기자회견을 연 수불 스님을 선거법 위반행위로 호법부에 고발키로 했다. 수불 스님은 총무원장 선거 후보등록 후 기자회견서 개괄적인 종책기조를 밝혔지만 현행 선거법에는 자격심사 이전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중앙선관위(위원장 종훈)는 9월 2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서 제330차 회의를 비공개로 열고, 수불 스님의 기자회견을 정견발표에 따른 선거운동으로 판단해 호법부에 고발키로 결의했다.

회의 직후 관계자 브리핑에 따르면 수불 스님은 앞서 중앙선관위에 전달한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을 들어 문제가 없음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직선거법의 경우 특정 후보 지지나 공약집 제작 판매 등이 가능하도록 명시돼 있지만 종법은 단순한 의견 개진 외 어떠한 선거운동도 불가하다는 게 선관위 측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타 후보인 혜총 · 원학 스님은 20일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수불 스님의 기자회견으로 인해 다른 후보들은 공약을 뒤늦게 알리게 되는 불이익을 받게 됐다"며 중앙선관위에 이의제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아울러 선관위는 수불 스님의 교구본사 대중공양금 전달 논란도 호법부에 조사의뢰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중앙종회의원들이 이미 호법부에 고발장을 접수한 상황이다. 다만 등원요청을 비롯해 조사기간 등을 감안하면 최종 결과는 총무원장 선거 이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는 이외에도 SNS를 통한 후보자 지지가 가능한지 묻는 질의에 대해 논의, 선거인단 321명을 대상으로는 가능하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SNS 활용은 금지하기로 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정찬주 작가의
법정 스님이야기
⑪ 49%와 51%

1% 의지가 있다면 도전하길…

내 나이 서른아홉쯤이었을 때다. 이른바 아홉수에 걸려 있던 나이였다. 호주머니에 늘 사표를 넣고 다녔다. 작가로서 흡족한 작품을 발표하지도 못했고, 그렇다고 직장에서 내가 하는 일이 만족스럽지도 않았던 것이다. 이도 저도 아닌 상황이었으므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 어느 날 나는 법정 스님을 뵙고 내 진로에 대해서 상의를 드렸다.

"스님, 직장을 그만두고 싶습니다."

"그만두려는 마음이 얼마나 되지요?"

"49%쯤 됩니다."

"그렇다면 더 다니시오."

이후 세월이 십여 년 흘렀다. 나는 또 예전처럼 번민에 빠졌다. 마침 성철 스님 이야기 〈산은 산, 물은 물〉이 베스트셀러가 되어 전업작가 생활에 대한 자신감이 어렴풋이 들 때였다. 중년의 마흔아홉으로 또 아홉수였다. 나는 스님을 찾아가 여쭈었다.

"스님, 이제는 정말 직장을 그만두려고 합니다."

"그만 두고 싶은 마음과 더 다니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되지요?"

"그만 두고 싶은 마음이 51%, 더 다니고 싶은 마음이 49%입니다."

"그렇다면 그만 두시오. 삶이 실패하더라도 1%가 극복의지가 될 것이오."

스님의 말씀에 영감(?)을 얻은 나는 직장에 사표를 냈다. 물론 결단을 내린 바탕에는 〈산은 산, 물은 물〉이 있었기에 가능했지만. 〈산은 산, 물은 물〉은 민음사 박맹호 회장께서 1주일 만에 "정 선생, 곧 밀리언셀러가 될 것 같습니다"라고 전화를 해줄 정도였던 것이다.

나는 그 여력으로 남도 산중에 산방(山房)을 지었다. 6개월 뒤 산방이 완성되자마자 미련 없이 서울 생활을 청산하고 낙향했다. 큰 딸아이가 고등학생일 때였다. 큰 딸아이가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졸업하자 어느 새 나의 산중 삶도 빡빡해졌다.



일러스트 · 정윤경

그때 큰 딸아이는 미국으로 유학 가겠다고 우겼다. 법정 스님께 상의했지만 스님께서는 아이가 원하면 무조건 보내라고 말씀하셨다. 안사람은 큰 딸아이를 보내야 한다고 더 적극적이었다. 큰 딸아이가 공부하고 싶은 분야는 인테리어아키텍처. 할 수 없이 나는 큰 딸아이에게 끈기와 근성을 심어주고자 어려운 조건을 달았다.

"미술을 하는 네가 동양의 오방색을 눈에 담고 갔으면 좋겠다. 지금 광주 증심사로 가거라. 단청 팀에 합류해 붓을 들고 6개월 동안 거기서 일해라."

그런데 큰 딸아이에게 단청 일은 전화위복이 됐다. 큰 딸아이가 원했던 미국의 대학교에서 동양적인 단청작업의 포트폴리오를 보고 가산점을 주었던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큰 딸아이의 대학원 학비와 생활비였다. 이럴 때 사람들은 '은총'과 '가피'를 찾는지도 모르겠다. 결코 큰 딸아이의 유학비를 위해 집필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법정 스님의 일대기 〈소설 무소유〉가 독자들의 사랑을 크게 받아 빚쟁이 신세는 면했으니 말이다. 마치 법정 스님께서 "내가 책임질 테니 유학을 보내시오"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다. 또한, 큰 딸아이가 평생의 동반자를 그 대학에서 만난 것도 우리 가족의 행운이 아닐 수 없다.

세계에서 침 제일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 –

세계 100위 대학 남경대 재경

2017년도 남경 의대(중의학) 학생 모집



혜인스님
한국총장

조기 유학생 모집
어학단기반 모집
● 초 6년 ~ 고3 재학
● 남경사범대학 부속실험학교
www.njsdfc.co.kr

한국 유학생 중국의사 개업 취업
의료행위 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인 중국 의대졸업생 중국정부 중국 의사자격 취득한
외국인 개업 의사활동 허용한다고 중국정부는 발표했다.

❶ 특차모집(남경중의학대학)

학 과	학 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의학과	5년	100명	• 최종학력증명 1부 • 최종성적증명 1부 • 입학신청서 1부 • 여권용사진 10부
석사과정	3년	50명	
박사과정	3년	10명	
재경대학	4년	80명	• 법학,경제,경영,무역,식품,금융 등

❷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주지스님 추천자

❸ 학교소개
▸ 세계침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국제 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3,제약공장,교육병원12,제약연구소 등 완비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 군입대 연기 가능
▸ 현재 생활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 학자금 대출 가능
▸ 서울시내 대학 편입 가능
▸ **중국내 개업 의사 가능**

❹ 전형방법 및 모집기간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모집기간 : 2017년 9월 30일까지 수시전형

❺ 지원서 교부 및 접수
▸ 교부 : 한국 사무처 –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불교조계종 교학과에서 직접 교부 (지방은 우편으로 배부 가능) www.njutcm.co.kr
▸ 접수 : 불교조계종 한국분교(빠른 접수 가능)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논현동 2-13 2층)
▸ 제출서류 특별전형 : 최종학력증명 및 성적증명서 각 1통
▸ 기 타 어학연수 및 조기유학에 관한 문의는 불교조계종 국제교류처(02-511-1080)으로 문의 바람.

❻ 학비(등록비 및 보험료 포함)
▸ 학사 과정 : 매년 25,800위안
▸ 석사 과정 : 매년 33,800위안
▸ 박사 과정 : 매년 41,800위안

■ 남경중의약대학(南京中醫藥大學)
南京市仙林大道138號(210023)
138 Xianlin Rd., Nanjing 210023, P.R.China
E-mail : overseas@njucm.edu.cn
Website : www.njucm.edu.cn

■ 한국상담처 : 불교조계종 총무원교육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
▸ 교학처 : (02)511-2026, 2027
Fax (02)511-2028
▸ 총장실 : (02)511-1080
http://www.njutcm.co.kr

사회노동위 5주년, 불교-사회 잇는 가교 '우뚝'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출범 5주년… 각계각층 박수 세례

차별받고 소외된 이들에게 부처님 자비와 평등 정신으로 다가간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가 출범 5주년을 맞았다.

사회노동위는 2012년 8월 쌍용차 노사문제 등 노동 현안을 다루기 위해 '노동위원회'로 출범했다.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이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예방한 자리에서 "노사문제를 다루는 기구를 만들겠다"고 약속한 것이 계기가 됐다.

창립 후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5명의 스님들과 13명의 재가 집행위원들은 쌍용차 해결을 위한 매일 1,000배, 100일 기도에 돌입했다. 노동위는 노동 현안에 참여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지만, 세월호 참사 · 성소수자 등 사회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냈다. 굳이 활동 분야를 꼽자면 '사회적 약자, 핍박받는 자들이 있는 곳'이었다.

이에 2015년 12월부터는 '사회노동위'로 확대 개편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송파세모녀 추모제'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인정 오체투지' '위안부 피해자 수요시위 주관' '성소수자 퀴어문화축제' 등 반경을 넓혀갔다. 현재는 실천위원 스님 20명과 재가 집행위원 15명이 활동 중이다.

작은 책상 하나를 유일한 살림살이로 시작했지만, 5년이 흐른 지금 사회노동위는 불교계 뿐 아니라 전(全) 사회가 주목하는 대사회적 기구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종단 기구임에도 불구, 사회에 제 목소리를 내는 것에 주저하지 않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특히 스님들이 '투쟁'이라 외치며 기꺼이 현장에 뛰어든 점에 대해 사회 각계각층은 긍정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약자 있는 곳엔 사회노동위가"

"이웃종교인으로서 사회노동위를 존경하면서도 부러워한 이유는 늘 현장에 가장 먼저 달려가는 기동력이었습니다. 약자가 있는 곳에 항상 먼저, 그리고 함께였습니다. 앞으로도 부처님의 자비를 널리 알리길 바랍니다." -정수용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위원장

"사회노동위는 저희가 찾기 전에 늘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 없이 늘 환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나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사무국장



사회노동위는 창립 5주년 기념식을 9월 1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했다.

2012년 8월 '노동위원회'로 출범
5명 스님, 작은 책상 하나로 시작
세월호 · 성소수자 등 반경 넓히며
2015년 12월 '사회노동위'로 개편
"종단 기구 활동 · 기동력에 놀라"

그동안 현장에서 사회노동위와 인연을 맺은 노동자, 장애인, 세월호 유가족, 성소수자, 이웃종교인들은 그동안 사회노동위 활동에 대해 "항상 약자와 함께였다"며 불교의 대사회적 역할에 일조했다고 평가했다.

사회노동위는 창립 5주년 기념식을 9월 1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했다. 그동안 분야를 막론한 사회 활동을 펼친 만큼 이날 자리에는 세월호 유가족, 콜트콜텍 기타 노동자,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동물복지케어, KTX여승무원, 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50여 단체 회원들이 참석해 5주년을 함께 축하했다.

박소연 동물복지케어 대표는 "사회노동위를 처음 만난 것은 2013년 말, 가금류 생매장 반대 기자회견 현장이었다. 스님들은 인간 뿐 아니라 동물의 고통을 함께 나누기 위해 항상 함께해주셨다"면서 "사회노동위를 보면서 '한 종교집단의 조직이 이런 활동력을 보여줄 수 있구나'라며 감탄한 적도 있다. 앞으로도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위해 더 큰 자비심을 내주실 거라 믿는다"고 전했다.

특히 이날 세월호 유가족들은 2014년 4월 사고 발생 시부터 줄곧 곁을 지켜온 사회노동위에게 감사를 표하며, 아직 돌아오지 못한 5명의 미수습자를 포함한 희생자들을 잊지 말 것을 당부했다.

세월호 인양 전까지 수습되지 못해 주위를 안타깝게 했던 단원고 조은화 양의 어머니 이금희 씨는 "몇 년을 공포에 떨었는지 모른다. 억울하고 분해 주저앉고 싶을 때도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기에 버틸 수 있었다"면서 "특히 양한웅 사회노동위 집행위원장님은 항상 괜찮냐 묻고 손을 잡아주셨다. 또 배를 타고 해역에 나가 기도해준 스님들에게도 감사하다"고 하며 눈물지었다.

또한 세월호 기간제 교사 김초원 선생님의 아버지 김성욱 씨는 "사회노동위와 함께 2년 전 딸의 순직인정을 촉구하며 조계사 앞에서부터 정부청사까지 오체투지를 했다. 그 때 정말 큰 힘이 되고 고마웠다"면서 "미수습자 5명도 하루 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길 바란다"고 바람을 전했다.

혜용 스님은 이날 참석자들에게 사회노동위의 앞으로 5년, 10년에도 끝까지 함께해줄 것을 당부했다. 스님은 "사회노동위가 필요 없어지는 것이 이상적인 사회라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우리가 사회 곳곳의 더 많은 소외계층 및 약자와 함께할 수 있도록 계속 응원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아름 기자

조계종 사회노동위 5년 발자취

2012년	8월 27일 9월 17~12월 25일	'노동위원회' 출범 쌍용차 해결 100일 매일 1000배, 10만배 기도
2013년	11월 9일	비정규 노동자 추모제
2014년	3~4월 7월 10월	송파세모녀 추모제 및 49재 부위원장 도철 스님, 세월호 특별법 제적 촉구 32일 단식 노동현장 성소수자 차별 토론회
2015년	6월 7~8월 12월 16일	성소수자 초청 법회 세월호 기간제 교사 및 KTX여승무원 기도회 '사회노동위원회' 확대 개편
2016년	1월 3월 7~9월 5월, 12월	노동법 개정 반대 오체투지 삼성직업병 해결 촉구 기도 진도 사고 해역서 세월호 인양 및 미수습자 수습 기도 일본군 위안부 수요시위 주관(2차례)
2017년	4월	세월호 인양 후 목포 신항에 기도법당 설치

기후문제 인식 확산 종교 · 시민 손잡다

ICE네트워크, 본격 활동 알려

국제사회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 다수의 지혜를 모으기 위해 출범한 국제기후 · 종교 · 시민네트워크(ICE네트워크)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지난 4월 공식 출범한 ICE네트워크는 9월 2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향후 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ICE네트워크는 기후변화에 대해 공동대응하기 위해 모인 아시아 17개국의 종교 · 시민사회 모임이다. 이정배 목사(생명평화마당 대표)가 상임대표를 맡고 있으며, 조계종 상도선원장 미산 스님 · 지리산종교연대 상임대표 오상선 신부 · 강해윤 원불교햇빛발전협동조합 이사장이 공동대표다.

ICE네트워크는 2030년까지 아시아 30개국의 종교 ·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공동체로 발전하는 것이 목표다. 이에 앞서서는 △인식제고와 교육사업 △기후행동사업 △국가 · 지역별 네트워크 구축 및 애드보커시 · 국제적 네트워크 구축과 글로벌 애드보커시 등 활동을 펼친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한반도 평화 범종교 나서야"

고양시종교인평화회의 창립기념 심포지엄 성료

고양시 종교인들이 한반도 내 고조되는 긴장과 위기 속에서도 평화적 해결과 남북통일을 염원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5대 종교인들은 각 종단의 특수성을 반영한 평화적 역할을 제안하기도 했다.

고양시종교인평화회의(대표회장 대오)는 창립기념 심포지엄 '한반도 평화와 종교의 역할'을 9월 18일 일산동구청 2층 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날 불교계 대표 발제자로 나선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사무총장 진효 스님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한 종단의 노력이 아닌 전(全) 종교적 행동이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진효 스님은 "평화통일은 문명사의 전환을 가져오는 대각성인 만큼 '평화통일을 지지하는 범불교적 네트워크'를 형성해야한다"면서 "또한 종교계 전체 입장을 모아 종교계의 독자적 남북 교류를 정부로부터 보장받는 '종교계 통일대협약'을 검토해야한다. 최소한 종교계의 교류 · 인도 사업이 단절됨 없이 지속될 수 있는 근거와 시스템이 마련돼야한다"고 설명했다.



고양시종교인평화회의가 주최한 심포지엄서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사무총장 진효 스님이 '한반도 평화와 불교의 역할'을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진효 스님은 특히 정부가 지속적 민간교류를 보장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 스님은 "문재인 정부가 '베를린 신한반도 평화구상'에서 밝힌 민간교류의 폭넓은 지원과 관련, 정부가 독점하는 민간교류에 대한 인허가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 즉 정부 권한 일부를 민간에 이양해 남북 민간교류의 독자성을 제도화시켜야한다"고 말했다.

범종교적 차원의 활동 분위기가 조성돼야한다는 데는 모든 종교인들이 한 목소리를 냈다.

채수일 경동교회 담임목사는 "한국의 그리스도교는 폐쇄적 민족주의의 경계를 넘어 아시아 평화의 공동이념을 모색하는데 기여해야한다"면서 "세계의 자매형제 교회들과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 주변 4강대국들의 시민단체 및 교회와 정보를 교환하고 연대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의 하나"라고 주장했다.

대표회장 대오 스님은 "요즘 일부에서는 핵무기를 다시 들여와야 한다거나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이 땅의 평화를 지켜내야한다"면서 "오늘 평화를 지켜내기 위해 뜻을 모은 고양시 종교인들이 먼저 화해에 앞장서자. 종교는 바로 평화다"라고 말했다. 박아름 기자

존 리 "불교계 후원에 학업 지속 감사"

아일랜드인 불교학도 향한 한국불교 응원

포교원 중심 십시일반 모연
750만원 전달… 학비 해결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유럽에서 한국불교 연구를 이어갈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아일랜드인 존 리 씨〈사진〉가 본지 보도(1158호, 8월 2일자) 이후 한국불자들의 후원을 받아 학업을 이어가게 됐다. 후원금 모연의 밑바탕은 조계종 포교원이었다.

존 리 씨는 최근 조계종 포교원을 통해 모연된 후원금 5563유로(한화 약 750만원)를 전달받고, Cork대학교 1년 등록금을 무사히 해결했다. 포교원 측은 약 한 달에 걸쳐 스님과 종무원, 불자들에게 존 리 씨의 사연을 알리고 십시일반 후원금을 모연했다. 이에 존 리 씨는 서툰 한국어지만 감사인사와 학업계획 등을 한국불자들에게 전하고자 본지에 이메일을 보내왔다.

존 리 씨는 먼저 진심을 담은 감사의 뜻을 밝혔다. 그는 "스님과 불자님들의 이름을 알진 못하지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감동했다"면서 "얼굴을 맞대고 인사드리고 싶지만 그러지 못해 죄송하다. 아일랜드에 불교를 전파함으로써 도와주신 불자님들의 너그러운 마음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존 리 씨는 1년간 헝가리 원광사와 폴란드 우봉사, 파리 길상사 등 한국불교사찰을 답사한 뒤 독일 · 세르비아 · 스페인 등 한국불교와 연계된 사찰 및 수련원을 방문해 한국불교의 유럽 정착 성공열쇠를 분석할 계획이다.

끝으로 자신의 꿈을 '죽기 전 아일랜드 통일'과 '아일랜드에 선(禪) 정착'이라고 밝힌 존 리 씨는 "통일 아일랜드는 개인이 어찌할 수 없는 일이지만 선 정착에 관해서는 일조할 수 있다. 배은망덕한 철면피가 되지 않도록, 후원해주신 분들이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용맹정진 하며 공부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윤호섭 기자



일 주 문



자살예방 초청법문

혜국 석종사 조실 스님은 9월 18일 군포 정각사에서 자살예방을 위한 특별법문을 진행했다.



천년솔향 청소년 문화제

호성 의성 고운사 주지 스님은 10월 21일 오전 10시 경내서 '제10회 천년솔향 청소년 문화제-짝꿍과 함께하는 솔향제'를 개최한다.



추석맞이 자비나눔

우송 속초 신흥사 주지 스님은 9월 25일 속초시노인복지관 광장에서 지역 저소득가정 '자비나누기' 행사를 개최했다.



한라산 영산대재

허운 제주 관음사 주지 스님은 10월 7일 오후 2시 미륵대불광장서 '도민화합·평화발원 한라산 영산대재'를 봉행한다.



장사익 초청 산사음악회

대오 고양 흥국사 주지 스님은 9월 23일 고양 흥국사에서 '장사익과 친구들'을 초청해 제3회 흥국사 산사음악회를 개최했다.



희망광진 대축제

화평 서울 광진노인종합복지관장 스님은 10월 18일 오후 1시 군자동 광진광장서 '2017 행복나눔 희망광진 한마음대축제'를 개최한다.



'일상 속 중도적 지혜' 법문

원철 조계종 포교연구실장 스님은 9월 15일 대전시 동구청 강연회에서 '일상에서의 중도적 지혜'를 주제로 법문했다.



호기심 놀이터

정관 서울 종로노인종합복지관장 스님은 9월 30일 오전 11시 분관 무악센터서 '호기심 놀이터 한가위 대특집'을 개최한다.



청소년 돕기 자선바자회

법용 달마문화원장 스님은 9월 30일까지 부산 사하구 달마문화원에서 불우 청소년 돕기 자선바자회를 개최한다.



결손 가정 돕기 일일찻집

김국환 대한불자가수회장은 9월 16일 서울 불교방송 지하 다보커피숍에서 '2017 소년소녀 가장돕기 일일찻집'을 열었다.



"사찰음식 도시락 케이터링 서비스 전개"

Interview

사찰음식연구소 개원한 **홍승** 스님

10년간 사찰음식연구회서 교육·연구
연구소 개원 통해 '대중·산업화' 매진
도시락 개발 및 케이터링 서비스 제공
전문가 과정 통해 인재 양성에도 노력

사단법인 '홍승스님의 사찰음식연구회'를 통해 10여 년간 사찰음식 연구에 앞장서온 홍승 스님이 연구소를 개원하고 사찰음식 대중화에 직접 뛰어들었다.

홍승 스님은 (주)도반F&B와 함께 9월 21일 서울 양재동에 사찰음식연구소를 개원했다. 그동안 연구회를 통해 사찰음식의 정통성 확립 및 교육에 매진해온 홍승 스님은 이번 연구소 개원을 통해 유통사업도 전개, 사찰음식 대중화를 위해 진력할 예정이다.

"사찰음식 교육 및 강의를 통해서는 대중화에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사찰음식을 자주 접할 수 있어야 대중적인 음식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이에 따라 사찰음식연구소는 사찰음식 도시락을 개발해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불교계 및 일반기관 단체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케이터링 서비스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올해 안에 사찰음식 전문 판매점도 오픈할 예정이다.

홍승 스님은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 사찰음식의 대중화와 산업화가 용이해질 것"이라면서 "사찰음식은 불교 콘텐츠 중 미래에 가장 각광받을 수 있는 콘텐츠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다양한 사찰음식 강좌도 열어 내실화를 기한다. 초심자를 위한 평일반과 주말반, 직장인들을 위한 야간반 등 총 3개의 단기과정을 운영한다. 또한 사찰음식 전문가 양성을 위한 6개월 과정의 전문가 과정도 개설한다. 특히 전문가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사찰음식연구회 인증 강사 자격증을 발급, 일선에서 활용될 인재로 육성한다.

홍승 스님은 이러한 전문가 과정이 향후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스님은 "강좌를 듣는 분 중에서 뒤늦게 요리에 대한 재능과 열정을 깨닫는 사회 은퇴자들을 많이 봤다. 이분들은 보다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사찰음식 전문가로 양성될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추후에는 사찰음식 관련 창업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창업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홍승 스님과 도반F&B는 함께 특화된 사찰음식에도 적극 나선다. 각종 질환으로 고통 받는 환자의 건강 뿐 아니라 비만으로 고민하는 일반인들의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개발하는 것. 차별화된 제품과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수요층의 현대인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겠다는 취지다.

특히 스님은 올바른 식문화가 파괴되고 국민건강에 대한 식재료의 위협이 점차 커지는 요즘, 사찰음식 전파가 식문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 것이라고 평가했다.

"현대인들은 패스트푸드나 가공식품에 속절없이 노출돼 있습니다. 이에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달걀과 닭고기, 소시지 등 육류 및 가공품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식탁을 위협하는 사건이 빈번히 발생합니다. 사찰음식을 통해 쾌락을 지향하는 요즘 식사습관을 개선할 수 있길 바랍니다." 1644-1803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미얀마, 로힝야족 생명·인권 보장하라"

4대 종교인, 9월 19일
주한 미얀마 대사관 앞서 기자회견

불교·개신교·가톨릭·원불교 종교인 183명은 "미얀마 정부는 로힝야에 대한 적대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며 "로힝야 난민들에 대한 인도주의 구호 접근을 허락하고 평화적 사태 해결에 나서야한다"고 9월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촉구했다.

앞서 지난 8월 미얀마 내 무슬림 소수민족 로힝야족의 거주지인 라카인 주(州)에서는 정부군과 로힝야 무장세력 간 충돌이 빚어졌다. 이후 당국은 로힝야 무장세력을 '테러단체'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토벌작전을 벌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일반 로힝야족들이 죽거나 다쳤으며 대부분 국경을 넘어 말레이시아로 피난, 현재까지 약 45만 명의 난민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다.

종교인들은 "미얀마 정부는 사태 원인을 무장 세력에게만 돌리며, 유엔 등 국제사회의 우려를 '가짜뉴스에 의한 잘못된 정보'라고 폄훼하고 있다. 군 최고 사령관은 로힝야족이 불법이민자고 무장 세력의 배후이기에 군사작전이 정당하다고 발표했다"면서 "이는 사태 해결은커녕, 증오와 혐오를 부추기고 민간인에 대한 인권 유린을 자행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9월 19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불교환경연대 상임이사 법일 스님(사진 왼쪽 세번째) 등 종교인들이 사태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미얀마 정부와 로힝야족 간 폭력사태가 '종교간 갈등'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현재 폭력사태가 종교간 갈등으로 거짓 포장되어 미얀마 내에서는 이슬람 혐오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이 분열이 아시아 전체 종교 갈등으로 번질까 우려된다"면서 "이 사태는 정치 이해관계에서 비롯된다. 어떠한 종교도 무고한 민간인에 대한 폭력을 정당화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박아름 기자

동국대 경주캠, 2학기 개강법회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정각원(원장 법수)은 2017학년도 2학기 개강 법회를 9월 19일 교내 정각원 법당에서 봉행했다.

교수, 직원, 학생, 신도 등 3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법회에서 법사로 초청된 동국대 이사 법산 스님은 "나는 과연 행복한가"라는 주제로 법문을 설했다.

이날 스님은"선인선과 악인악과를 되새기며 과연 어떻게 노력하고 행동하면 행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고 행동하여 행복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대중에게 강조했다. 신성민 기자

장애어르신의 행복한 제주도 탐방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조석영)은 시니어리더대학 회원 36명과 함께 9월 12일부터 9월 14일까지 2박 3일간 제주도에서 2017 시니어리더대학 제주도 문화탐방 '여행을 디자인하다'를 진행했다. 여행경비는 복지관 바자회 수익금 및 자원연계, 시니어리더대학 자체 모금활동 등을 통해 마련한 것이다. 노덕현 기자

광동학원 이범재 선생 공적비 건립



학교법인 광동학원은 초대 이사장인 우강 이범재(1884~1958·사진) 선생의 공적비를 건립하고, 9월 16일 남양주 광동고 대운동장에서 제막식을 거행했다.

우강 이범재 선생은 1947년 9월 12일 재단법인 광동학원 설립 당시 초대 이사장으로 추대됐다. 이후 1949년 11월 11일 운허 스님을 도와 부평리 산 99의 9번지에 교사를 세웠고, 6.25전쟁으로 교사 및 봉선사가 전소됐을 때는 임시교사를 짓고 1955년 새 교사를 준공하는 등 광동중학교의 재건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 받는다.

이에 광동학원은 12월 2일 법인 이사회를 통해 이범재 선생의 공적비 건립을 결의하고 이사장 일면 스님을 추진위원장으로 선임했다.

한편 이날 광동학원은 산하 3개 학교(남양주 광동고·의정부 광동고·광동중) 전 교직원 및 동문회, 설립사찰인 봉선사 스님들과 신도,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본부 임직원과 함께하는 화합 한마당도 개최했다. 박아름 기자

의료,복지,전법 구현의 대표종단 한국불교조계종 종도 모집

새로운 종단 패러다임 대전환 추진!

- 수행, 전법, 기도 중심 수행 생대계 환경 대전환
- 익숙한 종무행정 관행 결별 ~ 새로운 생각과 행동 실천
- 종단 산하 의료, 복지, 운영 지원 및 산하기관과 유대강화
- 종단사찰 장묘시설 인허가 대행 및 관련행정 역차별 개선
- 전법 의식 능력 향상을 위한 종단차원 승가교육 대학원 상설교육
- 종단 전통 통일가사 및 법계고시를 통한 종풍쇄신 구현



한국불교조계종은 종교활동을 저해하는 사회적 규제를 타파하기 위해 이미 의료,복지,장묘 부분의 법인을 설립하여 사찰의 일자리와 소득증대로 이어지는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생태계 사찰 경제의 문제 해결을 위해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런 종합적 시각에서 보는 통찰력으로 사찰경제문제 해결능력을 발휘해 일하는 방식도 바꾸어서 한국불교조계종과 함께 제반의 스님들이 갖고 있는 능력을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한국불교조계종은 한국불교발전을 위해 버팀목 역할을 하겠습니다. 스님들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이와같이 (사)한국불교조계종은 한국불교 성장의 고착화 양극화 심화에서 비롯된 많은 문제들이 사찰 존립의 구조적 위기로까지 옮겨진 상황을 이제는 말로만이 아니라 한국불교 발전의 백년대계를 위해 한국불교 종단운영의 패러다임을 새롭게 개척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불교평생교육 체제를 확립해 창의적인 인재육성을 종단 종책사업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려의 노후 건강과 복지문제 특히 의료주거비 등 스님들의 노후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종책사업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을 바라보고 당당하게 소신있게 나갑시다. 그래서 국민과 중생을 위해 헌신하는 한국불교조계종의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긍지를 다시 살펴봅시다. 먼 훗날 그 어려운 시절에 한국불교조계종이 해냈다는 사자후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방에 계신 고승대덕 큰스님과 강호제현의 도반님께 감사드립니다.

불기 2561년 8월 1일 총무원장 운 산 합장

■ 입종서류 : 행장(이력서), 사진(반명함판) 1장, 사찰(내부, 외부) 사진, 주민등록등본
■ 모집기간 : 2017년 7월 1일부터 ~
■ 입종자격 : 종단통일가사 동참자 ※ 특혜 : (공덕 품계 인정)

사단법인 한국불교조계종 총무원 총무원장 장운 운산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81, 831호 두산위브파빌리온 TEL : 02)720-8270, 02)2198-5022~4, 010-4167-3666 (사무총장 도광)
FAX : 02)720-8271 Http://jogyejong.or.kr E-mail:jonggyo119@hanmail.net

한국불교조계종 종단관련 유관단체 · 사회복지법인 세계불교종단연맹복지재단 / Http://wbof.or.kr · 사단법인 한국불교종단연합회 / Http://kntga.or.kr · 사단법인 한국전통민족종교총연합회 / Http://kroa.or.kr · 종교세계신문사 / Http://jworldnews.com



인식개선 10년, '老人' 아닌 'Know-ing' 시대

10주년 맞은 서울노인영화제

10월 25일 개막… 42개 작품 상영

"우리 엄마 모시고 진작 올 걸 그랬어요. 엄마, 이따 저녁에도 보러 올까?"

서울노인영화제를 처음 찾은 주민들의 목소리에 낯선 영화에 대한 반가움과 고마움이 물씬 묻어 나온다.

노령인구 증가란 화두를 안고 있는 우리시대, 어르신과 가족이 함께 즐기는 문화축제인 서울노인영화제가 10돌을 맞았다. 불교계 복지기관인 서울노인복지센터(센터장 희유)가 주최하는 서울노인영화제는 10월 25일부터 28일까지 서울시청 다목적홀과 서울역사박물관, CGV피카디리 및 대한극장 등에서 막을 올린다. 서울노인영화제는 최근 국제영화제로의 확대도 꿈꾸고 있다.

서울노인영화제는 2008년 처음 시행된 사업으로 영화를 매개로 어르신들에게 주체적으로 주도적인 문화 콘텐츠 생산의 기회를 주기 위해 도입됐다. 또 지역주민들에게는 어르신들에 대한 다양한 시선과 고민의 기회를 제공하여 그들의 문화와 시선이 한자리에 모여 소통하고 공유해 공동체를 이루도록 하고 있다.

어르신들이 직접 영화감독으로 나설 뿐만 아니라 자원활동가, 영화해설가(도슨트), 평론가, 배우 등으로 활동해 반응은 뜨겁다.

2008년 첫 영화제에는 38개 영화가 출품, 21개가 상영됐으며 총 2500여 명이 참여했다. 매년 참가폭이 증가했다. 지난해 열린 9회 영화제에는 189개 출품작이 경쟁을 벌여 39개 작품이 상영됐으며, 총 3777명이 참여했다.

서울노인복지센터 측은 올해 대회에는 196개 출품작, 42개 상영작에 총 4000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눈여겨볼 점은 이전 영화제와 달리 본선에 진출한 42편중 노인 감독 18편이나, 청년감독의 작품은 무려 24편으로 이전보다 그 수가 증가했다는 점이다. 이는 노인만이 영화제에 출품하며 관람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세대가 노년에 대한 주제에 관심을 갖고 영화로 표현하려는 문화가 많이 자리잡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이들 영화가 주로 상영된 탑골영화관 누적관람객만 1만 8328명을 넘어섰다.

그동안 서울노인영화제에서 상영된 이후 이슈를 만든 작품도 상당수 된다. 초청작으로 상영된 '와인할매'와 '문디'는 어르신을 주제로 한 젊은 감독들의 시선을 느낄 수 있는 작품들로 평가됐다.

서로 다른 세대의 눈으로 본 '노인'과 사회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이해하는 기회가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인 '노년'을 다양한 각도, 자신의 입장에서 영화로 풀어낸 서울노인영화제에서는 영화를 통해 노인의 과거와 현재 이야기를, 청년의 미래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이게 바로 우리 노인들이 봐야 할 영화야. 젊은이들이 노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야, 우리도 잘 살지 않겠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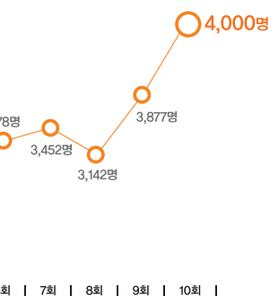
서울노인영화제를 준비하는 김영춘 어르신은 영화제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이런 영화제 진작하지 않았느냐며 애정 어린 잔소리도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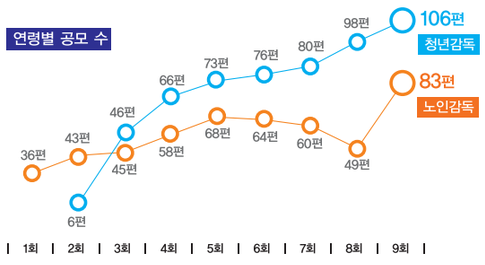
"올해 열번 째인데, 꼭 보러 오세요!"

열 번째를 맞는 서울노인영화제는 모든 부분에 있어 확 바뀌었다. '노인들이 만든 학예회 같은 단편들이겠지'란 편견은 오산이다.

서울노인복지센터 측은 "서울노인영화제는 지나간 세월의 우리 주변 어르신들에 대한 재발견"이라며 "남녀노소가 모두 한데 어우러지는 장으로 가꾸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미리보는 제10회 노인영화제 이모저모



관객과의 만남을 진행할 마크 테토씨. 태국 타왓 따이파용위칫 감독.

아시아 노인문화 소개

서울노인영화제는 아시아를 비롯한 해외에서 전국 단위로 다양한 세대가 노년을 주제로 한 영화를 출품되고 있다. 일본, 필리핀, 홍콩, 대만, 태국뿐만 아니라 칠레, 이란, 뉴질랜드 등의 동시대 노년의 풍경을 확인할 수 있는 작품이 상영될 예정이며 질적으로 확장된 영화제를 구성하고 있다.

이번 영화제서는 해외영화 섹션을 신설해 Senior, Youth, 특별장편 부문으로 구성했다. Youth 부문은 청소년 세대가 바라보는 삶의 신선한 순간들을 영화를 통해 체험할 수 있게 마련하였고, Senior 부문은 노년들의 멜로드라마와 영상으로 삶을 기록하는 새로운 방식을 다루는 작품이 선보인다. 특히 9회 서울노인영화제 홍보대사인 방송인 마크 테토가 10월 27일 태국 티 타왓 감독과 대만 리엔 지엔홍 감독 등과 관객과의 만남을 진행한다.



지난해 화제가 된 〈엄마의 편지〉 후기 다큐 〈노인을 위한 영화는 있다〉 스틸 컷.

노인이 되어가는 우리의 자화상

올해도 각계의 관심을 모으는 작품들이 출품됐다. 지난 해 출품해 화제가 되었던 이체 감독의 〈엄마의 편지〉 뒷이야기를 다룬 다큐멘터리 〈노인을 위한 영화는 있다〉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영화가 어떤 서사 속에서 만들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작품이다.

또 영화 구성의 치밀함이 돋보이는 조완식 감독의 〈가을 愛〉는 어르신이 직접 든 카메라가 어떤 상상을 포착하고 있는지 새로운 느낌을 전달할 것이다.

이 외에도 〈수평선〉, 〈날아라 할배〉는 청년들이 바라보고 있는 세대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는 작품이다. 다양한 작품을 통해 서로 다른 시대를 살아온, 각기 다른 연령대가 공감과 고민을 확인하는 순간은 과거와 현재가 어떤 미래를 만들어낼 것인지에 대한 밑그림이 될 것이다.



'Know-ing' 섹션에 출품된 '행복한 사진사 이야기' 스틸 컷.

'죽음' 논의의 장 활짝

이밖에 이번 노인영화제에는 'Know-ing' 섹션이 도입된다. '노인'이라는 말과 발음이 유사한 'Know-ing'은 '무언가를 계속 알아가는 중'이란 뜻이다. 어르신들이 영화를 통해 공부하며 노년의 성장을 일궈가는 삶을 보여준다.

신나리 감독의 사라진 건물들 속에서 죽음을 다루는 장의사의 이야기를 묵직한 시선으로 담아낸 〈천국장의사 그리고 봄〉, 짧지만 강렬하고 인상적인 영화적 순간을 보여준 신예 문성권 감독의 〈일행〉, 한 경찰이 영정사진을 찍는 활동을 주시하며 죽음을 행복한 순간으로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끌어내는 신영환 감독의 〈행복한 사진사 이야기〉가 상영된다.

이밖에 일반인 시니어 홍보대사인 '시스타(SISFF+STAR)' 고광애 노년 전문 작가가 죽음을 주제로 독서모임도 진행한다.



서울 이주민 포교 중심지로 발돋움

방글라데시 불자회 창립
베트남 이은 두 번째

9월 24일 50여 회원으로 조직
2015년 베트남 불자회도 구성
서울지역 이주민 신행 중심지로


2015년 국제선센터서 열린 이주민 합동 결혼식 모습.

이주민 200만 시대를 맞아 불교계의 이주민 포교활동이 활발하다. 특히 서울지역 이주민 법당 부족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조계종 서남권 포교중심도량인 국제선센터(주지 탄웅)가 나섰다.

국제선센터는 9월 24일 큰법당에서 '국제선센터 방글라데시 불자회' 창립법회를 봉행했다.

국제선센터 방글라데시 불자회는 방글라데시 출신 불자들이 10여 년 전부터 이름조차 없이 부정기적으로 신행활동을 이어 온 모임에서 비롯됐다. 이들은 김포지역 연립주택 내 작은 법당인 붓다사를 구심점으로 삼고 탄암 스님(서울해인선원 주지)을 부정기적으로 초청해 법회를 이어왔다.

이슬람 국가인 방글라데시에는 1% 가량의 불교신자들이 활동하고 있다. 사원 및 불자마을 파괴 등 불교 탄압으로 인해 국제적인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다.

하지만 국내 방글라데시 이주민들은 2012년 불교 탄압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현지 주민을 돕기 위한 모금활동을 벌이기도 했다.

국제선센터의 이번 불자회 창립은 방글라데시 불자들의 신행활동을 활성화시킬 뿐만 아니라, 무슬림인 방글라데시 이주민들이 한국에서 불교를 접하고 자국에서의 종교화합과 인식변화에도 기여할 것이란 기대에서 이뤄졌다.

국제선센터 주지 탄웅 스님과 사제인 탄암 스님이 뜻을 모아 불자회 출범을 추진했다. 이번에 출범된 방글라데시 불자회는 50여 명의 회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초대 회장은 라나(한국이름 장지성)씨가 맡게 됐다.

탄암 스님이 지도법사를 맡아 매달 국제선센터에서 정기법회를 통해 불심을 증장하며 회원간 화합도 도모할 예정이다.

초대 회장을 맡게 된 라나 씨는 "18년 전 한국에 들어와 우연한 기회로 지도법사 탄암스님을 만난 뒤 10여 년 동안 방글라데시 불자 모임을 힘겹게 이끌어 왔다"면서 "앞으로 국제선센터를 중심으로 불자회가 한발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 같아 기쁘다"고 말했다.

국제선센터 주지 탄웅스님은 "방글라데시 불자회를 국제선센터의 한 가족으로 생각하며 앞으로 아낌 없이 지원할 것"이라며 "매달 정기법회나 템플스테이를 통해 방글라데시 이주민 불교포교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서원했다.

이에 앞서 국제선센터는 2013년 10월부터 매달 1차례씩 다문화 가정을 위한 법회를 열고 있다. 이 인연으로 2014년 3월 베트남 이주민 불자회를 발족시킨 후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 2011년부터 새터민 지원사업도 펼쳐 금융정보 제공 및 발성교육 교실 등도 열고 있다.

한편, 창립법회는 한국 불교의례에 맞춰 삼귀의와 반야심경 봉독, 방글라데시 불자회 창립 취지 소개, 임원 임명장 수여, 초대 회장 인사말, 지도법사 탄암스님 인사말, 국제선센터 주지 법문, 발원문 방독, 축하무대, 사홍서원 등으로 진행됐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전통등(燈) 문화창달을 '내 손'으로

연등회보존위, 전승 전통등 경연대회



전통등(燈) 문화를 계승 · 발전시키고, 전승자 발굴을 위한 경연대회가 열린다.

조계종 연등회보존위원회와 봉축위원회는 '전승 전통등 경연대회' 작품을 오는 10월 접수해 11월 전시한다. 참가부문은 일반 · 대학생 · 어린이 등으로 나뉘며, 전시는 11월 17~2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서 진행된다.

일반부 제출작품은 팔모등, 연꽃등, 수박등이며 지름 60㎝ 이내로 제작해야 한다. 접수기간은 10월 19~23일, 최우수등(1점, 50만원)을 비롯해 수상작에 작품제작비를 지원한다. 대학생부 제출작품은 연꽃등과 연꽃등의 전통성을 살린 작품이다. 지름 15㎝ 이내여야 하며, 접수기간은 10월 1일부터 11월 3일까지. 일반부와 마찬가지로 최우수등(1점, 50만원)과 수상작에 제작비를 지원한다. 어린이부는 팔모등과 수박등을 지름 15㎝ 이내로 제작해야 하며, 10월 19~31일 접수한다. 천진불등(1점 30만원) 외 작품제작비가 지원된다. (02)2011-1744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우리 전통체험, 강화 전등사서 즐겨요

10월 14일부터 22일까지 삼랑성 문화축제 개최

삼랑성 역사문화축제 조직위원회(공동위원장 장윤, 전등사 회주)는 10월 14일부터 22일까지 9일간 강화도 전등사에서 제17회 삼랑성 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성찰'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삼랑성 미술 실기대회와 글쓰기 대회'로 시작한다.

이날 오후 7시부터 방송인 전제향의 사회로 가창력이 풍부한 가수 변진섭, 알리, 화요비, 국악인 남상일이 출연하는 '전등사 가을음악회'가 열린다. 7월부터 문의가 올 정도로 대중성을 확보하고 있는 전등사 음악회는 독특한 분위기와 관중 몰입도가 뛰어나 가수와 관객이 모두 만족하는 음악회 중 하나다.

15일에는 다례재와 영산재가 열린다. 오전 10시 30분에는 전등사를 창건한 아도화상과 사찰을 가꾸고 지켜 온 역대조사들에 대한 '다례재'를 진행한다.

10월 21일과 22일에는 '강화 국악한마당'과 '남사당놀이'가 펼쳐진다. '강화 국악 한마당'은 배뱅이굿을 기본으로 선녀춤, 부포놀음, 소고춤, 민요 등 다양한 공연을 선보인다.

노덕현 기자

현대 미술로의 어르신들의 여행

판교복지관, 미술프로젝트 진행

판교노인종합복지관이 개관을 기념하여 현대 미술 작품을 전시한다. 이번 전시는 9월 29일까지 판교노인종합복지관 전관에서 진행된다.

판교노인종합복지관 개관을 기념해 진행되는 이번 미술 프로젝트는 다양한 장르의 현대미술을 전시해 어르신들에게 시각적인 즐거움과 틀을 깬 의외성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작품 체험도 진행돼 현대미술을 어르신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전시는 유럽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서해근', 크리스찬 디올, 에르메스 등이 작품을 소장한 '오유경', 소버린 아시안 아트 프라이즈를 수상한 '최선' 작가를 비롯하여 정광희, 유승호, 권신홍 작가 등 10여 명의 유명 작가가 참여했다.

현대 미술 프로젝트를 기획한 우리미술문화연구소 정희정 박사는 "판교노인종합복지관의 여러 공간에 미술작품을 설치하여 작품을 찾아 공간을 돌아보도록 유도하고자 한다"며 기획의도를 설명했다. **노덕현 기자**



창립 20년 앞두고 해외포교 시동

국제포교사회(회장 박홍우)는 9월 1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창립 19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 이어 '국제포교사회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토크쇼가 열려 눈길을 끌었다.

특히 박홍우 국제포교사 회장은 10월 독일, 내년 1월 멕시코에 국제포교사를 처음 파견해 해외포교에도 나설 것임을 밝혔다.

이와 함께 모범 포교사에 대한 시상이 열렸고 국제포교사회 합창단 등의 축하 공연이 이어졌다.

한편, 기념식에 앞서서는 국제포교사 자격고시를 거쳐 교육 과정을 이수한 22기 신규 국제포교사 37명에 대한 품수식이 열렸다. 22기 국제포교사들은 박사 학위자 3명, 석사 학위자 10명이다. **노덕현 기자**

범어사, 생명 함께 더하기 교육 개최

생명 존중 · 자살예방 위한 대강좌 및 기초과정

부산지역서 재가불자를 대상으로 한 자살예방교육이 실시된다. 부산 범어사(주지 경선)는 '생명 함께 더하기 실천사업'으로 자살예방 교육상담 전문가 기초과정을 개최한다. 이번 기초과정과 함께 일반 대중을 위한 생명존중 자살예방 강좌도 마련된다.

자살예방 교육상담 전문가 기초 과정은 △1차 주제-자살예방 이론과 기술, 자살 위기자의 감정과 정서 및 조절(9월 28일) △2차 주제-자살현상의 이해와 불교적 의미, 발달기 이해와 자살예방(10월 13일) △3차 주제-자살 위기자 및 자살유가족의 의사소통 기술 익히기, 청소년기 이해와 자살예방(10월 20일)이다.

장소는 범어사 금정불교대학이며 오전 10시에 시작한다. 교육 시간은 총 15시간이며 전문기초과정 이수시 수료증도 받는다. 강사는 선업 스님(밝행복치유센터), 효록 스님(자아초월상담학), 자목 스님(동국대 교수), 박재현 교수(동명대), 김길영 외래교수(대림대)이다. 참가비는 1만원이다.

일반 대중을 위한 생명존중 · 자살예방 대강좌는 범어사 설법전에서 10월 15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강사는 밝행복치유센터 원장 선업 스님이 맡을 예정이다. 범어사는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고 전문 교육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불자로 성장하는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동참을 독려했다. 051)508-3636

하성미 기자

미혼모들에게 희망의 선물을 전하다

조계종 중앙신도회, 미혼모 나눔박람회 성료



불교계가 미혼모들에게 부처님 자비를 통한 희망을 심어주는 자리를 마련했다. 조계종 중앙신도회(신도회장 이기흥)는 9월 17일 전법회관에서 미혼모들을 위한 나눔 박람회 '행복한 나눔'을 개최했다.

사회적 협동조합 연꽃향기, 불교계 봉사단체인 사단법인 깨달음과 나눔 등과 함께 진행한 이번 박람회에는 국내 미혼모들과 동남아시아 등에서 온 미혼모 등 150여 명이 참여했다.

전법회관에 마련된 행사장에서는 무료물품 나눔 행사를 비롯해 의료서비스, 한방진료 및 출산상담 등도 진행됐다. 중앙신도회 측은 "사회 소외계층을 돌보는데 불자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좋겠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미혼모들이 용기를 얻어 우리 사회에 잘 적응해 나갔으면 한다"고 바람을 전했다. **노덕현 기자**

신흥사 운암승려 노후수행관 입주 안내



사회복지법인 운암원에서는
승려 노후복지를 위한 비구니 전용 노후수행관을 개원합니다.
아래의 혜택으로 안내하여 드리오니 문의 바랍니다.

생활 의식주 (사부대중으로서 공동제공)

- 선원, 화엄학림 운영 (서예실, 화실, 도서실, 다실 등)
- 매월 (음,7일) 원로큰스님 초청법회
- 전기, 상수도, 냉난방 세탁 (무료제공)
- TV 43인치, 드럼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전기쿡탑 (제공)
- 생활 필수품 (무료제공)
- 스님 출입시 부산역, 공항, 고속터미널 (승용, 승합 제공)
- 월 1회 온천 및 성지순례 (제공)
- 유선 전화기 기본요금 (무료제공)
- 월 40 ~ 50만원 및 타선원 방부시 대중공양 일백만원 지원
- 수행관 입주자 일반의료비, 중증의료비, 암 치료 등 (무료지원)
- 수행관 내 노후자 편의를 위한 승강기 3대
- 상시 승복(법복) 무료 제공
- 객실 / 실내 도반과 함께 입주 가능
- 승납(법납) 및 세속나이 관계없이 1차 입주는 가능함
- 수행관 주변 : 백병원(종합) 승용 3분거리 / 지하철 도보 10분 / 시내버스 종점 도보 3분거리 / 공원, 대학, 고등학교, 산책로
- 남덕유산 무위사 심신수련원 매년 거주(한철) 가능 (대한불교조계종 제7교구본사 등록예정)
- 사후 사찰내 식장, 무위사 다비장 부도탑 49재, 사중제사 (단, 유언장에 따라 정리함)
- 입주자 : 전국 비구니스님 (60세 외 관계없이 가능)

· 개관 : 2017년 12월

대한불교조계종 신흥사
주지 정일 성범 합장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공원로 77-20
사찰전화 : 051-891-3776
문의전화 : 051-895-3400. 010-6783-1208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秋日隨想

④ 니코스 카잔차키스와 붓다 上

〈그리스인 조르바〉와 〈오디세이아〉로 잘 알려진 현대 그리스 문학을 대표하는 니코스 카잔차키스(1883~1957)를 주목하는 데에는 작가 이외에 또 다른 이유가 있다. '20세기 문학의 구도자'라고 불릴 만큼 그는 문학으로 치열하게 구도(求道)한 자유인이었다.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나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자유다.

그의 묘비명이다. 어떻게 하면 그 같은 경지에 도달할 수 있을까? 영혼의 자유에 바쳐진 그의 구도의 내력이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다.

지중해의 남쪽, 에게 해에서 가장 큰 섬으로 손꼽히는 크레타의 이라클리온. 항구가 한 눈에 내려다보이는 전망 좋은 성루에 그의 묘지가 있다. 정교회에서 파문당한 이들만이 쓴다는 나무십자가는 이미 파란 하늘을 배경으로 우뚝 선 그의 자유의지를 상징하는 것만 같다.

니코스 카잔차키스가 태어날 당시 크레타는 그리스 본토와는 달리 터키의 지배하에 있었다. 오토만 제국에 의하여 1669년에 점령된 후 200년 넘게 터키의 통치를 받았다. 그의 아버지는 어린 아들의 손을 잡고 터키인들에게 교수당한 기독교도들에 나아가 죽은 자의 발에 입 맞추어 경의를 표하게 하면서 그것을 잘 보아 두고 죽을 때까지 잊지 말라고 당부했다.

"누가 이분들을 죽였나요?"

"자유가 죽였지." 여덟 살 아들의 질문에 아버지의 대답은 짧고 함축적이었다. '자유'는 그의 명제가 되었다.

"나는 자유를 찾아야 했지만 무엇으로부터, 누구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말인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서서히 나는 거칠고 쉴 곳 없는 자유의 오름길에 올랐다. 우선 터키인들로부터 찾아야 하는 자유, 그 다음에는 내면의 터키인인 교만과 악의와 시기로부터, 공포와 게으름으로부터, 눈을 멀게 하는 헛된 사상으로부터,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사랑과 흠모를 받는 대상들까지도 포함한 모든 우상들로부터 자유를 찾으려는 새로운 투쟁이 시작되었다." -〈영혼의 자서전〉1권 p85

그가 대상으로 한 자유는 첫째 터키인들로부터 찾아야 하는 자유, 다음에는 내면의 눈을 멀게 하는 헛된 사상과 우상들로부터 자유롭고자 한 자신과의 선전포고였다. 스스로가 밝혔듯이 그의 최초의 큰 욕망은 '자유'였고 두 번째 욕망은 '성직'에 대한 것이었다. 어린 니코스는 성 아우구스티누스를 자신의 수호신으로 삼으며 영웅성을 지닌 성자를 완전한 인간이라고 보았다.

어릴 때 그는 장난감을 팔아 '성인의 전기'를 사서 읽다가, 영혼을 구하려고 성인들이 치렀던 온갖 시련에 대해서는 큰 소리로 읽었다고 한다. 특히 '성 요한의 전설'을 읽다가 벌떡 일어나 외쳤다. "난 아토스 산으로 가서 성인이 되겠어." 엄마 몰래 부둣가에 나간 꼬마는 선장을 붙들고 배를 태워 달라고 졸랐다. 실제로 그가 아토스 산을 찾은 것은 31세 때였다. 그는 40일간 작은 암자에 머물며 단테 복음서와 불경을 읽었다. 그곳에서 손금을 봐 주던 어느 수사가 "당신은 늙으면 성직자가 되겠어요."라고 했을 때, 그는 갓 태어났을 때 아기를 불빛에 살피던 산파의 말을 떠올렸을지 모른다.

"언젠가 이 아기는 주교님이 될 테니 내 말을 잊지 말아요" 니코스는 신성한 영혼의 날로 손꼽는 2월 18일, 금요일에 태어난 자부심이 대단했다. 산파의 그 예언은 그로 하여금 일찍부터 인류를 구원하는 성스러운 지도자를 꿈꾸게 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은 아닐지 짐작해 본다.

> **카잔차키스는 종교적인 삶을 통해 의미를 찾으려는 성향이 강했다. 작가가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는 우리의 육체를 정신으로 변화시키는 聖變化를 달성하는 일이었다.**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묘지.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나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자유다'라는 묘비명이 새겨져 있다.

그는 아토스 산에서 우연히 만난 시인 앙겔로스 시켈리아노스와 함께 여러 수도원을 순례하며 종교의 허위와 성직자의 가면을 발견하고는 새로운 종교를 창시할 것을 약속한다.

"우린 기독교의 고행을 개선해야 해." 두 사람의 의견은 일치했다.

"그리스도가 웃게끔 만들어야 할 때가 왔어. 그래, 꼭 그래야지! 고뇌와 울음, 십자가는 이제 그만이야. 그리스도는 그리스의 힘세고 행복한 신들을 함께 모아 가슴에 품고 그들을 모두 동화시켜야 해. 유대인 그리스도가 그리스인이 될 때가 되었다고."

〈침묵〉의 작가 엔도슈샤쿠가 일본인 그리스도를 생각했듯이 그는 그리스인 그리스도를 염원했던 것이다.

1902년, 법률을 공부하기 위해 아테네대학에 입학하면서부터 다윈의 진화론과 지질학 등 과학의 영향으로 그리스정교회 신앙을 멀리하게 된다. 1908년 파리로 유학하여 앙리 베르그송의 생철학에 대한 강의를 듣고 니체의 〈비극의 탄생〉을 위시하여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등을 읽는다. 기독교를 비판하며 비합리주의의 옹호자 니체를 만나 초인(超人)사상을 알게 된다. 그의 작품 〈그리스인 조르바〉에 드러난 신에 저항하는 자유는 니체의 영향임을 알 수 있다. 그를 불교로 이끈 사람도 니체였다.

"나는 붓다에 탐닉했었다. 내 마음은 노란 해바라기요, 태양은 붓다였다"고 술회하며 "나는 방안에 틀어박혀 두툼한 입문서를 밤낮으로 파고들며 붓다의 설법과 가르침을 공부했다"고 〈자서전〉에서 밝히며 이런 글귀도 적어 놓았다.

"… 네 가지 숭고한 진리(四聖諦)가 내 머리에 어렴풋이 떠오른다. 세상은 우리를 잡아 가둔 그물, 우리들은 다시 태어날 터이니 죽음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 목마름을 이겨내고, 욕망을 뿌리 채 뽑아버리고 뱃속을 비우기로 하자. '나는 죽기를 원한다' 거나 '나는 죽기를 원하지 않는다' 는 말은 하지마라. '나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 고 말하라. 마음을 욕망이나 희망보다 높이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무존재의 극락을 누리리라 그대는 재생의 수레바퀴를 손으로 잡아 멈추리라"

욕망이나 희망보다 '마음'을 높이라는 그 마음에 나는 방점을 찍는다. 1922년(39세) 오스트리아 빈에 체류하면서 희곡 〈붓다〉를 집필하기 시작할 때였다. 그 무렵 갑자기 자신의 "얼굴이 부풀어 올랐고 눈은 퉁퉁 붓더니 찢어진 구멍만 남아 무엇을 보기가 무척 힘들었다. 거울 앞에 서니 끔찍한 살의 가면이 얼굴을 덮었고 피부가 터져 누르스름한 진물이 흘러나왔다. 나는 인간이 아니라 악마였다"고 자서전에 쓰고 있다. 프로이트의 제자 빌헬름 슈테켈 박사를 찾아가서 〈붓다〉를 집필하고 있다는 것과 프리다를 만나서 밀회를 약속했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당신이 걸린 건 '성자의 병'이라고 부르죠. 갑자기 색욕의 악마가 씌어져서 여자와 자야 되겠다는 욕구를 느낀 성자가 테바이의 사막을 떠나 달리고 또 달렸지만 성문을 지나가려다 몸을 내려다보니 문둥병이 번지는 중이였어요. 하지만 그건 나병이 아니라 지금 당신이 걸린 것과 똑같은 병이었지요. 불교적 세계관에 빠진 당신의 영혼, 이른바 영혼이라는 것은 여자와 자는 것을 대죄(大罪)라고 믿죠. 그런 까닭에 그것은 육체가 죄를 범하지 못하게 막아요. 당신이 프리다를 떼어 놓고 빈을 떠나기만 하면 당장 나을 병이예요."

그러나 니코스는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과학적인 동화일 뿐이라고 고집하면서 한 달을 더 머물렀지만 가면은 녹아버리지 않았다. 그 후 어느 날 그 곳을 떠나기로 결심하고 침대에서 나왔다. 정거장에 도착하여 거울을 보았을 때의 감격이란! 부어오른 얼굴은 완전히 가라앉았고 본래의 모습을 되찾았다.

〈붓다〉보다 그 즈음 〈신을 구하는 자〉를 먼저 탈고했다. 비슷한 시기에 태어난 두 작품에는 불교사상이 많이 녹아있으며 〈신을 구하는 자〉는 책에 나타난 무신론 때문에 그리스 당국의 위협을 받았다. 그 작품은 나중에 장편 〈오디세이아〉로 다시 태어났다. 70세에 쓴 〈최후의 유혹〉은 신성모독으로 로마 교황으로부터 금서 처분되고 그리스 정교회는 니코스를 파문했다.

그는 예술이나 사상보다는 종교적인 삶에서 그 의미를 찾으려는 성향이 강했다. 스스로도 자신이 소중하게 다루는 작품의 주제는 '신(神)에 대항하는 인간의 투쟁'이라고 밝혔듯이 그가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는 우리의 육체를 정신으로 변화시키는 성변화(聖變化)를 달성하는 일이었다. 그것은 입과 배만 달린 몸을 끌고 다니며 먹고 똥을 누고 또 먹는 구멍만 둘 달린 하찮은 누에가 갑자기 먹은 것이 모두 비단실이 된다는 변화를 뜻한다. 성변화는 〈붓다〉라는 작품에서도 언급된다.

희곡 〈붓다〉의 무대는 20세기 초의 중국이다. 양쯔 강의 물이 불어나면서 마을과 주민들이 모두 수장될 위험에 직면한다. 홍수의 위협에 직면한 사람들은 여러 양상을 펼치며 "사람 살려"를 외쳐대지만 허사다. 프롤로그에서 시인은 '고통, 추악, 죽음'에 선전포고를 한다. 그러나 그가 찾을 수 있는 유일한 위안은 '무존재(無存在)의 문'을 열고 들어갈 〈붓다〉뿐이라고 한다.

주요 등장인물은 창 어르신, 그의 아들 창과 딸인 메이링, 그리고 마법사이다. 조연인물로는 창의 아내, 농부, 악사, 붓다와 그의 제자 등이 있다. 마법사는 우리가 목격하는 모든 것 -양쯔 강, 자살, 격정, 붓다, 영웅주의, 인종(忍從)이 미학적 상상력의 장난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시인'의 전달자로서 역할을 한다.

카잔차키스는 우리에게 '삶은 무(無)로 끝나는 하나의 꿈이 전부'라고 말한다. 창 어르신은 연극이 진행되면서 삶에서 의미 있는 모든 것을 빼앗기고 결국 완전히 혼자 양쯔 강 '붓다'과 대면한다. 죽음이 임박하자 평온한 가운데 양손을 벌리고 홍수 '붓다'를 영접한다. 강물은 이미 문지방을 때리며 포효한다. 어르신은 양팔을 접고 절하면서 "환영합니다"라고 말한다. 그리고는 무대의 막이 내린다.

여기서 강은 '붓다'이고, 마지막 홍수는 '붓다'의 해방을 의미한다. 카잔차키스는 물질의 영(靈)으로서의 성변화를 '해방의 붓다'라 칭한 것이다. 〈붓다〉에서 그의 제자 모갈라나가 외친다.

모갈라나 - 나의 동포여, 손뼉치고, 고개를 들고 외친다. 아니 외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노래한다. 사랑하는 허상들이여, 당신들 또한 노래하라. 나와 함께 노래하라.(모두 함께 노래한다.)

"황금 누에처럼, 꽃 없는 침묵의 가지에 붓다는 체류하였다.

그는 모든 잎을 먹었다. 그는 뽕나무 잎을 모두 먹었다.

그는 모든 잎을 먹었다. 그리고 그것들을 명주로 만들었다.

그는 더 이상 먹거나, 냄새 맡거나, 만지기를 원치 않는다(…).

그의 오장육부는 비었고, 그의 심장은 가벼워졌다. 그는 황야의 모든 마음과 공기가 되었다. 그는 마음과 공기가 되었다. 그리고 가볍게 흩어졌다." -희곡 〈붓다〉 中



맹난자 / 수필가

www.mahaedu.org

환자를 위한 기도훈련 및 임종의식 집중수련

불교호스피스 바르게 알고, 배우고, 행하는 실천수행의 장으로 스님을 초대합니다.

- **임상기도, 임종의식, 바르도의 이해**
- **임상기도 수련**
  - ◇진언(투병, 죽어감에 적합한 진언)
  - ◇경전, 기도(임상기도 / 임종의식)
  - ◇임상기도를 위한 접근방법(Ⅰ~Ⅳ)
  - ◇환자의 영적고통에 대한 접근방법(Ⅰ~Ⅲ) - 이론
- **임종의식 수련**
  - ◇임종자의 왕생을 위한 안내
  - ◇임종자의 재생을 위한 안내
  - ◇임종기도 차제
  - ◇임종 사후에 대한 안내
  - ◇죽음과 입관에 대한 준비와 안내
- **Second 프로그램**

- 교육기간 : **2017년 10월 22일(일) ~ 10월 26일(목) 4박 5일**
- 교육대상 : 승려 (승려연수 30점 인증)
- 교육정원 : 40명 (선착순 마감)
- 접수마감 : **2017년 10월 16일(월)**
- 제출서류 : 교육지원서, 증명사진 1매
- 교 육 비 : 60만원(학인스님 20% 감면)
- 접수문의 :
  TEL 052)255-8522, 8524
  H·P 010-8848-8522
  E-mail : mahabodhi@daum.net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소야정길 216-39

주관 · 주최 : **(재)정토사관자재회 마하보디교육원**

제5회

묘엄불교문화상 공모

고(故) 세주 묘엄 스님의 뜻을 기리며 위해 설립된
재단법인 묘엄불교문화재단(이사장 김용환)에서는 불교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개인 또는 단체를 선발, 표창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상 후보를 공모합니다.

■ 공모기간 : **2017년 10월 1일 ~ 31일까지**
■ 시상내역 : 2명 (또는 단체), 각 상장 및 1천만원 상금
■ 추천자격 및 선정기준
1. 불교문화, 불교실천, 불교학술 등의 분야로 나누고, 그것을 세분화하여 불교교육, 포교, 수행, 불교학술, 불교예술 등의 분야에서 열악한 여건 속에서 의미 있고, 뛰어난 활동을 다년간 지속해온 결과, 불교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개인 또는 단체로서, 그 활동으로 인해 최근 5년간 다른 기관(재단)으로부터 상을 탄 적이 없는 후보를 우선적으로 선발한다.
2. 단체는 설립된 지 5년 이상, 회원 30명 이상인 곳이어야 하며, 근거자료와 함께 그 동안의 활동업적이 첨부돼야 한다.

■ 접수 및 문의
□ 접수방법 : 직접 접수 및 우편 접수
□ 접수양식 : 묘엄불교문화재단 카페에서 다운로드 (cafe.daum.net/myoeom.org)
□ 접 수 처 : 묘엄불교문화재단 사무국
부산시 금정구 장전동 부산대학로 63번 길2
부산대학교 인문대학 철학과
□ 문의 : 051) 510-2076 / 팩스 051) 517-7101
사무국장 010-9317-9199 / david1080@hanmail.net
□ 자세한 사항은 묘엄불교문화재단 카페 참조

■ 수상자 발표
□ 개별통지 후 재단 카페에 공지
□ 시상식 : 2017년 12월 24일 세주 묘엄 스님 추모 다례재일

재단법인 묘엄불교문화재단 사무국

벽화·불상 가득한 불교미술 화엄세계



윤범모 교수의 '佛道紀行'
– 붓다가야에서 토함산 석굴암까지

⑱ 돈황 막고굴 미술의 우수성



돈황 막고굴 제45굴 전경. 이곳의 칠존상은 아름다움의 극치를 보여준다. 현대불교 자료사진



제148호의 열반상. 16m에 달하며, 72명의 제자 군상이 조성됐다. 현대불교 자료사진

돈황 막고굴. 만약 그곳을 미술관이라 한다면 내가 가장 아끼는 미술관의 하나이다. 막고굴은 세계 최고의 벽화미술관이다. 사막 한가운데의 절벽을 파 석굴을 마련한 다음 이룩한 숱한 미술품들, 이는 한마디로 불가사의의 산물이다. 그래서 세계의 학계는 이를 '돈황학'으로 특화시켜 독립학문으로 우대하고 있다. 중국은 돈황 하나만 갖고도 세계 최고 수준의 문화국가임을 자랑할 수 있다.

나는 1988년 처음 막고굴을 참배한 이래 10번 이상 그곳을 갔다. 어느 해는 정월 초하루를 돈황에서 맞기도 했다. 연말연시를 사막에서 보낸다는 사실은 자못 흥미롭지 않을 수 없다. 정월 초하루에 썰렁한 석굴을 산책하는 기분은 경험자 이외 상상하기 어려울 것이다. 막고굴 부근에서 사는 친구를 둔 덕분이었다.

물론 돈황은 일반적으로 여름철에 방문객을 많이 맞는다. 내가 처음 석굴을 찾았을 때는 그야말로 석굴은 헐렁했고, 부분적으로 벽화나 불상 파편이 바닥에 흩어져 있기도 했다. 관리의 손길이 부족할 때였다. 그러던 막고굴은 뒤에 보존의 이유로 모조석굴을 만들게 했고, 일반 관광객은 그곳으로 안내하게 했다. 물론 일반 공개하는 원형 석굴의 숫자는 줄기 시작했다. 게다가 A급은 별도의 비싼 관람료를 요구하거나 아예 폐쇄했다. 막고굴은 유명 관광지로 점차 각광을 받았다. 월아천이 있는 모래 능선은 모래 썰매장으로 바뀌었고, 또 낙타 타기 관광상품도 흥행에 한몫했다. 막고굴은 그렇고 그런 관광지의 하나로 '전락'하고 있었다. 자연스럽게 나의 발길은 그곳으로부터 멀어졌다. 시끄러운 관광지는 나의 체질과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막고굴 근처의 유림석굴은 작은 규모이지만 나름대로 운치 있는 석굴이다. 특히 미륵변상도 등 아름다운 벽화가 있는 석굴은 보배 그 자체이다.

그건 그렇고, 막고굴의 예술적 아름다움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자. 무엇보다 벽화를 주목해야 한다. 막고굴 벽화의 면적은 4만5천㎡의 규모이다. 화려한 원색의 향연, 그러면서도 다양한 이야기와 형상들, 한마디로 벽화예술의 극치이다. 돈황 벽화의 내용은 불상 그림, 불교 고사화(故事畵), 도교화(道敎畵), 경변화(經變畵), 불교사적화, 공양인 모습, 장식도안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불상은 석가모니불을 비롯 여래와 보살상 등이다. 다만 막고굴 보살상의 특징은 여성으로, 그것도 당대 최고의 미인상으로 표현했다는 점이다.

벽화 속의 미인형 보살은 그렇다 치더라도 채소(彩塑) 작품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 점만 가지고도 돈황 벽화는 당대 최고수준의 미술가를 초청하여 현장제작 했음을 짐작하게 한다. 고사화는 불경 속의 옛 이야기를 일컫는다. 제290호 석굴의 고사화는 길이가 25미터이며 87가지의 장면을 표현했다. 만화처럼 구획을 주어 연이어 그리는 연환화(連環畵)의 초기 형식이라 할 수 있다. 도교화는 도가의 신선사상을 바탕으로 한 그림이다. 서왕모, 복희 여와, 사신도 등을 일컫는다.

제285석굴의 천정은 고대신화의 신선세계를 표현한 바, 복희 여와 혹은 도철 그리고 머리가 아홉 개 달린 용 등을 그렸다. 빼어난 상상력에 빼어난 조형성은 오랜 시간 눈길을 끈다. 이는 불교가 도교나 유교사상을 수용한 폭 넓은 관용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경변화는 불경의 내용을 한 폭의 그림으로 표현한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변상도라고 부른다. 당나라 시대에 유행했는데, 막고굴의 경우는 24종 1천 여 폭으로 알려졌다.

불교사적화는 불교의 역사에서 주요 인물이나 사건 같은 것을 그린 것이다. 막고굴은 40군데에 67종의 사례가 있다. 장건(張騫)의 서역 출사(出使) 모습 등 역사적 사건이나 인도와 중국의 교류사 등이 있다. 공양인 화상은 장의조(張議潮) 등 실존인물의 모습을 그린 것이다. 공양인은 시주했다하여 자신의 모습을 돋보이게 그리지 않았다. 공양인 보다 붓다가 우선이기 때문이다. 장식도안은 다양한 문양으로 채워 넣은 부분을 말한다. 디자인 감각의 탁월함은 막고굴의 우수성을

돈황 석굴, 최고의 벽화미술관
4만5천㎡ 달하는 벽화에 매료
독특한 彩塑 불보상들도 눈길
제45굴 칠존상, 아름다움 극치

실감하게 한다. 제390석굴 연화초화문의 경우는 아름다움의 극치로 막고굴의 자랑거리이다.

막고굴 미술의 또 다른 보배는 색깔 입힌 입체작품 즉 채소(彩塑)이다. 흙으로 빚어 가마에서 구우면 테라코타라고 하지만, 흙으로 빚어 그대로 놔두고 표면에 채색을 입힌 것을 채소라 부른다. 현재 막고굴의 채소는 약 2천여 점을 헤아리게 하고, 영소(影塑)의 경우도 1천 점 가량 된다. 이는 조소예술의 극치로 세계 미술의 역사에서 획기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이들 채소의 특징은 불보살상 등 다양한 소재라는 점을 들 수 있다. 1천년 동안 다채롭게 조성된 이들 채소는 꾸준히 발전상을 보인 바, 이는 새로운 사조를 적극 수용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막고굴 불상 가운데 커다란 주목을 받고 있는 경우, 북대상(北大像)과 남대상이다.

제148호의 열반상은 길이 16m에 제자의 숫자만 해도 72명이나 된다. 당대 최대 규모의 군상(群像)이라 할 수 있다. 이들 채소는 중심의 나무 위에 진흙을 발라 만든다. 여기의 흙은 강바닥에서 채취한 것이어서 부드럽다. 흙 70%에 모래 30% 그리고 삼이나 솜을 넣어 견고하게 했다.

나는 막고굴 가운데 제45석굴을 가장 사랑했다. 거기서 아름다움의 극치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당나라 시기 작품으로 서쪽 감실의 칠존상은 최고 수준의 걸작으로 칭송이 자자하다. 중앙의 석가불을 중심으로 왼쪽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가섭, 오른쪽의 온화한 아난, 이들의 사실적 묘사는 마치 실물이 서 있는 것처럼 리얼리티를 담보하고 있다.

가섭과 아난 옆의 보살입상, 불경스런 표현을 용서한다면 정말 관능미로 넘치는 여성상으로 표현되어 있다. 아무리 보살이라 하지만, 정말 보살을 이렇듯 아름다운 여성으로 조성해도 좋은가. '미스 당(唐)'과 같은 미인선발대회가 있다면, 단연코 1등상을 받았을 모델 같다. 이들은 고개를 약간 숙이고, 눈을 아래로 살짝 뜨고, 온화한 표정을 짓고 있다. 한 손은 들었고 허리는 약간 굽혀 신체의 리듬을 주었다. 상반신은 나신이고 화려한 목걸이를 하고 있다. 하의의 정교한 표현은 이 보살상 작가의 기량을 쉽게 짐작하게 한다.

이들 '미인'은 오늘의 미인이라고 불리는 여성과 다르다. 깡마른 빼빼라기보다 약간 풍만한 맷집의 몸매라는 점이다. 하기야 당대(唐代) 미인은 풍만형이었다. 양귀비 모습도 그러했다. 어쩌면 이 보살상의 작가는 실제 미인을 모델로 놓고 작업했을지 모른다. 그만큼 현실감에 넘치는 사실적 표현력이 탁월했기 때문이다.

미인형 보살 옆에는 마치 이들을 보호하겠다는 듯 우락부락하게 생긴 근육질의 천왕이 지키고 서있다. 부드러움과 거칠음의 비교 또한 작가의 기량을 짐작하게 한다. 제328석굴에서도 아름다운 미인형 보살을 볼 수 있다.

자, 세계 최고의 막고굴 미술관 안에 들어가 보자. 화려한 미술품들은 관객의 정신을 순식간에 빼앗는다. 어떻게 이런 작품이 가능했을까. 그것도 사막 한 복판이 아닌가. 열악한 환경에서 조성했을 막고굴 미술.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다. 많고도 많은 벽화와 조소작품들, 작가 이름이 없다는 점이다.

작가가 심혈을 기울인 깨달음의 세계를 붓다에게 헌상한다고 해도, 그래서 작품에는 서명을 하지 않았다 해도, 우리는 현재 작가 이름을 모르고 있다. 어떤 기록에도 작가 이름은 남아 있지 않다. 화가 이름 그리고 조소작가 이름, 다 어디로 갔는가.

세계 최고수준의 벽화, 그러나 화가 이름 하나 남아 있지 않은 막고굴 현장. 나는 당황스럽기만 하다. 작가명은 그렇다 치고, 막고굴 작가들은 굶주림 속에서 고통을 안고 작업했다. 심지어 아이를 담보로 맡기고 돈을 꾸기도 했다. 막고굴 옆의 작은 석굴, 거기가 작가들의 숙소였다. 너무 비좁아 작가들의 어려운 살림살이를 짐작하게 한다. 열악한 환경에서 작업한 미술가들, 하지만 불후의 걸작을 만든 작가들. 돈황은 이래저래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화가는 어떻게 벽화 작업을 했을까. 벽면 위에 회반죽을 하고, 그 위에 아교를 칠해 광택을 주었다. 밑그림의 윤곽선에 작은 구멍을 뚫은 종이를 벽 위에 붙여 놓고 색깔이 있는 안료를 문질러 윤곽선을 뜬다. 윤곽선이 벽면 위에 나타나면 채색을 올릴 수 있다.

문제는 석굴 내부는 깜깜하다는 점이다. 그렇다고 장작을 때거나 횃불을 들 수 없다. 그을음은 벽화를 훼손시키기 때문이다. 요즘처럼 전기가 있었다면 얼마나 편하게 작업 했을까. 막고굴 화가들은 커다란 거울을 사용하여 태양광을 석굴 안으로 끌어 와 작업했을 것이다. 한마디로 고통의 산물이다. 오늘 우리는 작가의 고통은 잊고, 막고굴의 아름다움에 그저 감탄사만 연발하고 있다. 막고굴 미술!

〈미술평론가, 동국대 미술사학과 석좌교수〉
사진=황헌만 사진작가



월아천을 낙타로 이동하는 관광객들. 문명의 발전으로 돈황 막고굴과 월아천 등은 관광지가 됐다.



제 46차 운문사 승가대학 총동문회

귀의 삼보 하옵고
그렇게도 무덥던 더위도 어느새 지나가고 산뜻한 가을 향기 문 턱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들의 아름다운 추억과 소중한 인연이 깃 든 운문도량에서 선,후배스님들을 모시고
총동문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꼭 참석하시어, 뜻있는 시간 함께 해 주시길 청합니다.

일 시 불기 2561년(2017년) 양력 10월 9일(음력 8월20일) 오후 2시
장 소 운문사 선열당
안 건 동문회 임원 선출 건
장학금 전달식 (필히 본인 참석)
기타, 모교 발전에 관한 건
전 화 054-370-7100 (운문사 종무소)
054-751-0720 (동문회 회장)

* 장학금 신청자는 9월 28일까지 운문사종무소로 재학증명서를 제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운문사 승가대학 총동문회장 종호 합장

동아시아 불교에서 원효 스님의 위상은

삼성현博, 10월 18일 국제세미나

올해 탄생 1400주년을 맞은 원효 스님의 동아시아 불교 내 위상을 살펴보는 국제학술대회가 열린다.

경산시 삼성현문화박물관은 오는 10월 19일 박물관 강당에서 '동아시아 불교와 원효대사의 위상'을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김용표 동국대 명예교수의 '원효와 현대세계', 아케오 에이케이 前 교토국립박물관 수석연구원의 '한국과 일본의 화엄사상', 이현주 문화재청 문화재감정위원의 '역사인물 재현의 시각과 해석', 이승희 홍익대 교수의 '일본 교토 고산사의 원효 에마끼'를 발표한다.

또한 박태원 울산대 교수는 원효스님의 핵심사상 중 하나인 화쟁에 대한 '통섭과 화쟁은 어떻게 가능한가'를, 고영섭 동국대 교수는 원효 스님의 일심사상에 대해 고찰한다.

리사룡 북경대 교수는 원효 스님과 천태와의 연관 관계를 살피며, 미야자키 켄지 대곡대 박물관 연구원은 원효의〈판비량론〉에 대해 논의한다.

논문 발표 이후 종합토론의 좌장으로 이평래 대행선연구원장이 맡았으며, 토론자로는 김민 (국민대), 신용철(양산시립박물관), 배경아(울산대), 조윤경(동국대), 조수동(대구한의대), 김준호(울산대)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대각사상연구원 '대각사상' 논문 모집

대각사상연구원이 오는 12월말 발간 예정인〈대각사상〉제28집에 게재할 논문을 모집한다.

논문 주제는 '백용성 스님과 대각사상' 또는 '근현대 불교사'와 관련된 논문이다. 모집기한은 10월 31일까지며 분량은 A4용지 15~18매이다. 워드프로세서(한글 2007 이상)로 논문을 작성해 기한 내에 제출하면 되며, 영문초록, 국문초록, 국문주제어, 영문 키워드, 참고문헌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대각사상연구원은 "백용성 스님의 대각사상을 선양하기 위해 창립된 본 연구원의 학술지〈대각사상〉에 회원 및 연구자들의 옥고를 보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학술지 수록 여부는 학회 편집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정되며 게재 논문은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볼 수 있다.

신성민 기자

사명대사 선양사업 확대된다

시첩 등 역주서 출간 고불
호국정신 계승 학술대회서
발굴된 시첩 분석 논문 발표
사명대사 다큐 제작 위해
밀양시 · BTN · BBS 협약

호국의승의 상징인 사명대사를 선양하기 위한 사업이 본격화 되고 있다. 사명대사 자료 역주서가 발간됐으며, 정신선양을 위한 학술대회가 열렸다. 또한, 사명대사 다큐멘터리 제작도 밀양시와 불교계 방송사가 나섰다.

먼저 눈길을 끄는 것은 동국대 불교학술원(원장 정승석)의 사명대사 자료 역주서 출간이다. 동국대 불교학술원은 9월 17일 밀양 표충사(주지 법기)에서 '사명대사 자료 역주서 출간 기념 고불식'을 봉행했다.

사찰 소장 불교자료를 집성하는 사업인 '불교기록문화유산 아카이브(ABC)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자료 역주서에는 전체 256건의 고문헌과 문서로써 사명대사의 의승활동, 표충사의 중건 등과 관련한 호국불교 자료가 많이 포함돼 있다.

특히 사명대사의 호국 활동에 관한 서간첩과 시첩, 16책은 그동안 주목하지 않았던 귀중한 자료다. 18세기 중엽 표충사는 사찰을 중건하고, 사명대사의 유고집인〈분충서난록(奮忠 難錄, 1739)〉을 간행했으며 표충사송운대사영당비(1742)를 건립하는 등 사격을 크게 진작했다.

이 같은 불사를 이끈 인물이 사명대사의 5세손인 태허 남붕(太虛南鵬, ?~1777)이다. 남붕은 사명당의 유고(遺稿)를 들고 당대의 고위관료, 저명인사 등을 찾아다니면서 160명에게 164수의 시를 받았다. 이 시를 모아〈표충사제영록(表忠寺題詠錄 1739)〉 목판본을 간행했다. 당시 영의정이었던 송인명, 후에 좌의정에 올랐던 조현명 등의 시도 포함돼 있다.

〈표충사제영록〉을 간행하기에 앞서 받은 시를 책으로 묶은 것이 총 8권의〈표충사제영(表忠祠題詠)〉이다. 이번 조사에서 8권의 시첩을 모두 조사했으며, 목판본〈표충사제영록〉에 실리지 않은 새로운 시 등이 확인됐다.

사명대사 관련 시첩에 대한 1차적 연구 성과는 BTN불교TV(대표이사 구본일, 이하 BTN)가 9월 22일 '사명대사의 호국활동과 현대적 계승' 주제로 개최한 학술대회에서 확인됐다.

이대형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는 '〈표충사 제영〉 시첩의 가치와 목판본의 편제' 발표를 통해 시첩을 분석했다. 그는 "〈표충사 제영〉1권에는 시첩에 대한 서발문 등과 함께 시를 실었고, 이후는 모두 시문으로 차운시가 월등히 많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대부들의 찬시다보니 사명대사에 대한 잘못된 오해들도 확인됐으며, '숭유억불 사회'의 조선 양반들의 불교에 대한 그릇된 인식들도 담겨있었다.

이와 함께 밀양시와 함께 불교를 대표하는 방송사인 BTN과 BBS불교방송(사장 선상진)이 함께 사명대사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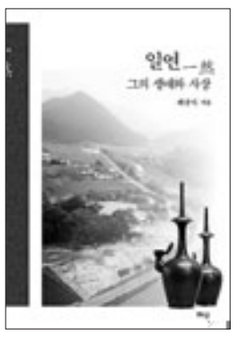
박일호 밀양시장과 선상신 BBS불교방송 사장, 손정현 BTN불교TV 영남총국 총괄국장은 9월 4일 밀양시청 소회의실에서 '사명대사 다큐멘터리 제작 협약'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는 표충사 주지 법기 스님도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BTN과 BBS는 밀양시의 지원으로 사명대사의 생애를 조명하는 UHD 다큐멘터리를 제작에 들어간다. 다큐멘터리는 2018년 방송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신성민 기자

"삼국유사, 시대 고민 담긴 역사서"

주목! 학술서
채상식 부산대 교수의
'일연, 그의 생애와 사상'

수행승으로 살아왔던 일연
만년에 삼국유사 찬술 매진
'고려 再造' 역사 인식 바탕



일연 스님(一然, 1206~1289)에 대해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삼국유사〉를 찬술한 저자 정도로 인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지금껏〈삼국유사〉에 대한 높은 사학사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정작 일연의 행적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없는 형편이다. 고려시대 가장 격동기였던 13세기를 살았던 일연의 생애가 중요한 것은 그가 역사가이기 이전에 승려라는 사실과, 그가 생존한 시기가 민족사상의 일대 격변기라는 사실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그런 의미에서 채상식 부산대 사학과 교수의〈일연, 그의 생애와 사상〉은 고려말 격변기를 살아간 일연이라는 승려가 얼마나 많은 스펙트럼을 가졌는지를 확인시켜준다. 오랫동안 고려불교사와 일연을 연구해 온 저자는〈삼국유사〉라는 필터를 거쳐 그에게 접근하기보다 일연을 중심축에 두는 연구 방향을 택했다.

실제, 일연 스님은 비슬산에서 20여년 수행하다가, 정안의 초청으로 남해 정림사에 주석하였는데, 이를 계기로 대장경 조판에 참여했다. 간접적이지만 수선사 혜심의 영향도 받았다.

이후 일연의 행적은 정치권력의 향배에 따라 전개됐다. 일연 스님이 대선사가 되고 원종의 명에 의해 선월사에 주석하게 된 것은 "왕정복고 세력들과 연계돼 있었기 때문"이라는 게 저자의 견해다.

이와 함께 채 교수는 일연 스님은 1차적으로 공안을 타파한 선승이었지만, 교학과 신앙적 측면에서도 소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실제 일연 스님의 신앙적 노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 바로 인흥사를 통한 관음신앙이었다. 이는 민족적 위기를 극복하고 민중들에게 신앙적 대안을 목표로 하여 찬술된〈삼국유사〉로 연결된다. "신앙과 역사가 합일점을 모색한 것"이다.

실제, 일연 스님은 고려사회 내부의 변화와 대외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다.〈삼국유사〉는 국가, 국왕 중심의 역사관으로 권신을 비판하는 내용과 단군으로부터 민족사의 체계를 정립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채 교수는 "일연은 궁극적으로는 고려를 재조(再造)하려는 역사의식을 가졌으며, 이를 실천하기 위한 노력이〈삼국유사〉의 찬술로 나타났다"면서 "따라서〈삼국유사〉의 성격을 야사, 설화민담집, 하나의 만록(漫錄), 불교(문화)사 등으로만 볼 수 없다. 시대의 고민과 일연 및 불교계 사관을 반영한 역사서로 읽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왕리준 이코모스 중국위원회 부위원장이 '산사, 한국의 산지 승원' 중 한 곳인 통도사를 현지 실사하고 있다.

한국의 산사, 세계 유산 등재위한 실사

추진위, 9월 11~16일 현지 실사… 왕리준 소장 담당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중인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에 대한 현지 실사가 진행됐다.

산사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위원장 자승)와 문화재청(청장 김종진)는 "2017년도 유네스코(UNESCO) 세계유산으로 신청한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에 대한 이코모스(ICOMOS,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의 현지 실사를 9월 11~16일 진행했다.

이번 실사는 왕리준(王力軍) 이코모스 중국위원회 부위원장이자 중국건축역사연구소 소장이 담당했다.

세계유산으로 신청한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은 △통도사 △부석사 △봉정사 △법주사 △마곡사 △선암사 △대흥사 7개 산사로 왕 부위원장은 6일간의 현지 실사를 통해 산사의 진정성과 완전성, 전 사찰의 보존관리 현황을 점검했다. 또한 사찰 스님과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했다.

이번 실사 결과를 포함한 이코모스의 최종 평가결과는 내년 6~7월경 개최하는 제42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세계유산 등재 심사에 권고사항으로 보고되며, 해당 위원회에서 등재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이에 대해 산사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는 "'산사'의 세계유산 등재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 사찰, 지자체, 문화재청과의 긴밀한 협조 하에 지속적인 학술 및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전통산사 30곳 문화재를 만난다

문화재청, 지역문화재 활용 사업 277선 선정

전통산사의 유 · 무형 문화유산을 활용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들이 선보여진다.

문화재청(청장 김종진)은 2018 지역문화재 활용사업으로 '전통산사 문화재 활용' 30선을 비롯해 △'문화재 야행' 22선 △'생생문화재' 130선 △'향교 · 서원 문화재 활용' 95선 등 총 277선을 선정했다.

이들 사업들은 지역 문화재에 담긴 의미와 가치를 개발해 지역문화 향유 기회를 늘리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공모에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석 달 동안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총 456건이 접수돼 277선의 사업이 선정됐다.

이중 전통산사 문화재 활용 30선은 인문학적 정신유산과 역사문화자원이 풍부한 전통산사의 문화재적 가치와 의미를 체험 · 공연 · 답사 등의 형태로 국민이 누리는 고품격 산사문화 관광프로그램이다.

대표 프로그램으로는 △속리산 법주사의 '사시사악(史視樂樂)-역사를 돌아보는 한걸음' △오대산 월정사의 '오대자락, 천 년의 인고를 품다' △지리산 실상사의 '실상사, 마을과 함께한 천년의 향기를 느끼다' △도솔산 선운사의 '보은염 이운행사, 1500년을 이어온 은혜 갚은 소금이야기' △조계산 송광사 · 선암사의 '조계산 천년산문을 열다' 등이 있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문화유산이 핵심 관광자원으로서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한국불교종단총연합회 회원(단체)등록 안내

본 법인은 민법 제32조와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제청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거 사단법인 한국불교종단총연합회 법인설립을 허가 받은 단체로서 본회 회원(종단 및 사암)을 모시고져 지면을 통하여 알려드리게 되었습니다.

• **설립동기** : 대덕 큰스님께서 활동하셨던 단체에서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법인설립자와 회장단이 독선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회장단과 회원들간에 소통하며 투명하게 운영하면서 모든 행사를 회원들과 협의하여 행사일정을 잡고 회원들 상호간에 서로 친목을 도모하는 단체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본회를 설립한 스님들도 위와 같은 소망을 추구해 왔던 당사자로서, 회원(종도)들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단체등록 및 행정지원

1 종단 및 사암, 문화예술 단체등록
2 세무서 고유번호등록 서식
3 관청 등록번호등록증명서 서식
4 관청 단체명의 차량등록 서식
5 종단 및 사암운영 행정 서식
6 사단, 재단법인설립 서식

▶ 회원(종도)에게 발급하는 증명서

1 법인명의 가입증명서
2 법인명의 소속증명서
3 법인설립허가증
4 법인명의 신분증, 승려증
5 기부금영수증서식, 기부금영수증발급대장, 명세서 서식

사단법인 한국불교종단총연합회

홈 페 이 지 : 인터넷 주소창에서 한국불교종단총연합회.한국 또는 http://sansoo5.cafe24.com
대구사무실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당로 205(성당동) 2층 전화 053-621-0408
강원사무실 : 강원도 동해시 만우안길 5-3(만우동) 정심사 전화 033-534-3956

제24차
청암사 승가대학 총동문회

삼보에 귀의하옵고,
머무는 곳마다 주인으로 애쓰고 계실 청암 동문 여러분!
결실의 계절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이번 제24차 총동문회가 어김없이 청암사에서 열리오니 선. 후배 동문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날 짜 불기 2561(2017)년 10월 9일 (음, 8월 20일) 월요일
시 간 오후 2시
장 소 청암사 자양전
문 의 054)432-2652



청암사승가대학총동문회장 유화 합장



향봉 스님의
一切唯心造

비우기 버리기 나누기

'징하다'는 말이 있다. '징그럽다'의 전라도 방언이다. 징그럽게, 독하게 마음을 다잡아 간절심으로 정진(精進)해야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

어제 대구에서 찾아온 거사들에게 들려준 내용을 간추려 옮겨본다. 불자(佛子)들은 일상생활에서 비우기, 버리기, 나누기를 실천 덕목으로 삼아 생활화해야 한다.

비우기는 마음속의 흔들림, 헐떡임을 줄이며 비워내는 수행법이다. 지나침은 부족함만 못하다는 평범한 진리를 실천하는 노력이다. 천 가지 만 가지로 흩어지는 마음을 추슬러 단순화하며 지나친 욕심을 하나 둘씩 내려놓으며 마음을 비워가는 것이다. 쉽지는 않겠지만 마음 비우고 내려놓기가 반복되면 어느새 개운한 느낌, 잔잔한 기쁨을 느낄 터이다.

미운 감정도, 화냄도 길들이며 우선은 내려놓기, 지우기, 비우기를 거듭하다보면 온갖 유혹에서 자유로운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거친 말과 행동에서 한 박자 늦추고 두어 걸음 물러나 생각을 비우면 어둠이 빛이 되는 것이다. 후회할 일이 줄어들고 망신당할 일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부부사이의 전쟁이 평화로 바뀌고 가족 간의 대립이 기대와 신뢰로 변해가는 것이다. 친구와 이웃 사이에도 믿음이 둘레를 넓혀 사람 좋은 모범 케이스가 되는 것이다.

마음 비우는 것, 집착을 덜어내는 것, 감정을 길들이는 것, 한 박자, 한 템포 늦춰 입장 바꾸어 상대를 배려하면 나도 웃고 상대도 웃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과 노력은 처세학적 수준에 머물게 되면 일시적 일탈행위로 윤회를 거듭하게 될 터이다. 마음 비우기에도 간절함이 기본이 되어야 그 생명력이 평화와 행복, 자유를 누리게 됨을 잊지 말 일이다.

안으로는 마음 비우는 정진과 함께 밖으로는 버리는 것을 생활화해야 한다. 사람이 앓는 병은 소유욕과 집착심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99마리의 양을 기르고 있으면서 100마리를 채우기 위해 이웃집의 양을 욕심내는 어리석음을 사람들은 즐기고 있다. 천만 원이 모이면 고맙겠다는 사람에게 천만 원이 생기면 욕심을 키워 이천만원, 삼천만원으로 치닫는 게 사람의 욕구심리이다.

사람에게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은 재산보다 명예보다 자신의 건강이다. 돈을 벌기 위해, 명예를 높이기 위해 쉴 때 쉬지 못하고 잠잘 때 잠들지 못하며 먹을 때 끼니마저 건너뛰며 세상 사람들은 전쟁하듯 살고 있다. 그리하여 돈도 벌고 명예욕도 어느 정도 성취했고 살 만큼 되었다고 힘을 느낀 순간, 육체는 이곳 저곳에 병이 깊어 후회로 남는 신음 소리가 길어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건강은 건강할 때 살펴야 건강만점을 누릴 수 있다. 과로는 만 가지 병의 원인이 된다. 작은 것으로 만족해하며 지나친 일 욕심으로 몸과 마음이 지쳐 병자(病者)로 살지 말 일이다.

가능하면 밖으로 치닫는 생각을 줄이고 쓰잘 데 없는 반연(攀緣)을 덜어내며 분주하지 않게 느긋하고 평화롭게 빨려듦과 끌어당김의 법칙에서도 균형과 조화를 이루며 살 일이다. 욕심은 버릴수록 아름답고 집착은 키울수록 병이 되기 때문이다.

유형 · 무형의 그 무엇을 버리는 생활 습관은 평화와 행복, 자유를 누리는 지름길이다. 인연도 버리고 욕구도 버리고 명예도 버리기 시작하면 어둠이 빛이 됨을 느낄 터이다. 단순화하는 순수한 마음이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나누기의 수행법이다. 사람은 누구나 필요 이상의 욕심을 마음에 담고 있으면서 마음이 무겁다고 투덜댄다. 필요 이상의 물건을 갖고 있으면서 나눌 줄 모르고 챙기고 모으며 쌓아두려는 못된 병을 앓고 있다. 우선은 책상 정리하며 옷장 정리하며 나눌 물건을 챙겨보자. 수두룩함을 느낄 터이다. 물건 나눔만 나눔이 아니다. 부드러운 미소와 위로의 따뜻한 말 한 마디도 나눔이다. 칭찬하는 애어보시(愛語布施)도 생활화하자.

하여, 수행승들의 설법은 법보시(法布施)에 해당된다. 당연한 일인데도 설법이 끝난 뒤 주최 측에서 내미는 현찰이 든 봉투를 챙겨가는 뒷모습이 여간 걱정스럽다. 아무튼 비우기, 버리기, 나누기를 생활화해야 불자다운 불자이다. 그러나 징하게 겁나게 마음을 모아 간절함으로 정진하면 누구나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 아무나 행복과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징하게' 마음을 모아 정진한다면
누구나 행복 · 자유를 누릴 수 있다

방망이 질로 사람을 제접하다



지안 스님의 〈禪話의 향기〉
조계종 고시위원장

〈금강경〉 경문에 "과거의 마음도 찾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찾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찾을 수 없다(過去心不可得 現在心不可得 未來心不可得)"는 말이 나온다. 마음은 시간에 의해 포착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이 말과 관계된 설화가 전해진다.

덕산선감(德山宣鑑: 782~865)선사는 방(棒)으로 유명한 스님이다. 법을 물으러 오는 사람을 방망이를 휘둘러 곧잘 때렸다. 임제선사가 할(喝)을 하여 사람을 깨우쳤듯이 덕산은 방망이질을 하여 사람을 제접(提接) 했다는 것이다. 선가의 특이한 가풍(家風)이었다.

덕산은 어려서 출가하여 율장을 깊이 공부하고 또 〈금강경〉에 정통하여 강설을 잘 하였다. 속성이 주씨(周氏)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주금강(周金剛)이라 불렀다. 그가 지은 〈금강경소〉를 〈청룡소〉라 불렀다.

어느 날 덕산이 자기가 지은 〈청룡소〉를 걸망에 넣어 어깨에 메고 길을 가고 있었다. 도중에 시장기를 느낀 그는 마침 길가에 떡을 파는 노파를 만났다.

"요기하게 떡 좀 주시오."

노파에게 말했더니 노파가 얼른 떡을 주지 않고 "스님 걸망에 무엇이 들었습니까?"하고 묻는 것이었다.

"불경 가운데 〈금강경〉이라는 경이 들어 있소." 이렇게 말하자 "〈금강경〉에 과거의 마음도 찾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찾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찾을 수 없다 했는데 스님은 어느 마음에 요기를 할 것입니까?"하는 것이었다.

요기하는 것을 중국에서는 점심(點心)이라 한다. 훈을 따라 해석하면 마음에 점을 찍는다는 뜻이다.

이 말에 주금강이 그만 말문이 막혀 대답을 못했다. 천하에 〈금강경〉에 대해서는 자신이 제일인양 뽐내왔던 주금강 덕산이 말을 못하자 노파가 혀를 차면서 용담숭신(龍潭崇信)선사를 소개하며 찾아가 볼 것을 권했다. 그리하여 덕산은 용담을 찾아갔다.

덕산은 용담이 있는 절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호탕한 객기를 부렸다. "용담이라고 하더니 용도 없고 못도 업구나." 그러자 한쪽에서 스님이 나오며 "그대가 용담에 참으로 잘 왔네"하는 것이었다.

덕산은 용담의 방에서 밤이 깊도록 법담을 나눴다. 이야기를 마치고 용담의 방에서 나와 객실에 가 자려고 하였다. 막 방문을 나왔을 때 칠흑 같은 어둠 때문에 신발을 찾아 신을 수가 없었다. 덕산은 용담에게 신발을 찾게 불붙이는 종이에 불을 붙여 주기를 청했다. 용담이 불을 붙여 덕산에게 건네주려다 덕산이 받으려는 순간 훅 불어 불을 꺼버렸다. 그 순간 덕산이 활연대오(豁然大悟)하였다. 이튿날 덕산은 자기가 지은 〈청룡소〉를 법당 앞에서 불을 붙여 태워버렸다. 덕산의 오도기연(悟道機緣)에 대해 전해지는 이야기다.

〈선문염송설화〉 672칙에는 "덕산이 스님들이 방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면 주장자로 바로 때렸다"는 이 말을 두고 여러 스님들이 읊은 송(頌)이 달려 나온다. 그 중에 대홍보은(大洪報恩)은 "한 방에 한 줄기 흔적이 남으니 그 매운 맛을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구나. 대장부라면 기개가 넘칠 것이지만 몇 사람이나 그 은혜를 알까? 애달프다"라고 하였다.

주장자로 사람을 때린 것이 은혜를 베푼 것이다. 주장자로 때리는 것도 화두와 다르지 않다. 사유분별과 언어문자의 개념으로 모색하려는 길을 차단하는 방편이라 할 수 있다.

덕산이 만년에 병이 들었다. 노쇠해져 건강이 매우 좋지 않았을 때 어느 스님이 찾아와 물었다. "병들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까?" "있다." "병들지 않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때 덕산이 "아야, 아야" 아파 신음하는 소리를 냈다. 〈염송설화〉 677칙에 나오는 이야기다.

〈설화〉에는 '아야, 아야'라 한 것은 병든 자임을 나타내는 소리다. 병든 자 외에 따로 병든 자가 없다는 뜻이다. 여기서 대각회련(大覺懷璉)이 읊는다. "백태 낀 눈으로 보니 허공에서 꽃이 피는구나. 밝고 맑아지면 무엇이 있고 무엇이 없을 것인가. '아야' 하는 벼락같은 소리의 뜻을 아는가? 깨어나고 보면 원래 병든 몸은 없노라." 이 이야기가 나중에 덕산의 '아야'(德山)라는 공안으로 제시되었다.

중생은 업에 무너지는 존재



시인 도정 스님이 풀어쓴 〈대장부론〉 시즌2
⑫ 무엇에 탄식하는가

愛悲品第二十

若人不知身心常爲極苦所縛。則不能知他心中苦。無悲者無惡不作。若見他衰禍心不調軟。此人名爲極惡行者。若有重恩者何時能念。臨死之人雖有美藥以爲極苦。爲極行惡。無福德者得慈悲甘藥作極苦想。若人巨富多饒財寶。但自食취不與他人爲人所呵。雖有智慧多聞若無悲心。亦爲人之所譏呵。若見苦惱眾生難得悲心者非功德器。猶如破器不任盛水。有悲心者見苦眾生雖不能救濟。可不能歎言苦哉眾生。見眾生爲貪欲瞋에愚癡所病。生老病死之苦常爲眾苦之所惱逼。怪哉眾生墮是大苦。世間眾生身苦心苦。常爲結業之所破壞。嗚呼怪哉。世間眾生逼迫之苦。何有菩薩而不生悲。身住於衆流沒生死無窮可畏大苦海。

번역 | 애비품 제20

만약, 사람의 심신(心身)이 극심한 괴로움에 얽힌 줄 모르고 남의 마음에 괴로움도 능히 알지 못하면 자비심 없는 자이며, 악을 짓지 않음이 없습니다. 만약 남의 어려움을 보고 마음을 부드럽게 쓰지 못하면 이 사람을 극악한 사람이라 합니다. 만약 거듭 은혜로운 이라면 언제나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임종에 있는 사람이 비록 좋은 약이 있어 극심한 고통을 벗어나려 해도 악행이 극심하면 복덕이 없는 이며, 자비의 감로 약을 얻어도 극심한 고통으로 생각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거부에다 재물이 넉넉해도 자기만 먹고 타인에게 주지 않는다면 사람들의 비난하는 바가 되듯이, 비록 지혜 있고 아는 게 많아도 만약 자비심이 없다면 역시 사람들의 지탄을 받습니다. 만약 고뇌하는 중생을 보고 자비심을 갖지 못한다면 공덕의 그릇이 되지 못하나니, 마치 깨진 그릇에 물을 담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비심 있는 이라면 괴로운 중생을 보고 비록 구제할 수 없어도 중생에 대해 탄식하지 않겠습니까. 중생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의 병에 걸렸음을 보고 생로병사의 고통과 늘 괴로움에 얽혔음을 보면 "괴이하다. 중생은 큰 고통이 따르는구나. 세상의 중생은 몸과 마음의 고통에 항상 묶이고 업으로 무너지는 구나. 오호, 괴이하다"합니다. 세상의 중생이 핍박 받는 고통에 어찌 보살이 자비심을 내지 않겠는지요. 몸은 생사에 달려가고 휩쓸리는 데 머무니 한없이 두려운 큰 고해(苦海)입니다.

해설 | 같은 하늘, 다른 모습이 우리네 살이다. 때론 소나기처럼 같은 장소에서 소잔등이 갈리듯 젖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사람도 같은 사람이지만 얼굴모양과 피부색이 다르듯 그 업식(業識)에 따라 생각하는 방법이 다르고 생각하는 모양도 다르다. 문화는 나라와 인종과 생활환경에 따라 천차만별이고 그 천차만별의 국토마다 천차만별의 부처가 출현하였으며, 또 그 국토의 차이에 따라 중생이 살았다.

이러한 차이와 차별의 세계에서 불이(不二)는 무엇일까? 어떤 이에게는 차별 없음을 강요하는 것이 부처님이나 보살이 말하는 자비라는 이름의 정신적 폭력은 아니던가?

"네 배부른 것만 생각하지 말고 배고픈 이를 생각하라"고 강요하는 건, 온갖 희생을 감수하며 아끼며 모았던 재물을 한 순간 헛것으로 치부하는 가진 자에 대한 폭력이 될 수 있다. "괴로운 중생을 보고 같이 괴로워하는 마음을 가지라." 고 말하는 건, 어쩌면 살아남기 위해 남을 죽여야만 하는 전쟁터에서 돌아온 이에게는 더할 수 없는 폭력이 된다.

이쯤 되면 이제 선과 악은 가름할 길 없는 수렁이다. 이제 인생은 완벽한 고해(苦海)다. 사람은 진흙소가 되어 쉴 수 없는 세상에 던져져 쟁기질을 해야만 한다.

'오호, 괴이하다(嗚呼怪哉).' 세상의 중생은 고통에 묶이고 업에 무너지는 존재다.

기공 염불소리치료 명상 센타
기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무료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낮 12시

미래의 대체의학인 기공(밀교의 의성신 · 금강신)을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입 문 :** 초보 입문자의 기맥을 직접 열어주고 발공능력까지 갖추는데 3 ~ 6개월(주1회 특별수련)
■ **고 급 :** 개인의 기공능력을 아무 부작용 없이(주화 입마, 상기병 등등) 키워나가면서 단기간에 최고의 경지에 이르고자 하는 분(비법 전수)
■ **특 징 : 제6차크라(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피부호흡)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기에너지체)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면접 상담 후 결정) ■ 등록번호 : 138-50-00260
■ 문 의 : ☎ 02-393-8027 (기공치료 예약 접수)

기공치료 명상가 처명(선광) 스님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과정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前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기공 염불소리치료 명상 연구소 (소장 : 처 명)

제97기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佛教儀式(범음·범패) 學人 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개 강 일 : 2017년 10월 중
◆ 강의일시 : 매주 (화, 금) 오후 5시 ~ 6시 30분 (90분 강좌)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0496

빙의치유(영가장애) 상담환영!!

빙의치유도 전문가를 만나야 문제해결이 가능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과 가족의 행복이 걸린 문제입니다!!

각종 빙의의 구체적 증상

- 사람이 갑자기 어느 시점부터 이상 행동하는 경우 (폭력적으로 변한 경우, 술을 갑자기 많이 먹는 경우, 술 먹으면 눈빛이 바뀌는 경우, 밥을 끊임없이 많이 먹는 경우 등)
- 잠잘적 마다 많은 꿈에 시달리는 경우, 잠잘적 마다 가위 눌리는 경우
- 숙면 취하지 못하고 불면증 심한 경우
- 어느 시점부터 사람이 의욕이 없고 우울해지고, 몸이 마르고, 몸이 천근 만근 무거우나 병원에선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경우
- 불안, 공포, 무서움증이 심한 경우
- 알 수 없는 머리 두통, 가슴통증, 배아픔 등이 있는 경우
- 환청, 환각 증세가 심한 경우
- 가정불화, 사고 우환이 계속되는 경우
- 중, 고등학생이 갑자기 이상 행동, 폭력적 행동, 학습능력저하, 자살충동 일으키는 경우
- 장례식장, 상가집, 국내외 여행 다녀온 후 몸과 마음에 이상 증세 있는 경우
- 여러번 천도재, 굿을 해도 효과 못 보신 경우
- 아무리 센 신기운도 제압, 천도가능 함.
- 신기운, 무병에 시달리는 경우
- 동물(소,돼지,개,닭,오리,어류 등). 식물(큰나무 베고 탈난 경우) 영가도 천도 가능함.

ㅏㄴ ~",5 ㅏ 빙의치유 전문자격 갖춤

- **차후 지속 관리해 드림 (또 다른 기운이 들어올 수 있음)**
- **원격치유 가능 (외국에 있는 분도 치유가능)**
- **몸안에 들어온 영가제령, 최고실력 보유 (전국 최고)**

DJ — fi J¶ æ

BD , >L(y ㅏ
※ 전국 어디든 상담환영!

오시는길 : 제주시 삼무로 47, 3층(연동) 삼무공원버스 정류장 하차하여 바로

HOT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을 복원 해 놓은 책!!!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民醫術"

D

신간

제 1편 치병편
제 2편 치료술
제 3편 모든 질병의 증상, 원인 및 치료법
제 4편 수행편

지은이 최태규 | 펴낸곳 배문사 | 412쪽



범인(일반인)은 세월과 더불어 생명에너지(정기)를 다 유실하므로 정신이 흐려져 결국 치매에 걸리거나 병들어 생을 힘들게 마감하게 된다. 그러나 지각 있는 사람은 세월과 더불어 생명에너지를 모아가므로 날로 정신력이 강하여져 맑고 선명한 의식 상태, 앉은 채로 육신에서 영혼을 이탈 시킬 수 있다. 즉 다시 말해서 폼 나고 멋있게 죽을 수 있다. 이 의서는 임상실험을 통하여 가히 늙거나 병들지 않고 병이 들었더라도 저절로 낫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명확히 제시해 놓았다.

– 지은이의 말 중에서

가액 20,000원 (배송비 포함)
농협 715027-52-064797 (예금주 : 최태규)
구입 054)734-1767 민속죽염 www.msjy.co.kr

민중의술의 특징



① 애초에 병이 나지 않게 한다.
② 의료술이 정말 뛰어나고 완벽하게 낫게 한다. 또한 부작용이 일체 없다.
③ 너무 쉽고 간단 명료하다.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쉽게 터득할 수 있다.)
④ 돈이 거의 들지 않는다. (면역력을 극대화하므로 자연치유되도록 하여 치료약을 쓰지 않는다.)
⑤ 나이가 들어도 쉽게 늙지 않는다.

"갖고 싶던 선물 받아 행복해요"

증심사, '희망 우체통' 선물 전달



저소득가정 아이들을 위한 특별한 선물 전달이 열려 화제를 모으고 있다.

광주 증심사 대원장학회(이사장 연광)는 9월 16일 광주 동구청에서 지역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희망 우체통 사랑의 선물' 전달식을 갖고, 동구 관내 아동들에게 700만원 상당의 선물을 전달했다.〈사진〉

'희망 우체통'이란 지역 저소득층 아이들이 평소 갖고 싶은 선물을 신청 받아 직접 사찰에서 구입해 전달하는 프로그램으로, 이날 증심사는 31명의 아동에게 자전거, 미술용품, 신발, 시계 등 다양한 물품을 전달했다.

평소 운동을 좋아해 복싱에 관심이 많았던 정윤동(12, 초5) 어린이는 소원 우체통에 복싱장비를 신청했다. 이날 정윤동 어린이에게는 유명상표의 복싱 신발, 장갑, 마우스피스 등이 전달됐다. 좀처럼 웃지 않는다는 아이의 해맑은 미소를 본 보호자와 주변사람들은 큰 박수와 함께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연광 스님은 "아이들이 소원하는 물건을 선물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아이들을 위한 맞춤형 행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연꽃마을 자비원, 추석맞이 나눔잔치

암환자 및 독거노인 초청



행사에 앞서 수 한방병원 의료진이 어르신들의 건강검진을 돕고 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연꽃마을 자비원(대표 정인)이 암환자와 독거노인 100명을 초청해 나눔잔치를 열었다.

전주시 덕진구청 강당에서 열린 나눔잔치에는 정인 스님과 불심정사 법성 스님, 임현기 한국노인복지봉사회 전북지부장, 임선영 전주 수 한방병원장을 비롯해 구청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홀몸 어르신 등 200여 명이 동참했다.

이날 정인 스님은 덕진구청에서 추천한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허리보호대, 소염진통제, 홍삼엑기스 등 건강보조식품과 쌀, 라면, 치약 등 생활필수품 등 5,000만원 상당의 제품을 어르신들에게 전달했다. 행사에 앞서 전주 수 한방병원은 어르신 건강상담을 진행했으며 아리랑 예술단은 경로위안공연을 펼쳐 어르신들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한국노인복지봉사회 전주지회장도 겸직하는 정인 스님은 "명절을 맞아 부모님 모시는 마음으로 어르신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고자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성모암, 효사상 담긴 무량수전 기공

2018년 11월 완공예정



대각교단 총재 석가산 스님이 친필 현판글씨를 전달하고 있다.

조선시대 고승으로 널리 알려진 진묵대사의 효심을 간직한 김제 성모암(주지 영월)이 9월 15일 무량수전 기공식을 봉행했다.

이날 무량수전 기공식은 내장사 대우 스님, 석가산 스님, 백련암 진공 스님을 비롯한 스님들과 사부대중 2,0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삼귀의, 반야심경, 법어, 축사, 격려사, 현판금 전달, 한마당 잔치 순으로 진행됐다.

대우 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진묵대사의 효심이 서려있는 성모암의 무량수전 기공은 진묵대사의 효사상을 기리는 매우 의미있는 불사"라며 불사의 원만 성취를 기원했다.

이어 대각교단 총재 석가산 스님은 친필 현판글씨를 전달했고, 불자노래자랑, 한마당 잔치가 열렸다. 한편 성모암 무량수전은 150㎡ 규모로 2018년 11월 완공 예정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지리산 가득 메운 佛音 향연

국립공원 50주년 맞아 화엄사, 화엄음악제 개최



조계종 어산어장 인묵 스님 일행의 범패 무대. 사찰을 배경으로 장엄함이 느껴진다.

국내 유일의 불교영성음악회인 화엄음악제가 9월 15일부터 3일간 구례 화엄사(주지 덕문)에서 화려하게 개최됐다.

올해 12회째를 맞은 화엄음악제는 첫날 화엄원서 열린 전야제에서 한국인 '있다'와 일본인 '마르키도'로 구성된 혼성 듀오 '텐거', 보컬리스트 정마리의 공연이 펼쳐졌다. 특히 무용가 '이양희'의 주도로 분위기를 끌어올린 퍼포먼스에서는 관객과 아티스트가 함께 호흡하고 명상하는 특별한 경험을 나눴다.

16일 본 행사인 화엄콘서트에는 33번의 타종의식과 함께 조계종 어산어장 인묵 스님 일행의 '범패(梵唄)'가 무대 포문을 열었다. 이어 화엄음악제의 특별 프로그램인 '화엄레지던시'에 참여한 세계 8개국의 뮤지션들이 1주일 동안 화엄사에 머물면서 만든 곡을 발표하는 시간도 있었다.

이외에 색소폰 연주자 '신현필', 국립국악원 민속악단 '박은하', 거문고 산조 인간문화재 '이재화'의 공연도 눈에 띄었다. 특히 총감독 '원일'의 지휘로 합창단 어썸콰이어와 화엄오케스트라가 협연한 김민기의 '이 세상 어딘가'에서는 각황전 가득 고래 이미지가 날아다니는 3D 매핑 퍼포먼스가 밤하늘을 수놓았다.

마지막 날인 17일은 야단법석 콘서트가 장식했다. 지역을 대표하는 기타리스트 박석주와 조동희, 장필순의 무대는 가을의 시작을 알리기에 충분한 공연이었다. 무엇보다 지리산 국립공원 지정 50주년을 맞아 30년 만에 국보 301호 '화엄사영산회괘불탱'의 현괘의식이 특별함을 더했다.

한편 올해 신설된 '화엄레지던시'에는 한국, 미국, 영국, 카보베르데, 불가리아, 레바논, 모로코, 일본에서 20여 명의 아티스트들이 초청됐다. 클래시컬 넥스트의 디렉터 제니퍼 다우터만과 원일 감독이 멘토로 레지던시를 이끌었으며, 장르를 넘어 자유로운 교류를 통해 각자의 음악적 스펙트럼을 넓히는 계기가 됐다. 화엄레지던시는 이번에 참여한 각국의 뮤지션을 통해 이후에도 다양한 결과물을 양산하는 플랫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스님의 청소년 봉사활동 장려

탑사 갑룡장학회 봉사장학금 1천만원



갑룡장학회 이사장 진성 스님과 장학금 수상 학생들이 기념촬영하는 모습.

지역 청소년들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지난 23년간 장학금을 전달해오고 있는 전북 진안 마이산 탑사 갑룡장학회(이사장 진성)가 자원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갑룡장학회는 9월 20일 진안군 산약초타운 2층 강당에서 지역 청소년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하고, 진안군 관내 11개 읍면 자원봉사단에서 추천한 초중고 및 대학생 22명에게 총 1,0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전달식에는 진성 스님을 비롯해 광명사 주지 송운 스님, 쌍봉사 주지 보경 스님, 탑사 총무국장 정해 스님, 교무국장 해동 스님을 비롯한 스님들과 김용진 자원봉사센터장, 박명석 군의장, 김남기·이한기 군의원, 자원봉사 관계자, 장학생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진성 스님은 점심을 거르는 친구를 위해 뉴욕 지하철에서 돈을 벌고 있는 한 어린이 사례를 예로 들며 "남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나눔을 실천한 것이고, 봉사와 나눔의 정신이 뛰어나고 올바른 사고를 가진 학생"이라며 "자원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장학생 여러분은 국가와 지역을 위해 봉사정신을 실천하는 재목이 돼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은 선행에 앞장서고 가장 많은 시간을 자원봉사활동에 할애해 추천됐으며, 대학생에게는 각 50만원, 초중고교생에게는 각 40만원의 장학금이 전달됐다. 진성 스님은 장학금을 전달받은 학생들에게 저녁식사도 함께 제공했다.

수업으로 인해 대리 수상한 전병관 학생의 부친 전근수 거사는 "당연히 동참해야하는 자원봉사활동인데 장학금까지 주시니 감사할 따름"이라며 "앞으로 온 가족이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달라이라마 방한 기원 다큐멘터리 영화 상영

방한추진위, 시사회 열어

달라이라마의 방한을 촉구하는 다큐멘터리 영화 시사회가 열렸다.

달라이라마방한추진위원회는 9월 19일 광주극장에서 무료 시사회를 갖고 달라이라마의 방한을 추진하는 행사를 열었다.

행사에는 진화 스님(송광사 주지), 진옥 스님(석천사 주지), 금강 스님(미황사 주지), 명신 스님(연화사 주지)을 비롯해 이범식 광주불교연합회 신도회장 등 600여 불자들이 참여, 50분간 다큐영화 '오 다람살라'를 시청하고 기념식을 진행했다.

명신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아직도 한국에는 세계적인 불교지도자인 달라이라마 스님의 방한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달라이라마 스님의 방한을 통해 많은 한국인들이 높은 가르침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되길 기원한다"며 "달라이라마 스님의 다큐영화 상영이 스님의 방한을 추진하는데 좋은 시발점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이주민과 5대 종교 화합 기원 음악축제

마하이주민協 화순서 개최

한국에 정착한 다문화가정 및 아시아 외국인들과 5대 종교인의 화합을 위한 어울림한마당이 열렸다.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상임대표 정호)는 9월 17일 화순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에서 아시아이주민 12개국 600여 명과 조계종 사회부장 진각 스님, 국제전법단장 계성 스님, 몽산 스님(前대흥사 주지), 원일 스님(정광학원 이사장), 현장 스님(대원사 회주)을 비롯해 박지원·손금주 국회의원과 각 종교지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음악페스티벌, 호남종교인영성문화제를 개최했다.〈사진 아래〉

아시아밝음센터(대표 도제)가 주관한 이날 행사는 오전 11시 각 나라별 입장식에 이어 12개국 아시아 이주민들이 참여한 음악페스티벌이 열려 흥겨움을 더했다. 오후에는 천도교(하늘이시여), 원불교(현악 2중주), 기독교(성가대), 불교(범능 스님 추모노래) 공연 등이 진행됐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하기책자 5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 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0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전생의 빚을 소멸시켜 자신의 운명을 바뀌게 하는"

생전예수재기도의 중요성과 그 성취효과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생전예수재는 "왜" 필히 지내야만 하는가?
② 생전예수재 신청 및 집에서 기도하는 방법
③ 생전예수재 기도후 일어난 영험사례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 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768-8413

영혼의 세계(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 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

천 광 수 련 원 ☎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생활안내

▷ 문 의 : 02) 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hyunbul.com
▷ 가 격 : 1회 1Box (4.3×5.0) 4만원, 1회 1Box (8.7×5.0) 8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수요일까지의 입금 기준으로 광고 게재됩니다.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거든 스스로 지킬줄 알아야 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밤 샐 때에 한번쯤은 깨어 있어야 한다.

– 법구경 –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0-9002-8523
빙의 치료 전문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유투브」에서 대명스님를치세요!
대명 합장(부산)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부신시 무형문화재 제9호
영산재작법 천수바라연수원
염불 사물, 승려증 발급 종단
– 특별반 3개월 과정 모집
제9호 영산재 작법무, 천수바라
사찰행사 전문
(사)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전통불교조계종 총무원 영축사
010-5511-7000

허리병 고치는 법 배울 분
2대째 이어온 기술 발명특허
아픈분 한번만 오시면 해결가능
7일이면 호전상태 가능
스님은 기술전수 특별대우
네이버 검색 「허리선생 혜경」 클릭
50년전통 010-3829-7582

역학 · 빙의 퇴마
개인 지도 . 예약 상담
1. 역학 : 사주,궁합,택일,사업운
2. 성명학 강의 및 작명, 개명
3. 빙의퇴마,전생요법,심리상담
4. 정신분열,환청,환시,우울증
※ 빙의(신병)출장 퇴마 및 상담
010-3772-4606 제행
서울 지하철 4호선 상계역

수 맥
수맥탐사 교육생 모집
삼 일 단 기
속성반 (1:1개인지도)
이론실기 현장실습
교육 후 수료증 발급
출장탐사 개인사업자창업지도
(사)한국수맥협회 부산수맥연구소
051)462-8711

천도재 49재 점안식
각종 불공
집전하여 드립니다
바라무,나비무,법고무
호적, 살풀이, 화청
010-4304-0120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 점안, 살풀이, 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011-850-0176

범음범패 학인모집
천도재의식, 상용예불
해설 및 소리 강좌
매주 금요일 오후 3시 ~ 6시
천수바라, 공양작법, 사물지도
사찰행사 문의 환영
(살풀이, 극락무, 지전무, 관음무)
055-744-5300
010-5243-3587
경남 진주 여여불음원 강주 법일 자운 합장



관 상 (손금)
● 생일만 알면 조상운, 평생운을 알 수 있다
● 스님, 천기누설 특별개인지도
● 상술, 비법, 질병 전문강의
● 암, 질병, 묘터, 재판, 이혼, 부도, 낙태유산,조상영가, 얼굴만 봐 도 알 수 있다.
010-4014-8822
(천기누설비법)

이조불교용품 재활용센타
불교용품 고가매입전문. 법당철거. 퇴불 정성을 다해 모셔드립니다. 소,대불 탱화,개금,석불,동불, 특수불 취급 수미단제작
이조불교재활용 센타대표
010-9177-7842

철학, 경전, 49, 천도, 예수재 배우면서 사찰을 같이 운영하실 비구니 스님 모십니다.
35–45세, 차후 사찰을 무료로 양도 해줍니다.
010-6536-0120

법당 철거 조성
정성을 다 해드립니다
퇴불은 파불없이 좋은인연 맺어 어려운 스님들께 무료로 이행해드립니다. 연락바랍니다.
010-2395-3333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1로 58

불교 각종의식 및 재의식
실전교육 학인모집
각단 불공및 재의식에 따른 작법,사물 (목탁 정근북 송주북 태징 요령)등을 빠른 시일내에 여법하게 집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휴심사 수복원
010-8588-2816

최면을 알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요즘 국내외에서 치료법으로 활용되고 있는 최면.우리들의 내면에 빙의(신들림)나 우울증, 어깨통증 환자를 비롯해 수많은 증상들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은 주저하지 말고 연락하여 해결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 바랍니다.
※ 최면 치료는 재발이 없습니다. 새로운 심리치료로 재발이 없습니다.
최면은 누구나 배울 수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누구나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 강의 : 3개월
(일주일 3시간 / 목요일 오후 2 ~ 5시)
한국임상최면학회 회장 상담치유학박사 강성진 교수
052)227-7044. 010-4484-7002
홈페이지 www.hypnosis.or.kr

부처님 모셔가서 기도하실 분
· 불상 : 아미타불,관세음보살,지장보살,소불
· 탱화 : 후불탱화, 신중탱화, 지장탱화, 칠성탱화,산신탱화
· 기타 : 각단촛대,향로,다기,종,북,불전함, 인등,연등, 원목수미단,운각,방석, 제기그릇,각종 공양그릇, 기타일체
보시금 1000만원. 이곳을 인수하셔도 됨
경남 통영시
070-8860-0011

신묘 방편력
사찰, 포교당, 대지, 건물 등 속히 매매 성취
010-2896-6689
광명 공덕
터 / 자리도 봐 드립니다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주)
010-3746-8887

종파를 가리지 않고 조석으로 예불할 비구니를 구함. 노승은 몸이 불편하여 맡기고 쉬고자 함. 도량은 깨끗하고 조계종 산내 암자입니다
경북 내원암
010-6353-1180
054-654-8236

부전스님 (비구,비구니)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10-9421-0730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상주 또는 출퇴근 가능
(서울 영등포 지역)
010-2782-7425

비구 비구니 사찰 관리 운영하실 스님을 찾습니다
(부산)
010-3518-9490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기도 양평)
아침 죽 공양 : 오전 8시
점심 공양 : 정오 12시
저녁 간식(떡,감자) : 오후 5시 30분
010-4206-3647

모든 귀신을 마음대로 부리고 싶은 스님과 돌맹이로 만든 방편이 필요한 스님은 전화 하십시요
☎ 02)963-1148 / 011-741-0867
●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74-1 3층 백선사 대주스님 합장

위 패 몰
www.위패몰.com
염주 마이크목걸이 / 사찰합동위패 / 영가전대
051-244-2040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부산근교 양산)
010-3647-0018

비구니 스님 , 보살님 방사드림
(1인 1거주, 아파트형 25평)
조용한 산사에서 요양하실 분
수행처가 마땅하지 않은 분
사찰에서 여생을 보내실 분
양산 통도사 부근
010-4640-4747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70,000원
한박스 14KG 이상 130,000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 망고, 체리, 아보카도 수입과일 일체 판매합니다 〈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양다원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
Fax 031-881-1350 전화 : 010-5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 (조명숙)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우학스님 상좌 및 예비수행승(행자)모집
이 시대 불교를 리더할 참신한 예비수행승(행자)을 모집합니다
1. 수행위주의 교육
2. 수계 후 공부 100% (대학, 강원, 기본선원) 교육비 전액지원.
3. 공부 마친 후 국내도량, 해외도량, 복지시설 등에서 활동 할 수 있음.
4. 본인의 희망에 따라 대구큰절, 감포도량 중 선택하여 행자생활 함.
문의 : 054-753-8228, 010-8852-00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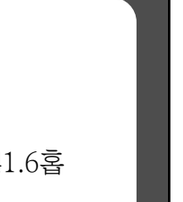
수인작법 사주팔자
– 옛 고승과 도인에게만 전수되어 내려온 비술
– 손 하나만으로도 몇년 전, 몇월, 몇일의 운세점검 몇년 후, 몇십년 후, 몇월, 몇일, 몇시의 일도 예측할 수 있는 작법
– 명리를 배웠어도 시원치 않은 분
– 운명학을 배웠어도 시원치 않는 분
천지조화의 수치를 열어 보입니다
02)918-5554. 010-7703-1188

60대 비구입니다 도심의 작은 사찰 인연기다립니다
010-2168-2800

청정한 제주에서 가족같이 함께 살아갈 비구 기도스님 모십니다
010-3516-6368

MYANMAR (미얀마 語) 강좌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 위빠사나 강좌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미얀마 문화원 (종로구 청진동)
문의 : 02)733-5670

大醫王 부처님의 기도치료법을 널리 펴고 싶습니다



● 인류최초로 기도치료법을 가르쳐 주신분은 부처님이십니다.
● 이것을 세계 최초 가장 현대적으로 풀이하여 누구든지 쉽게 배워 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위 2권의 서적입니다.
● 많은 분들이 이 책을 통해서 기도치료를 할 수 있게 된다면 자기 자신의 건강 증진은 물론 포교방편으로 삼으면 좋을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이 세상의 모든 질병들을 치유할 수 있는 세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총 7권P 두권 구입 할 40,000원
입금 확인후 택배비는 저자부담으로 즉시 배송해 드립니다.
상담 및 책구입 : 011-557-2773, 010-2093-3385
입금 온라인 : 611038-02-030104 우체국(정보식)
352-0943-7979-03 농협(정보식)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50대, 서울 금호동 관음사)
02)2234-3310
010-6260-3310

불자정보



복층 단독 주택 법당 (급) 안내
● 위치 : 경북 영천시 북안면 ● 대지 192평, 건물 약 45평
● 1층 법당, 방 2, 주방, 다용도실 2, 창고, 복층 방 2, 다용도실 / 가건물, 공양간, 다용도실(신축)
● 가액 : 2억 2천만원(대출 6천 포함)
● 현시세 5천만원 저렴한 가액
010-2544-484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의령
● 법당 : 요사채, 방 3개, 주방 ● 부지 : 145평
● 경치 최고, 시내 도보 2분
● 가액 : 1억 2천 500만원
010-2849-8889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시 강동구 천호 2동 338–22호
● 2층 법당 20평, 방1개, 화장실, 사워실
1층 방 3개, 거실, 화장실2개, 지하주방 면적41.6홉
● 가액 : 8억 조정 가능함
02–475–8600 / 010–4623–8815

"참 불교방송" 출연하실 스님을 모십니다
본 "참불교 방송"은 케이블 방송국인 현대미디어 에서 운영 하는 모바일 케이블 방송인 "에브리 온TV" 어플 을 통해서 채널을 런칭 하여 시험방송을 마치고 샘플링 방송을 송출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이 pc로만 사용하던 시대에서 지금은 휴대폰(모바일)로 대부분 사용하듯 방송도 케이블 티비로 가정의 TV에서 보던 방식이 휴대폰으로 시청하는 시대로 바뀌는 시점에 본 방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모바일 방송인 "에브리 온" 방송은 케이블에서 시청하는 대부분의 채널이 회원가입 없이 무료로 시청 할 수 있고 불교 채널도 기존 2개의 채널에 "참불교 방송"이 추가되어 총 3개의 불교채널이 방송되며 약 260개의 기존 케이블 채널이 방송되고 있습니다.
방송출연 하실 관심 있는 스님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 드립니다.
좋은 법문과 방송에서 프로그램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소재의 방송 가능합니다
또한 방송된 프로그램은 신도들께 유튜브 와 카카오톡 이나 밴드 또는 문자로 동영상 보낼 수 있게 제작 해 드립니다.
방송시청 방법 :
휴대폰 Play 스토어 에서 "에브리 온 TV" 어플 설치 (EVERY ON TV)
방송 분류에서 종교 선택 "참불교 방송" 선택시청
채널 : 300번
ON 에브리온 TV
방송문의: 070-7766-6360(代)
010-4058-7553



알기쉬운
구 단 구 궁 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40-0863341 저작권등록번호 C-2011-003967
서비스표등록번호 41-0213393

저작권자 상표권자 법화종헌	저자 (속명 정흥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 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주」로써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누가? 몇일?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내 용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기판(답안지 5분) 작성시에는 과거, 미래 십년도 한눈에 일년 열두달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날짜별, 시간별도 마찬가지이다.)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귀신뽑아 조상천도 연계** ◆교수 이수 후 즉시 영업 활동 가능함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 1월(寅月)의 높은 나무는 바람결에 귀신의 소리를 듣는다.	
수강료	◆스 님 – 오십만원(책값 별도) ◆일반인 – 일백만원(책값 별도) ◆우체국 : 601401-01-001843(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구단구궁법 교실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 27번길 31, A동 107호(지하철 덕천역 12번출구)
cafe.daum.net/9dan9gung 전화 010-7415-0803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관계 및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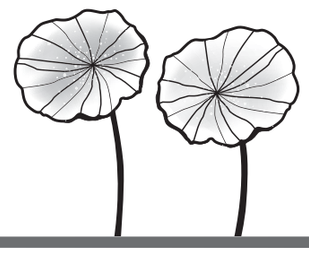
불자정보

▷ 접 수 : 매주 월 ~ 수요일 (팩스,이메일로 광고 접수 받습니다.) ▷ 게 재 : 매 다음주 수요일
※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해드립니다.
▷ 문 의 : FAX 02)737-0696 / 02) 2004-8213 / iom@hanmail.net
▷ 가 격 : 기본 4.7㎝ 50,000원(1회) / 가로 6.7㎝ 70,000원(1회) / 가로 9㎝ 100,000원(1회)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거든 스스로 지킬 줄 알아야 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밤 샐 때에 한번쯤은 깨어 있어야 한다.

- 법구경 -



서울시 사찰 안내

- 위치 : 서울시 강동구
- 지하철역 인접 / 대로변인접
- 토지 137㎡(약41평) 건물 2층 1층 요사 2층 법당
- 방4개, 주방, 공양간, 화장실3개 등 • 가액 : 7억5천만
- 사진 정보 : www.010-3426-9393.com

서울. 경기 사찰 & 포교원 매매 / 임대 급히 구함

이현종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공인중개사 이현종)
주소 : 서울 광진구 뚝섬로52길44 101호
010-3426-9393 / 02-449-0284

논산 추천 사찰 안내

(www.이박사.com)

- 한옥법당. 요사채. 토지는 종중 토지
- 마을 뒷편 산사찰. 기도동굴. 계곡접. 임야 이용함.
- 양도가액 : 4천만원. 건물등기 있음.(스님입적하심)

■ 참되고 좋은인연 만드는 이박사공인중개사

010-7347-1010 (02-430-0284 이박사)

주소 : 서울시 송파구 동남로18길40.가락동프라자@상가(대표:이규철)

■ 비밀 보장. 방문 접수. 전국사찰. 암자 급히 구함 !!!

사찰 안내 "가람"

※ 군산 사찰을 소개합니다.

- 부지 총면적 : 397.5㎡(120평) • 건물 총면적 : 287㎡(87평)
- 가액 : 5억 5천만원

사찰 사진과 상세한 정보는 가람공인중개사사무소 사이트 "사찰안내가람"(인터넷 검색창에 입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가람공인중개사무소 (대표 : 김인수)
02-492-6789 / 010-8980-4789
주소 :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226 (상봉동 128-45호)

광진 사찰 안내

◎ 위치 : 서울시내 ◎ 위치 : 경기도
◎ 부지 : 55평 ◎ 면적 : 2200평
◎ 인법당 : 40평 ◎ 인법당 : 40평,차량진입
◎ 산밑 청정함 ◎ 경관 수려
◎ 양도가 : 6억 ◎ 양도가 : 6억 5천

※4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전국사찰,땅,포교당,다량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고불, 석불, 골동품,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사찰 (급) 안내

- 위치 : 포항 도심속 전통양식 아담한 사찰
- 대지 50평에 100평처럼 사용
- 법당 30평(단청) 2층 방1칸
- 칠성단, 용왕단, 독성각
- 사무실, 주지방, 부엌, 화장실3개
- 문수동자 200불, 소불 1,200불, 인등500개
- 가액 : 2억7천만원

010-4606-7253

사찰 (급) 안내

- 위치 : 경남 고성군 고성읍 내
- 대지 200평, 1,2층 70평
- 1층 요사채 2층 법당
- 즉시 법회 가능 시설완비
- 가액 : 3억 3천 (가격조정)

010-4561-2149

사 찰 안 내

- 위치 : 수원시 동수원 사거리 중심가
- 대지136평, 건평, 149평, 법당, 75평, 식당겸 요사74평,
- 그린상가 2층
- 가액 : 평당 1,500만원
- 주차장 완비

010-3752-2601

논산 사찰(급) 안내

- 조용한 마을 사찰
- 토지 400㎡,목조법당.요사채.공양간.산신각
- 마을뒷편사찰. 깨끗하고 운영이잘 됨
- 스님사정으로 양도
- 양도가액 : 1억3천만원(융자가능함)

010-7347-1010 (02-430-0284)
사무소 방문 부동산 무료 상담
(서울 이박사 공인중개사 이규철)
전국사찰다량보유.무료상담

서울시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시 송파구
- 지하철역 인접 / 대로변 위치
- 3층 134㎡ (약 40평)
- 방1실, 법당, 주방, 공양간 등
- 가액 : 보 5000만원, 월150만 시설비 2000만원

010-3426-9393 (포교원전문)
02-449-0284

사찰 안내 및 전세

- 위치 : 인천시 서구 가정동 494-26
- 대지 : 133.3㎡
- 3층건물 2종근생 올 리모델링
- 가액 : 양도 6억, 전세 2억 (대출 2억 있음, 승계가능)
- 몸만 오시면 됩니다.

010-5002-7392

사 찰 안 내

- 위치 : 대구광역시소재
- 부지 : 300평(종교용지)
- 법당 : 25평(단청), 기타:석등
- 요사채:2동50평,산신각:5평
- 가액 : 4억2천만원
- 특징 : 도심인근의 조용한사찰로 포교와 기도정진할사찰로 좋습니다

- 위치 : 창원시 소재
- 부지 : 60평(종교용지)
- 법당 : 35평(청기와,단청, 2층)
- 요사채 : 35평(종무소,1층)
- 가액: 3억 3천만원
- 특징 : 도심번화가에 위치한 사찰로 포교하기에좋습니다

동진불사 서울) 010-5848-0455
대구) 010-4942-0455 / 제주) 010-5122-8080
* 전국소재 사찰 양도, 양수 하실분 연락바랍니다.

별장같은 암자

- 위치 : 가야산 돗대산 자락
- 창건 20년, 대지 270평, 대웅전 23평, 요사채 30평
- 산신각,용왕당,현재평생위패단 준비중
- 주지실, 종무소, 창고, 모든 시설 완벽 그냥 몸만 오시면 됩니다. 의료관광특구지정
- 공항 15분 → 시청 5분 → 지하철 5분
- 현재 2,000세대 아파트 단지 및 주거지
- 100일전 뉴타운 2,000세대 대단지 아파트 분양 완료
- 가액 : 8억 8천(은융 1억 6천) 안고

010-9906-3631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영도구
- 시장, 은행, 마트 가깝고 교통편리함
- 대지57평, 건물 철근 콘크리트 2층집
- 1층 요사채 30평내, 방2개, 주방1개 거실1개, 세면장 화장실1개, 도시가스
- 2층 법당 20평내, 스님방 1개 도시가스 외부세면장 화장실 1개
- 모든 사물은 갖추어져 있음. 몸만 오시면 됩니다
- 가액 : 3억 1천만원

010-4495-7005 (스님전화)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괴산 60년된 사찰
- 종교부지 911평
- 목조 건물
- 대웅전 15평, 지장전 11평
- 요사채 23평(황토 목조건물)
- 가액 : 4억(대출 2억 2천) (승계가능)

010-6628-827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창녕군 부곡면 수다길 110번지
- 종교부지 총 370평
- 법당건물 총 29평반(단청완료) 화장실3평,기와집,산신각 5평, 요사채 25평,종무소 18평 요사채공양실 20평,기타 창고 10평 (각 보르크 판넬 기와집 1동)
- 가액 : 6억 1천만원

010-8528-4026
(주지스님 직통)

포교원 안내

- 위치 : 김해시 가락로길 30(중앙통)
- 3층 건물 중 2층 80평
- 삼존불 탱화 완비
- 관리비 및 난방비 무
- 가액 : 보증금 2,000만원 월 80만원 시설비 보시고 결정

010-6208-555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 여주
- 부지 : 대지 300평 (500평 사용가능)
- 법당 40평, 요사 60평 외 1동(90평)
- 산속, 차량 진입, 경관 수려
- 가액 : 2억 8천

010-4586-4525

사 찰 안 내

- 위치 : 강원 원주시 신림면 연봉정길 161-3번지(구, 용암리 49-4번지)
- 종교용지 570평, 터밭 278평 주차장 44평, 원주-제천 중간 지점 임법당 32평, 삼존불, 삼성각 10평 요사채 17평, 청룡 백호 2겹 쌓인 도량 정남향
- 사정상 급 양도 : 3억 5천만원

033-744-3859
011-369-3859 (스님직통)
장난전화 사절

한 옥 안 내

- 위치 : 지리산 산청 단성 IC에서 5분거리 지방도 2차선접 토지 1,700평, 한옥 50평
- 정원수 백여종 다량, 식용가능 야생초 다량 식재
- 용도:사찰, 영수원, 동호인주택, 펜션, 찻집 음식점 가능
- 주변도시 진주시내와 20분거리 하나로마트 대형마트 5분거리
- 가액 : 12억 8천만원

010-5923-3388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거제대로 하마정 교차로 큰 대로변 위치
- 상가건물 2층 약 35평
- 방 5개, 주방, 화장실, 큰 거실 등 시설 특A급 완비. 사무실,포교원 다 가능
- 가액: 보증금 1000만원 월80만원, 권리금 조금

010-9208-4030
051-862-6688

사찰 (터) 안내

- 위치 : 경북 청송군 안덕면 고와리
- 사찰터로 적당한 전답 1천8백 평
- 가액: 1억8백만

010-2016-6281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시 수영구 무학로 10번길 35(광안동) 광안리 최고요지
- 3층 건물 2층 50평, 법당 5존불 외
- 한자불 50불 30㎝, 후불탱화
- 방3개,주방1개,식당,화장실2개
- 가액 : 1,500만원, 월세 70만원 시설비 3,500만원

010-3884-0122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시 동래구 온천동
- 특징 : 대지 약 80평 (종교부지)
- 법당 : 약 26평 (주지실, 삼성각 포함)
- 요사채 : 약 24평 단독종교법인 사찰
- 가액 : 4억 5천만원

010-5626-5080

사찰터(절암자)안내상담전문

- 양도 양수 관계 경력이 많습니다
- 보유하고 있는 정보 많음
- 일 처리가 원만합니다
- 성심 성의로 상담 합니다

(불자입소) 공신공인중개사
010-3570-0025
부산시 동래구 안락동 770-2
(사업자등록) 607-46-1892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남 광양시내 뒷산
- 경관좋음. 정원수 다량. 조경된 아름다운 절
- 포교 최적지
- 대지 1200평. 법당 26평. 요사채 30평. 공양실 16평(전체목조.단청완료됨). 창고. 저온 창고.
- 가액 : 8억(대출1억안고) 절충가능

010-6603-1456

사 찰 안 내

- 위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 산세 좋고 물 좋은 힐링사찰 기도하기 좋은 사찰
- 주변 사용 가능한 국유지 많음
- 대웅전, 산신각, 기와단청, 요사채2동
- 면적 34,000㎡, 건물 약 170㎡
- 가액 : 6억

010-5346-4138
051-861-2233
금호부동산 연사 가-13-1645(박춘식)
부산 연제구 월드컵대로 153번길18(연산동)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금강공원 입구
- 금강공원입구 전통사찰 2층
- 법당 천정 일반법당보다 2배 높음
- 약25평(개금 삼존불 · 탱화)(신중탱화)(영단 · 시왕탱화) 범종 30관 · 인등 · 삼성각(칠성 · 용왕 · 산신), 1층 공양간 약 20평, 주차장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 월80만원
- 주인과 상의하에 조정가능
- 월세도 조정가능, 시설비 답사후 결정

010-2689-4435

사 찰 안 내

- 위치 : 예산 수덕사 IC에서 10분 거리
- 천혜의 요지 예당 저수지위에 위치한 150년된 조그만 암자
- 평수 : 약 2만평
- 산수 물 좋은곳, 예당 저수지가 훤히 보이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 가격 : 상담 후 결정

010-5097-3468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남 언양권 교동리
- 2층 건물 50평
- 법당. 방 3개. 공양간. 세탁실. 창고
- 시설비 2천만원
- 보증금1천만원.월세50만원

상담전화 010-7752-1026

사찰양도 및 전세

- 위치 : 북한산(삼각산) 자락에 위치한 절 임
- 대중교통 편리함 (도보로 5분 정도 임)
- 위치는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쪽 임

010-9730-2251
(부재중 문자 남겨 주시면 연락 드림)

사 찰 안 내

- 위치 : 중남 아산
- 종교부지 : 전답 1,300평
- 건물 : 건평 60평
- 1층 법당 방4개, 주방, 욕조, 화장실
- 가액 : 3억 9천만원 (융자없음)

02-2675-6581~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함안군 가야읍
- 대지 1140평. 주차장 완비
- 건물 : 대웅전 30평, 요사채 방 7칸 스님 친견실, 창고, 산신각, 일주문
- 가액 : 6억 3천 500만원

010-2498-7899

사 찰 안 내

- 위치: 포항(장기면)
- 대지 500평
- 임야 2,000평
- 법당, 요사 그외 건물 3동
- 가액 : 9억 5천

010-4537-5386
(메모 남겨 놓으시면 연락드림)

사 찰 안 내

- 위치 : 김해시
- 대지 2,100평 외 법당, 요사 2층
- 노천 아미타 석불,삼성각, 약사전
- 현 사찰 운영중
- 복지사업 최적지
- 보신후 절충가능

010-3887-4576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양산시 물금읍 3층 부산대병원 인접
- 평수 : 60평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 월세 60만원 시설비 상담후 가격절충

연락처 010-9459-9477

사 찰 안 내

- 위치 : 김천시 면소재, 황금동 10분거리
- 법당 약 20평, 주방거실 1, 방2, 세면장, 실내 화장실
- 벽돌조 32평 독채, 건물 개인 등기필
- 남향 교통좋음(2차선 큰길 변)
- 대지 : 공동사용 도지료 1년 35만원
- 가액 : 4천 8백만원

010-7295-1259

사찰터 및 주택지 안내

- 위치 : 경남 하동군 악양면 신성리 46번지
- 답 970평
- 평사리뜰이 아름답게 보이는 좋은 터
- 사찰 터 및 팬션, 전원 주택지로 적합
- 가액 : 평당 30만원

010-3119-1697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미주상가 건너편
- 마당 22평,법당 및 사무실40평, 요사채18평
- 청량리역 도보3분거리,교통요지, 1호선,중앙선,버스 정류장 앞, 옥상 사용 가능
- 주차장 및 제반시설 완비
- 가액 : 시설비 3900만원 보증금 1,000만원, 월세 99만원

010-7409-0490
02)957-0824

청주 도심사찰 안내

- 위치 : 청주시 도심포교 15년 사찰
- 대지: 60평. 건평: 60여평(2층)
- 법당.나한전.요사채2동(방사 5개)
- 2M아미타 삼존불. 지장탱화(문화재급) 원불. 불기일체 양도
- 비영리 사업자등록으로 양도양수함
- 양도가액 : 4억 3천만원

010-6372-8968

암 자 안 내

- 위치 : 경북 김천시 지례면 신평리 599번지
- 대지 129평, 법당 17평
- 아미타도량, 관음, 지장,소불 104위
- 거실, 주방, 방 2, 욕실 2 경내돌탑 수려함
- 가액 : 8,400만원

010-8503-5769
054-430-5769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 방 20평을 법당으로 구조변경 사용하고 있음
- 옥탑방10평 요사채로 사용 하고 있음 화장실1, 공양간 실내와 실외에 있음
- 가액: 보증금 3,000만원, 월세 60만원 시설비 일체 55백만원

010-5429-8292

도심속 작은 사찰안내

- 위치:경남 창원시 진해구 여좌동
- 건물 : 1층 단독주택, 대지 37평
- 아담하고 예쁜사찰, 벌당, 요사 실내화장실, 실외화장실, 세탁실 창고, 포교, 철학 상담하기 좋은 사찰
- 난방 도시가스, 심야 전기
- 가액 : 2억 1,500백만원 (대출 7,500백 안고 1억 4천)

010-7188-7723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하동군 청암면 소재
- 경치좋은 지리산 자락
- 평수 530평, 2필지
- 한옥, 황토방 아래채
- 스님 계시기엔 최적지
- 가액:보증금 오천, 월 20만

055-973-9200

사 찰 안 내

- 위치 : 대구 팔공산
- 토지 457평, 하우스 내 법당 20평 방 2개, 해우소 2개 CCTV, 공양간 50평
- 가액 : 토지 1억 2천 시설비 6천(융자 8천만원)
- 몸만오시면 법회 가능 합니다

010-4504-7809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남 여수시 학동 3길10(2층)
- 총평수 63평, 법당 20평 접견실 10평,서실 10평
- 큰방 2개, 공양간, 화장실 남 · 여 2개
- 가액 : 보증금 3천 월 5십만원 시설비 약간

010-5342-1459
061-662-5130

사찰 및 요양원 안내

사 찰
- 1층 30평, 칠보관음, 천불상 용왕대신
- 2층 25평, 삼존불, 관음소불 130
- 요사채 40평, 큰방 3, 황토방 1

요양원
- 1층 90평, 2층 90평. 대지면적 약 900평
- 정원 25명, 현입소인원 25명
- 신축건물 월매출 약 4천5백만원(요양원만)
- 뒤에는 높은 산이요 앞에는 큰 저수지가 내려다 보이는 전망 최고의 명당터
- 위치 : 경남 밀양
- 가액 : 18억(융자 5억 5천 포함)

010-9567-0813

사찰 부지 안내

- 위치 : 경북 경주시 충효동
- 총평수 1200평,가건물3동
- 부처님삼존불 모셔저 있음 약사여래부처님 9미터
- 삼성각, 요사채(방3,주방, 화장실)
- 주변6미터 도로, 주차시설용이
- 가액 : 6억(상담후 절충가능)

010-6327-1589

남향 황토주택

- 위치 :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 대지190평,건물20평 목조주택
- 남향 소나무숲아래 황토주택
- 전원주택,별장,기도원,암자
- 찜질방,정자,터밭,방4개
- 2016년.12월 건물 리모델링
- 가액 : 1억5천7백만원

010-3848-2452
010-3831-7979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북 포항 청림동
- 상가 2층 80평 단독사용
- 삼존불, 소불, 흑탱화, 제반시설 완비
- 법당, 주방
- 가액 : 은행5천만원 안고 1억

010-2857-2811

토 지 안 내

- 위치 : 경남 의령군 한우산 (합천 삼가면 10분거리)
- 절터 570평, 녹차밭(8년생) 480평=1050평
- 특징 : 조립식 건물 1동 (주방 1, 방 1, 욕실, 에어콘, 높은 다락)

010-6239-3161

사 찰 안 내

- 위치 : 밀양IC에서 얼음골 방향 15분거리
- 잣나무 숲과 계곡의 완벽한 환경
- 총면적 1678평 대지 328평에 2층 건물
- 1층 명상홀과 요사채 60평 2층 대웅전 24평, 나무 숲속에 삼성각 45평 별도 요사채 30평과 창고 20평
- 석물 원통문 수월관음 연화탑 포대화상
- 농지에 사과나무 220주 호두나무 40주
- 가액 : 6억 5천

010-4895-2050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구 동구 효목 2동 동구시장 맞은편 명보약국 골목
- 2층 40평 내실, 상담실, 주방
- 법당 29평, 석가모니주불, 문수보살 관음보살, 지장보살, 산신불
- 가액:보증금 500만원 월 45만원 몸만 오시면 됩니다 시설비는 추후 상담
- 오후 2시 30분 이후 연락주세요

010-9282-5885

비구니스님 요사채 분양 안내

- 위치:경북 울진군 온정면 원덕산길 392 (백암온천 부근)

300여년전에 방장스님이 계셨던 참선도량 기도 영험도량 광흥사에서 요사채를 지어 분양하고자 합니다. 대중스님이 모여 수행, 정진하는 도량이 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대한불교조계종 광흥사 주지 합장

054-788-7672
010-8573-6353

애리조나대, 전세계 불교 망라 불교연구센터 신설

미국 애리조나대학이 불교연구센터를 설립한다.

애리조나대학은 "세계 불교의 종교적 · 지적 · 사회문화적 전통 탐구를 위한 연구 허브 '불교연구센터(Centre for Buddhist Studies)를 새롭게 설립한다"며 "미국 사회에서 불교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에 우리는 불교 및 동아시아 문화에 대한 학문적 연구에 돌입할 것"이라고 9월 12일 학내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인문대 내 설립될 불교연구센터는 세계 불교와 관련한 학술대회 개최, 학자 지원, 미래 인재 양성 및 지원, 강연 개최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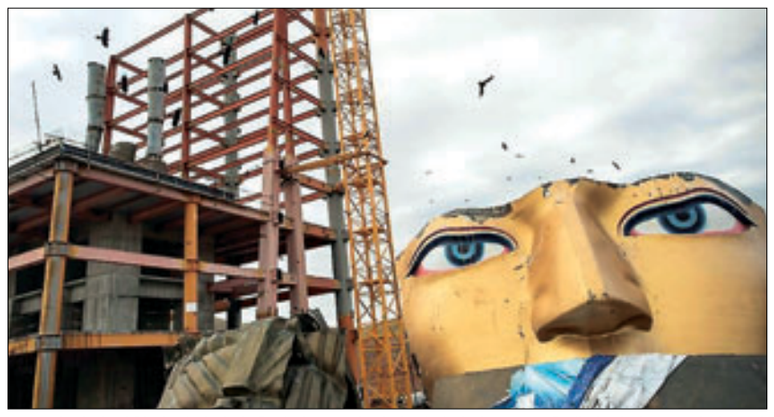
특히 개원 후 향저후 프로젝트, 불교지리정보시스템 프로젝트, 대장경 연구 등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불교지리정보시스템 프로젝트는 전 세계 불교 사원 및 관련 명소들의 디지털 매핑(mapping) 작업을 실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목표로 한다.

장 우(Jiang Wu) 동아시아학 연구교수(불교연구센터 소장)는 "본 연구센터는 세계의 거의 모든 불교를 포괄할 것이다. 치밀한 연구계획을 통해 학생들에게 폭넓은 연구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불교연구센터는 2018년 3월 말경 '동아시아의 선 불교'를 주제로 국제회의를 계획하고 있다. **박아름 기자**

몽골 경제 침체에 불교도 '휘청'

국가 부채로 불교 사업도 무기한 연기 상태



몽골의 경제 상황이 악화되며 울란바토르에 건립 예정이던 불교교육센터 마저도 공사가 중단된 상황이다. **사진출처=데일리메일**

몽골은 오랜 불교 역사에도 불구하고 국채 등 경제적 문제 때문에 불상 하나 제대로 건설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 가운데 올해 당선된 칼트마 바툴가(54) 몽골 대통령이 경제 회복을 선언하고 나서 몽골 불교에도 청신호가 켜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데일리메일'은 9월 14일 몽골의 불교 사업들이 경제적 이유로 중단된 실정을 언급, 앞으로 전망을 소개했다. 현재 몽골불교엔 빨간불이 들어온 상태다.

몽골 내 대표적 불교 부흥 사업인 울란바토르 불교교육센터 개원이 무기한 연기되기도 했다. 건설 예정이던 부지엔 만들다만 불상의 잔재들이 굴러다닌다. 혁명이나 사상의 문제가 아닌 경제적 문제 때문이다. 몽골 정부의 부채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6년 80% 수준을 넘어서면서 불교 부흥 사업은 뒷전이 된 탓이다.

2013년부터 몽골 불교 성지 '하트 힐'의 순찰을 맡은 치그밋 런더브(Tsegmid Lunduv · 68)는 개원이 무기한 연기된 현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을 전했다. 그는 "처음 순찰을 돌 당시 이곳은 희망과 기대로 가득 차 있었다. 이곳에 불교 교육센터가 개원될 예정이었기

불교교육센터 개원 등 중단
불상 하나 건립도 어려워
올해 칼트마 대통령 취임 후
경제 살아나며 불교도 '기대'

때문이다. 달라이라마의 동참으로 기대감은 더욱 고조됐고 항상 사람들로 북적거렸다"면서 "하지만 이곳을 지키는 사람은 나와 내 가족뿐"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상황이 부정적이기만 한 것은 아니다. 올해 당선된 바툴가 몽골 대통령이 국가 부채 탕감 및 경제 회복을 공약으로 전면에 내세우면서 몽골 경제가 살아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런더브는 "새 대통령이 경제를 회복시키면 자연스레 불교 사업도 다시 활기를 띨 것이다. 불교만 다시 중흥하면 몽골 내 모든 사회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편 몽골 불교는 원제국의 태조 칭기즈칸보다 더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한때 인구 중 80%가 라마불교도였으며 한 집안에 남자아이가 많을 때는 1~2명을 출가시키는 풍습도 있었다. 또한 공산혁명 전에는 700여 개 사찰이 있었다. 그러나 공산혁명 초기 불교사원이 파괴되고 승려가 투옥 · 살해됐다. 이에 1990년에는 몽골 내 사원이 단 3곳뿐이었다.

이후 사회주의가 몰락하고 몽골 불교는 몇 십년간 불교의 부흥을 위해 끊임없이 힘쓴 결과, 현재 몽골에는 170여 개의 사찰이 있다. **박진형 기자**

이별 위한 마음 챙김 '굿바이 명상'

뉴욕타임스, 이별에 힘든 이들 위한 명상법 소개

"안녕" 인사하며 위빠사나 몸과 마음에 긍정적 영향



이별을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 '뉴욕타임스'가 9월 13일 굿바이 명상을 소개해 화제다. **사진출처=뉴욕타임스**

이별의 슬픔을 덜기 위한 명상, 이른바 '굿바이 명상'이 소개돼 화제다.

삶 속에는 많은 종류의 '굿바이'가 있다. 각자 집으로 돌아가는 가벼운 이별부터, 죽음에 이르는 영원한 이별까지. 그래서인지 '굿바이'는 영화나 노래에서 슬픈 마지막 작별인사로 많이 쓰인다.

이렇듯 이별을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 '뉴욕타임스'가 9월 13일 굿바이 명상을 소개했다.

굿바이 명상은 일종의 위빠사나다. 위빠사나는 하나의 현상에 마음을 집중해 진실한 모습을 관찰하는 것이다. 역시 자신을 관(觀)하는 것이 굿바이 명상의 주된 방법이다. 다음은 '뉴욕 타임스'가 소개한 굿바이 명상의 순서.

– 우선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을 준비하기 위해 숨을 깊이 들이마신다. 그리고 자신의 몸과 감정에 집중해 알아차린다.

– 흉부의 긴장감 등 몸 상태를 알아차린다. 이미 이별을 아쉬워하고, 그리워하는 자신의 마음 상태를 관(觀)한다.

– 다시 깊이 숨을 내쉰다. 현재 순간과 상대에게 집중한다.

– 상대의 눈을 바라보고 그 · 그녀의 목소리를 주의 깊게 듣는다.

– 상대에게 "굿바이"라며 작별 인사한다. 상대의 대답을 집중해 진심으로 듣는다.

'뉴욕타임스'는 "이를 통해 작별인사가 더 이상 슬픈 이별의 말이 아니라 그 자체로의 순간에 감사하는 말이 될 것"이라며 "삶의 무상함에 대해 알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며, 이별의 슬픔으로 인해 몸이 망가지는 것을 막아준다"고 전했다.

이런 주장처럼 현재에 집중하고 의미있는 "굿바이"를 만들어낸다면 차후 더 큰 이별의 상황에서 더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박진형 기자**

불교학자, 포커게임 상금 전액 기부 '화제'

"열악한 티베트 비구니 스님들 교육환경 개선 희망"



티베트 불교 경전을 연구 · 번역하는 스캇 웰렌바흐는 최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포커대회인 '포커스타'에서 1700명의 경쟁자들을 제치고 17위를 차지해 7만2000달러를 상금으로 받았다. **사진출처=라이언스로어**

티베트 불교 경전을 연구 · 번역하는 스캇 웰렌바흐는 최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포커대회인 '포커스타'에서 1700명의 경쟁자들을 제치고 17위를 차지해 7만2000달러를 상금으로 받았다. 그는 상금 전액을 티베트 비구니 스님들을 위해 기부하겠다고 밝혀 화제다.

웰렌바흐는 캐나다 방송 CBC라디오와 인터뷰를 통해 "이번 상금은 티베트의 척박한 환경에서 수행하는 비구니 스님들을 위해 기부하고 싶다"며 "불교 전통에 따르면 많은 비구니 스님들이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다. 이들이 보다 수월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웰렌바흐는 수년간 포커게임에서 딴 상금을 기부해왔다. 타인의 돈을 쉽게 따는 것에 불편함을 느꼈기 때문이다.

"복권이나 카지노 등으로 큰 돈을 획득한 사람들은 대부분 도박 · 알코올 등에 중독되거나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욕망을 잘 조절해 중독에 빠지지 않으면 우리는 적당히 즐기면서 게임에 임할 수 있습니다. 나는 기부를 통해 이 중독을 조절합니다."

웰렌바흐는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게임에 우승하는 비법도 공개했다.

그는 지난 여름 바르셀로나 온라인 토너먼트에서 우승하면서 오프라인 게임에 참가할 수 있는 스페인행 여행권과 5500유로를 땄다.

스페인에 머무는 일주일 동안 그는 한 번에 12시간 정도 포커게임에 참여했다. 첫 번째 게임에서 그는 경쟁자들 중 가장 많은 칩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당시 경쟁자들 중 4분의1은 전문적으로 포커를 치는 사람들이었다.

이때 웰렌바흐는 우승을 해야겠다고 결심을 했다. 그는 "이때 한 게임이라도 지면 칩 모두를 잃어 게임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경쟁자들을 파악하는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웰렌바흐는 불교공부가 포커 게임에서 우승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그는 "마음챙김과 알아차림 명상을 할 때 우리는 자신과 더 진실하게 마주할 수 있다. 즉, 당신의 감정과 생각을 잘 조절할 수 있는 것"이라며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쉽게 알 수 있다는 것은 감정과 생각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이며, 게임 테이블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다 명료하게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우승에만 매달리지 않고 타인에게 친절과 자비의 마음을 내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나는 포커 테이블에서 참가자들과 대화하는 것이 가장 흥미롭고 행복하다"고 말했다. **이보형 객원기자**



일본서 '명상하는 고양이' 화제

일본의 한 고양이가 선종 사찰 인근에만 가면 걸음이 느려지거나, 부동(不動) 자세를 취해 화제가 되고 있다. 고양이 주인의 트위터를 통해 알려진 이 고양이는 '바위정원'이라고 불리는 이 사찰에만 오면 법당 앞마당으로 발길을 향하고, 제 집인 양 자연스럽게 눕거나 웅크린 자세를 취한다고 한다.

네티즌들은 이를 두고 "고양이가 명상하는 것 아니냐" "전생에 스님이 아니었겠느냐"는 등 재밌는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사진출처=트위터 @jinjahan0817**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알립니다〉

윌리엄 리 부탄문화원장의 **'한국-부탄 수교 30주년 기념 특별연재'**는 필자의 사정으로 **조기 종료**되었음을 알립니다.

반야용선

출원번호 30-2017-00239984

극락세계로 가는 지극한 마음을 반야용선에 담아
부처님의 가피를 염원합니다.

불교의식에서 꼭 필요한 장엄의식구로서 종교적 경건함과 예술적 아름다움이 어우러진 화려하고도 우아한 장식으로 인로왕 보살님의 안내와 지장보살님이 함께 동승하여 극락왕생을 염원하는 것입니다. 정교한 조각, 우아한 단청, 화려한 휘장으로 제작된 최고의 작품입니다.



반야용선 전체 – 높이 130㎝ × 길이 160㎝

• 주문 : 현불샵 02-2004-8214 / 010-7339-8688
(제작기간 : 입금 후 15일 / 전국 어디든 직접 배송하여 드립니다.)

불교 장엄의식의 품격을 보장합니다
평생 사용 하실 수 있으며, 연(輦)만 분리하여 별도 의식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인로왕번 – 높이 129㎝



■ 용선모체 – 높이 63㎝ × 길이 160㎝



■ 지장보살 – 높이 60㎝ × 넓이 18㎝



■ 반야용선 앞면



■ 반야용선 후면



■ 연(輦) – 높이 62㎝ × 넓이 68㎝ (받침대 높이 43㎝)



■ 반야용선 받침대 – 높이 48㎝

■ 무 게 : 반야용선 전체무게 20kg
■ 금 액 : 450만원
■ 재 질 : 반야용선 – FRP / 연(輦) – 목재
■ 제조사 : 안스아트

행복을 위한 혁명적 기술 자애

샤론 샐즈버그(미국 수행지도자)

〈8〉 함께 기뻐함으로 얻는 마음의 자유

괴로움 다루게 해주는 '열린 마음'



기쁨에 의한 해탈, 무디따

다른 사람들이 행복할 때 진심으로 행복을 느낄 수 있다면, 이러한 마음은 보기 드물게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행복할 때 다른 사람이 즐거워한다면 그들이 보여준 호의 때문에 우리는 존경과 고마운 마음이 흘러넘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번영과 성공 또는 행운에 대해 시기하기보다 진정으로 기뻐할 때, 다른 사람의 행복을 보며 우리 자신도 즐거워질 때, 바로 우리는 네 가지 고귀한 마음 또는 한량없는 마음의 세 번째 덕목인 '함께 기뻐함'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빨리어 무디따(mudita)의 어원은 '즐거워하다, 기쁜 감정을 지니다'라는 뜻입니다. 붓다는 무디따를 기쁨에 의한 마음의 해탈이라 했습니다. 행복의 힘으로 우리가 자유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뻐하는 일은 흥분된 상태나 들뜬 상태와는 다릅니다. 함께 기뻐함으로써 우리는 고독이나 상실, 행복에 대한 뿌리 깊은 선입견을 고칠 수 있으며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함께 기뻐하는 마음을 기를 때 우리를 옭아매는 수많은 부정적인 마음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살아 있는 존재로서 우리가 경험하는 불행의 조건들은 서로를 압박하는 부정적인 태도 때문에 만들어집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을 틀 속에 가둡니다. 서로 비판하고 남들과 비교하며 질투하고 시기하며 서로의 품위를 떨어뜨리지요. 이처럼 틀 속에서 만들어진 숨 막히는 상황 때문에 우리는 괴로워합니다. 마음의 제한된 상태들이 무디따를 방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함께 기뻐함은 네 가지 고귀한 마음 중에서 가장 향상시키기 어렵다고 합니다. 하지만 함께 기뻐함은 우리를 옭아매고 있는 반감과 집착을 이겨 내게 할 만한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불교 경전에, 덫에 걸린 원숭이에 대한 멋진 우화가 한 편 나옵니다. 길을 가던 원숭이 한 마리가 끈적끈적한 타르를 뿌려 만든 덫을 밟고 맙니다. 먼저 원숭이의 손 한쪽이 붙어 버리고, 나머지 손마저 꼼짝 못하게 되어 버립니다. 원숭이는 마지막까지 필사적으로 빠져나오려고 발버둥 치다가 그만 머리까지 붙어 버리지요. 이것이 바로 덫에 걸려 버린 원숭이 이야기입니다.

덫에 걸린 이 원숭이처럼 우리는 판단하고, 비교하고, 분석하고, 품위를 떨어뜨리고, 시샘하고, 좋지 않은 일을 도모하는 등 마음을 괴롭히다가 스스로 덫에 빠져 비참해지곤 합니다. 원숭이가 한 발만 빠졌을 때, 나머지 손과 발로 나뭇가지를 잡아서 빠져나왔다면 덫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무디따에 의해서, 우리는 스스로 타르에 빠지는 곤경에서 벗어나 충분히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우리가 빠져드는 마음의 상태들을 하나하나 주의 깊게 바라본다면, 함께 기뻐하는 마음을 닦음으로써 어떻게 자유로워질 수 있는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열린 마음 위해 버릴 것

(판단하기) 함께 기뻐함이란,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관점을 세상에 강요하려는 선입견과 태도를 잘게 잘라 내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와는 아주 다른 삶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일하는 방식과는 아주 다르게 일을 처리할 수 있으며, 우리가 개인적으로 행복을 느끼지 못한 일에서 행복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를 낳아 기르기로 선택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아이를 갖지 않기로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와는 다른 삶을 선택해 행복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을 마음 깊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사람들이 행복을 키워 나갈 때, 그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들이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해가 되는 일을 하지 않으면서 행복을 느낀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뻐해 줄 만큼 우리는 관대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것이 함께 기뻐함, 즉 무디따의 실천입니다.

(비교하기) 비교나 아만심은 우리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고 불안하게 만들며 좀먹게 하는 일입니다. 남과 비교한다고 해서 평화로움을 맛볼 수 없습니다. 비교의 가능성에는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함으로써 우리 자신을 규정하는 대신, 함께 기뻐함을 실천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자신이 정말로 행복할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행복에서 두려움을 느끼기보다는 타인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뻐해 줄 수 있게 됩니다.

고독 · 상실 등에 무너진 마음
함께 기뻐해야 고칠 수 있어
스스로의 힘으로 진리를 보고
괴로움 소멸시키는 게 큰 축복

(편견)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만 기꺼이 호의를 느끼는 것은 함께 기뻐함을 향상시키는 데 큰 장애가 됩니다. 물론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이라는 분별의 선을 넘어서는 일은 아주 어렵습니다. 함께 기뻐하는 마음은 연민 속에서 편견을 넘어 확장하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에는 엄청난 괴로움이 잠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누구든 나름의 행복을 경험하는 것으로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비하) 다른 사람의 행운을 폄하하는 일은 스스로를 패배자로 만듭니다. 다른 사람의 행복이 없어지기를 바라는 것은 자신의 행복을 없애는 일이 될 뿐입니다.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일지라도 그의 행복을 키워 주는 것은 그대로 우리 자신의 행복을 키우는 일입니다. 행복에는 경계선이 없습니다. 그리고 끝도 없습니다.

(질투) 다른 사람의 성공이나 번영, 행복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인 질투 또한 우리의 고민거리입니다. 질투는 우리가 지닌 조건에 불만이 들게 하고 스스로 비참하게 만듭니다. 질투는 우리를 집어삼킵니다. 질투 때문에 우리는 삶의 중심에 존재하지 못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삶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실제로 혹은 상상 속에서 그들의 행복을 아쉬워할 때, 우리는 균형 감각을 잃게 됩니다.

(탐욕) 탐욕이 일어나면 우리 마음에 평화를 찾아볼 수 없게 됩니다. 끊임없이 주위를 살피고 우리가 가진 것을 감추려고 하며, 그래서 아무도 그것의 이로움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러다가 이로움을 경험하는 누군가를 발견하면 비참해집니다. 타인에 대한 혐오, 물질적이고 추상적인 대상에 대한 집착이 바로 질투와 탐욕의 뿌리입니다.

(지루함) 작은 아름다움이라도 알아차릴 수 있으며 그것에 고마워할 줄 아는 것,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을 잠시라도 바꿀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쉴 수 있게 합니다. 지금 여기에 있다는 것을 기적처럼 여길 수 있다면, 고마움과 기쁨이 마음속에서 함께 자랄 것입니다.

좋은 덕목이 좋은 마음으로

붓다는 〈망갈라경〉에서 우리 자신의 축복을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이 경전은 우리가 그 조건들을 만들기만 하면 누구라도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축복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조건들이란, 바른 삶을 사는 일과 올바른 가정생활을 영위하는 것, 우리가 좋아하고 잘 지킬 수 있는 생활 수단이나 규범을 지니는 것,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아는 것, 인내심을 지니는 일 등입니다.

붓다가 강조한 축복 가운데 하나는 좋은 벗을 사귀는 일입니다. 현명하고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과 사귀는 것은 축복입니다. 우리가 지혜나 평정, 마음집중, 희열 또는 무디따와 같은 좋은 덕목들을 더욱 강하게 하기를 원한다면, 이러한 덕목을 지닌 사람과 함께 지내면서 그러한 덕을 갖출 수 있도록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우리가 다르마(Dharma), 즉 진리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상황에 놓이는 것입니다. 또한 그보다 훨씬 더 큰 축복은 그 다르마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진리를 보고 괴로움을 소멸시키는 것이 가장 최상의 축복입니다. 끊임없이 변하며 모든 즐거움과 슬픔이 계속 요동치는 세상사를 접하면서도 동요하지 않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아주 깊은 축복을 느낍니다. 변하는 조건들 속에서도 변하지 않은 평화를 아는 것, 붓다는 이것을 가장 큰 행복이라고 말했습니다.

누군가 정신의 힘을 키우고 정진하는 길을 가고 있다면 그는 축복의 바다를 건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어느 곳이든 안전하게 간다"라고 붓다는 말했습니다. 그러한 축복과 안전이 가능하다고 깊이 사유하는 일 자체가 행복의 원천입니다. 우리의 축복을 생각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서 감사와 행복을 키우는 일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축복을 느낄 때 우리도 함께 기뻐하며 마음을 열어 놓게 됩니다.

우리가 다른 존재들의 괴로움에 마음을 열어 놓을 때 생기는 연민의 기쁨은, 다른 존재들의 행복에 마음을 열어 놓을 때 생기는 무디따의 기쁨을 보완해 줍니다. 괴로움에 직면해 있을 때 기쁨을 느낄 수 있다는 말이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렇습니다. 연민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더 가까워집니다. 조화와 결합의 힘은 괴로움에 빠져 있는 사람과 가까워지려는 마음속에서 성장하며, 열려 있음과 부드러움, 집중 그리고 축복과 함께 연민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기쁨이나 괴로움에 반응하며 행복을 느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 가지 고귀한 마음가짐(자애 · 연민 · 함께 기뻐함)은 고귀한 하나의 마음으로 결합됩니다. 이 덕목이 주는 밝은 빛 때문에 우리의 인식은 더욱 풍요로워지고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실재하는 행복으로 우리는 더욱 열려 있을 수 있으며, 실재하는 괴로움을 마주보며 열린 마음으로 그 괴로움을 다룰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덕목들은 서로 힘을 공유하고, 빛나는 마음의 힘은 우리 삶을 지탱해 주며, 결국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이 글은 〈행복을 위한 혁명적 기술 자애〉(조계종 출판사 刊)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최신형 대출력 앰프로 보상 교환설치 실시!!

단 160만원 만 준비하시면, 현재의 앰프설비를
300만원대 고급음향 설비로 교체 해 드립니다

※설치 희망일 3~4일 전에 예약 바랍니다. (종래 사용하던 앰프, 스피커는 보상, 회수해 옵니다!)

고출력 파워드 믹싱 앰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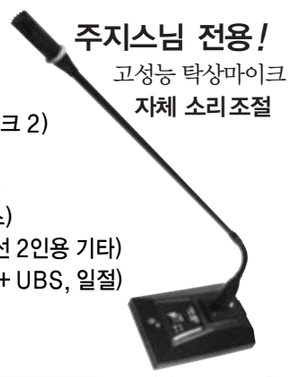


USB탑제 최신형 800 왓트

법당 앰프설치비 가격표

(기본)
A형 : 93만원 (앰프, 스피커, 마이크 2)
B형 : 127만원 (A형 + 무선 1셋)
C형 : 158만원 (B형 + CD 5개용)
D형 : 185만원 (C형 + 믹서 + 케스)
법당 표준형 : 225만원 (D형 + 무선 2인용 기타)
최고급형 일절 : 325만원 (믹싱800 + UBS, 일절)

주지스님 전용!
고성능 탁상마이크
자체 소리조절



가격 : 185,000원

무선마이크



CC 플레이어 (연속 5개 사용)



송금계좌 :
우리은행 (예금주 : 김문화)
1002-610-963886

유코음향연구소
서울시 양천구 신월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소장 김문화
음향연구가, 무선설비기사
010-5335-2695
전화 (02)2697-9976
팩스 (02)2601-8284

바다의 미네랄과 폴리페놀 덩어리 지구상 최고의 항산화 식품...

임해 밥 죽순
식물성 탄백 콩고기

몸속의 오염된 지방을 분해
배출시키는 탁월한 항산화 식품!
전립선 및 다이어트, 성인병 예방에 최고!

❶ 스님들의 단백질 영양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개발된 고단백 식물성 콩고기 식품
❷ 효모와 항산화(폴리페놀)가 함유된 건강 단백질 콩고기
❸ 하루 섭취량 40g (가격 하루 700원대)로 충분한 단백질 영양 섭취
❹ 가격은 1kg 2만원 (25인 분량)
〈사찰에서 다량 구매시 할인하여 드립니다.〉

※ 폴리페놀은 항산화 능력(활성산소 제거)이 6년근 홍삼보다 65배, 블루베리보다 44배

임해 밥 죽순 차(茶)용

• 500g 茶용 (6개월분) 6만원
• 깨끗한물에 씻어 2L기준 20g 정도 넣어 30 ~ 40분 끓인 후 복용하시면 됩니다. 재탕으로 1회 더 복용 가능합니다.

(주)임해 대표전화 1661-4288 / 010-4746-0335
인천광역시 동구 방축로 37번길 30 인천산업유통센타 37동 201호 ㈜임해
기업은행 418-038069-04017 [예금주 : ㈜임해]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을 치세요.



대행 스님

이 한 점의 마음 중심에 부처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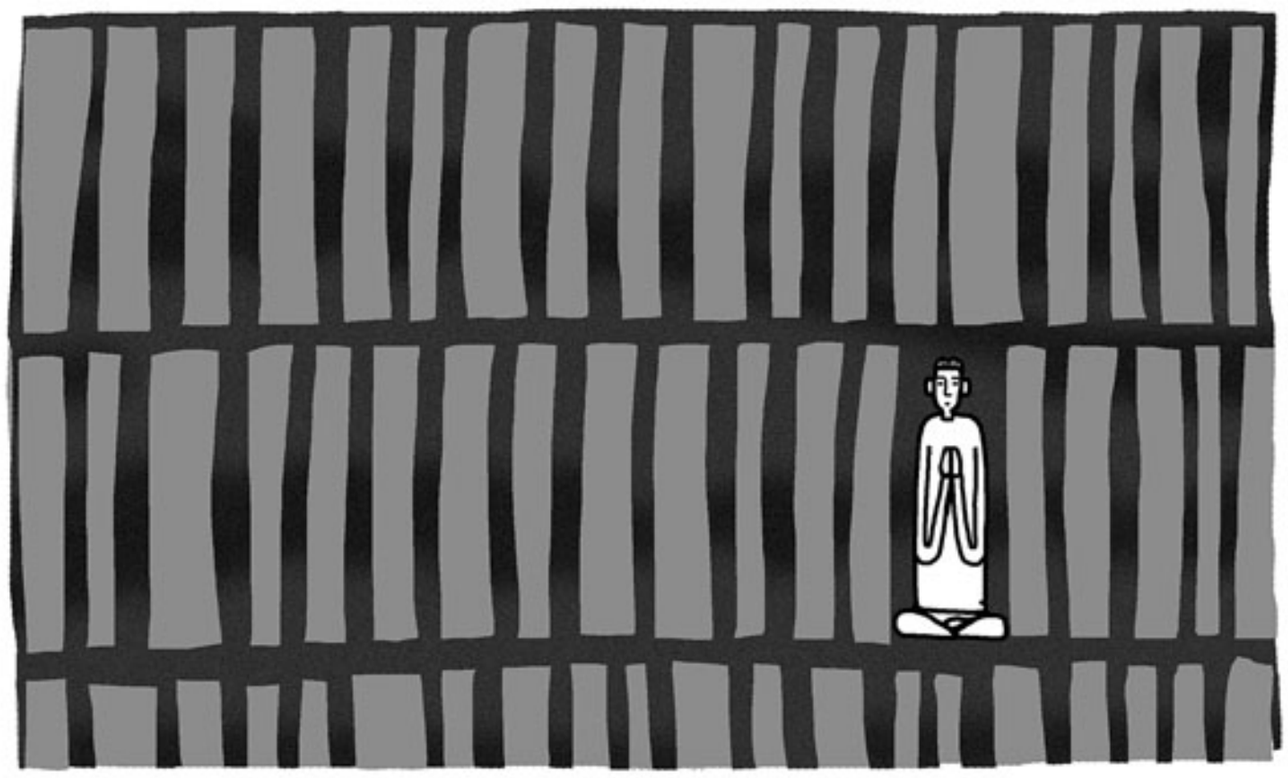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국난을 극복하는 마음 자세

질문 지금의 한반도는 위기 상황입니다. 매일같이 터져 나오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한반도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위기의식이 팽배해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 생각해 보면 오천 년 역사 속에서 위기가 없었던 적은 없었을 것이라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끊임없는 전쟁과 국난을 극복하면서 오천 년을 지켜 온 이 한반도가 전쟁의 공포에서 벗어나서 평화를 유지해 나갈 수 있으려면 어떻게 마음을 내고 공부해 나가야 할지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답변 옛날에 팔만대장경을 만들 때도 몽고에서 쳐들어와서 어떠한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 마지막 손을 한데 모으고 빌었던 것이 바로 팔만대장경입니다. 나라가 살고 국민이 살고, 그때는 백성이라고 그랬지마는 지금은 국민이라고 그러죠. 살기에는 너무도 희박하고 너무나 처참하게 짓밟히는 까닭에 마지막 소원을 빈 것이 바로 팔만대장경입니다.

지금 학생들이 칼을 가지고 나무로 파서 부처님도 만들고 또 다른 것도 만들고 여러 가질 만듭니다. 그런 거와 같이 그런 칼을 가지고 팔만대장경을 하나하나…. 그때 시절하고 지금 시절하고는 판히 다르죠. 그거를 쇠뭉치로 치고 마치로 쳐서 불에다 넣었다가 만들어서 그 하나하나 날카롭게 갈고 그렇게 해서 했던 거죠. 그 수많은 팔만대장경을 목각으로 했으니 사람들이 먹지도 못하고 지친데다가 24시간을 교대로 해 가면서 항상 그거를 파고 앉았는데, 사람이 없어서 그것도 잘 파지 못하고 참 어렵게 그것을 했던 거죠. 그럭하면서도 몽고 사람들이 그것을 하는 사람들을 붙들어다가 가두고 죽이고 또 그것을 옮기지도 못하게 했고, 너무나 치열한 문제가 있었을 때에 그래도 그 팔만대장경을 이루었습니다. 지금은 없다고 하지만 팔만대장경을 할 때에 그 마음과 땀, 그 피가 거기에 한데 합쳐진 거지, 그게 그냥 팔만대장경이 아닙니다. 사람의 피와 땀이 한데 뭉친 겁니다, 그게. 그래서 지금 시쳇말로 한다면 팔만대장경이 전체 우주와 더불어 같이 한마음의 한 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조각 하나하나를 이고서 옮겼을 때에…, 지금은 발전이 돼서 그것을 간편하게 한꺼번에도 가지고 갈 수가 있죠. 또는 한꺼번에 가져가기 이전에 한 테이프에다 넣어서 한 손으로 들고 갈 수도 있게 발전이 된 거죠. 그런데 그때 시절에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환경 속에서 그것을 하다가 사람이 죽으면 죽는 대로, 파다가 죽으면 갖다가 태우고 또 하다 죽으면 갖다가 태우고, 또 대리로 들어서고 대리로 들어서고, 아버지가 하다가 만약에 죽으면 아들이 대리로 들어서고 이렇게 해서 나라를 세우고 백성을 살렸다는 얘깁니다.

그 정성이 얼마만큼 뼈저리게 내 나라와 내 국민을 생각했기에 그렇게 이루어졌겠습니까? 또 그렇게 이루어진 까닭도 역시 그러한 마음으로 지극하게 했기 때문에, 몽고 사람들이 말리고 죽이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공중에서 천둥 벽력을 치면서 그 모든 것을 물리쳐 준 것입니다. 또 그 사람네들이 이고 가던 사람들의 눈을 빼는가 하면 창으로 그냥 배를 갈라서 오장육부를 다 빼서 나뭇가지에다 걸고 모가지를 베어서 걸고 이래도 굴치 않았다는 거. 굴하지 않고 이고 갔다는 겁니다. 그러한 까닭에 그 모든 것을 다 허쳐서 막아 줄 수 있었던 그런 아슬아슬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또 거기에서 몽고 사람들이 굴복한 것도 바로 그런 데서 시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설법하죠? 그 모든 한 부처님의 그 마음이, 전체가 그냥 수만 개의 신장이 돼 가지고 앞에 그냥 전부 닥치니, 그 사람네들의 눈에는 전부 무서운 신장으로 가득 찼으니 뭐, 자기네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이 되니까 자기 혼자서들 모두 자빠지고 둥그러지고…. 그러니까 사람 손이 안 가도 자빠지고 둥그러지고 고함을 치고 이렇게 미치는 거야. 눈에 그냥 막 칼을 대고 덤비니까. 그렇게 해서 길을 비켰다는 얘깁니다. 그만큼 정성이 지극하고 그렇다면 안 될 일이 뭐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려고 한다면 안 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네들만 극복하라는 게 아니에요. 모두 더불어 같이 극복하려면 내 몸속에 있는 생명들도 다 한데 합쳐야 되기 때문에 불성인 주인공에 '너만이 이 어려움을 면하게 할 수 있어.' 하고 거기다 맡기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살아가는 데 닥치는 것이 한두 가지라야죠. 그러니까 너무 골치 아프게 많으면 그냥 마음으로 딱 둥글려서 하나로 묶어서 거기다 그냥 내던져서 태우세요. 거기다 넣어서 태우고 '너만이 해결할 수 있어.' 이렇게요. 닥쳐오는 대로 말이에요. 그러면 국난 극복도 될 수 있겠고 마음으로 그렇게 하면 보이지 않는 데 마음과 마음으로 다 퍼져요. 이건 자동적이에요. 퍼져서 퍼져서 퍼져서 이거는 다, 어느 나라에서 나쁜 일들을 많이 하고 그랬으면 그 나라에는 고난이 좀 더 올 거고, 또 거기서 잘하면 고난이 덜 오고, 더 오고 덜 오고 이렇게 연방 아주 질서 정연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대로라는 얘기죠. 자기가 사는 대로고 자기가 하는 대로, 자기가 한 대로 받는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마음을 그렇게 쓰세요. 꿈을 잘못 꿨다고 '아이고, 이거는 어떡하면 좋은가.' 하지 마시고요. 꿈을 꿨더라도 '너와 내가 둘이 아닌데, 뭐. 둘이 아닌 까닭에 너만이 해결할 수 있어.' 하고 놓으세요. 내 마음이 영이라면, 체가 없다고 한다면, 영을 영에다가 수만 명을 갖다 집어넣어도 영이죠. 개수가 나오지 않죠. 그러니까 해결을 다 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여러 사람들의 해결도 다 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왜냐? 그 마음이 영이니까. 체가 없는 거니까. 체가 없는 데 다 같이 들어가서 활란하니까.

그러니까 이 마음이 자기를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까? 반드시 자기를 지킵니다. 내버리니까 지켜요. 내가 지키려고 애를 쓰니까 안 지켜지지 그냥 '너만이 지킬 수 있어!' 그러고 내버리니까 지키죠. 내가 지키려고 그러면 '어, 네가 지키니까….' 하고 말죠. 옛날에요, 절에는 변소가 저 아래쪽에 멀리 있거든요. 근데 인제 밤에 스님이 변소를 가시다가 돌부리에 차여서 엎어졌거든요. 그래서 "얘!" 하고 호법신을 부른 거예요. "너, 왜 나를 이렇게 엎어지게 만들었느냐?" 하니까 "아이, 가시기 전에 좀 귀띔을 하시죠." 그러더라는 거죠. 넘어지기 전에 말이에요.

여러분도 벌써 감이 잡히지 않습니까. 집안에 무슨 일이 있다든가 나한테 뭐가 닥친다든가 내가 일을 하는 게 뭐 어떻게 된다든가 뭐, 감이 오죠. 그러면 그 감 오는 대로 즉시 조치를 취해야죠. 여기서는 조치를 취하는 생각을 하고 또 실천을 하는 거는 그 안에서 하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대신 살아 주지 않아요. 대신 해 주지 않고요. 부처님이 이 뜻과 진리를 가르쳐 주셨는데 진리와 더불어 가르쳐 주신 삶의 뜻을 정말이지 진짜로 생활에서 그대로 실천하면서 사시면, 부모가 그렇게 진짜로 믿고 그렇게 잘 사니까 자식들도 아주 잘돼요. 그렇게 자기 길을 자기네들이 닦아 나간단 말이에요.

하나가 된다 함은 무슨 뜻인지

질문 일체가 주인공의 나툼이라면 모두가 주인공의 모습일진대 하나가 된다 함은 무슨 뜻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댁의 마음 내는 사람과 마음을 내고 움주거리는 사람이 둘입니까? 하나죠. 하나니깐 그 하나 속에서 자기를 발현해 내려고 앨 쓰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모두들 사는데 자기가 모습이 자기인 줄만 알고 또는 정신계의 보이지도 않고 쥘 수도 없고 가눌 수도 없는 그런 데는 생각질 않거든요. 그 보이지도 않고 쥘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데서 자기를 리드해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와 나와 둘 아니게 이렇게 상봉한다면 서로 이렇게 뜻으로 통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죠.

☞ A18면으로 계속

지수화풍 지장보살

회향선원 주지 스님은 불사를 결심하고 도량에 어떤 부처님을 모실까 의증을 내던중 지장보살님이 현몽을 하셨다. 이후 스님께서는 1,000일 기도를 세번 마치니 다시 지장보살님께서 나투시어 "천일기도 3번이 끝나면 만불자에게 나를 내놓아라. 병고액난자가 내손을 잡고 기도를 하면 그 원을 들어주리라. 내가 지수화풍 지장보살 이니라"라고 말씀하셨다.

병고 액난에 시달리시는 분들은 회향선원에 오셔서 지수화풍 지장보살님을 친견하시고 기도하시어 원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회향선원 주지 혜명성일 합장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새재길 190번길 31-15(봉현리 산 44-1)

010-3771-7575



피부·치아건강제

불 보살님의 기도, 가피, 지혜 원력으로
건강하시기를 기원하며, 회향공덕하는 마음으로
불자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국내산 자연식용재로 준비하였습니다.

스님, 불자님, 충치, 풍치, 시린이, 치주염, 치석, 잇몸출혈, 흔들리는이, 입냄새, 담배냄새, 혀백태, 입안건조, 임플란트 틀니 하시고 잇몸 아프신 분, 탈모, 비듬, 얼굴 기미, 손발톱 무좀, 각질, 습진, 전신잡티, 낭습진, 피부아토피, 알레르기, 벌레, 풀독, 모기 물리고 머리염색 후 가려움증, 상처, 비염, 화상(즉시 여러번 사용 물집안생김), 백반증, 노화성피부건조 등 피부 치아가 건강치 못한 분들 연락주시면 3개월 사용분을 보시합니다.

문의 및 보시처 안산 법흥사 개운 합장
010-6332-6070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인증 승려연수과정

수행에서 전법으로, 달라지는 승가교육

불교 가치를 담은 인성교육, 한나무인성교육 '꽃을 피우는 나무'

문화체육관광부 지원, 포교원 주최, '청소년마음등불사업' 참여 프로그램 메뉴얼로 연수 진행
참여 프로그램의 핵심 메뉴얼과 운영방법, 진행방식 등을 중심으로 연수과정 구성

■일 정 : 2017년 11월 9일(목) ~ 11일(토), 2박 3일(숙박형)
■장 소 : 한국문화연수원(충남 공주 소재)
■정 원 : 30명
■교 육 비 : 20만원, (재)한마음선원과학원, 국민은행 292-01-0033-316
■마 감 : 2017년 11월 2일(목)
■문의/신청 : 031-470-3196, 3200 (매주 화~토요일, 오전10시~오후5시)

교육과정 확인 및 신청은 다음 QR코드를 스캔하세요.



저 나무가 자기 뿌리 믿고 살듯이 그냥 진실히 그렇게 해야

☞ A17면에서 계속

그래서 언젠가 내가 이런 말을 했죠. 길을 가는데 '이 길은 길이 아니니라.' 그래서 '어떤 게 길입니까?' 하니 아주 천야만야한 산중을 길이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때에 너무 몰랐으니까, 몰랐으니깐 모르면 모르는 대로 그냥 듣고 믿고 그걸 길이라고 한다고 갔습니다. 믿고 가질 않았으면 그것도 길이 아니라는 거를 몰랐죠. 그럴 텐데 갔기 때문에 길이 아니라는 걸 알았고 길이 따로 없다는 걸 알았고 이 허공도 아닌 허공을, 즉 말하자면 속도가 빠르게 그, 다닐 수가 있다는 사실도 몰랐고….

그러니깐 자기 마음속에서 나오는 그 말을 듣고 행하는 내가 시자인 것입니다. 심부름꾼이에요. 그 자기 심부름꾼을 진짜로 공부 가르쳐서 자기를 만들기 위해서, 자기가 자기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런데 그걸 모르고 자꾸 비난을 하게 되죠. '아이그, 뭐 그까짓 것….' 이렇게 이렇게, 그렇게 되면 둘이 아니가 될 수가 없죠. 항상 둘이 되죠. 그러니깐 문제는 그런 데서는 '이 세상을 다 한데 합쳐도 하나로 구성된다. 하나로 돌아간다. 나중엔 그 하나도 없다.' 이게 나오질 않죠.

그래 지금 모두 일들이 많이들 벌어지는 게 이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라고 그런다면 그냥 그냥 속세에서, 지금 물질세계에서 정신세계를 몰라라 하기 때문에, 같이 이어지질 않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지고 길을 제대로 걷게 되질 못하죠.

이 지금, 전 세계에 지진이 일어난다 하는 것도 그렇고, 모두 사람들이 곤경에 빠지고 아픈 일들이 많이 생기고 그런다 해도, 이걸 병원에 가지 않는 게 옳으냐, 병원에 가는 게 옳으냐, 이거를 문제를 삼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병원에 안 가도 괜찮다 하고 병원에 안 가는 분들은 오직 그 주장자가 완벽하게 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서지 않은 분들은 서지 않은 대로, 병원에 가고 병원에 안 가고 그걸 떠나서 진실히 저 나무가 자기 뿌리 믿고 살듯이 그냥 진실히 그렇게 해야만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둘 아닌 도리를 실천하려면

질문 물질세계는 번연히 나와 남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어떻게 둘 아니게 실천해 나갈 수 있을는지요. 내가 한다는 생각 없이, 내가 산다는 생각 없이 무심으로 생활 속에서 진실하게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가르침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 주고받고 삽니다. 더불어 살지 혼자 사는 사람 없어요. 옷도 더불어 같이 주고받고 입었고 먹는 것도 주고받고 먹고 모두가, 일체가 다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둘 아니게 실천을 하느냐 이 문제입니다. 어떻게 둘 아니라고 하느냐. 분명히 줬고 분명히 받았는데 어째 둘이 아니라고 하느냐 이러겠죠.

그런데 내가 전깃줄 얘기를 가끔 하죠. 전기, 전력이 들어왔을 때는 이게 불이 들어옵니다. 전력이 끊어졌다 이럴 때는 전기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양면의 전깃줄을 갖다가 이렇게 이어야 전기가 들어옵니다. 그렇듯이 이거를 주고받을 때, 이걸 주고 이걸 받을 때 이 한 순간은 같이 이 마음이, 즉 말하자면 정신계가 둘 아니게 이어진단 얘깁니다. 이어지니깐 찰나에 주고받은 예가 없단 얘기죠. 찰나에 주고받은 예가 없다. 그리고 함이 없이 살고 있다. 삶이 없이 살고 있다.

왜냐하면, 방편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까요? 그전에 말했듯이. 며슴을 산다면 자기네 집이 아니죠. 자기네 집이 아니니까 자기네 맘대로 할 수가 없죠, 며슴은. 주인이 맘대로 하죠. 그래서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할 뿐이지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렇듯이 이 주인이 이렇게 시키면 시키는 대로 내가 듣는데 듣는 순간, 주는 순간, 말을 하는 순간에 하나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 대신 내가 하는 거죠. 그러니깐 항상 그 한 찰나 찰나마다 이게 따로따로가 아니라 함이 없이 하게 된단 얘기죠. 그래서 자기 속에서 한생각이 나서 '이걸 해야겠다' 이러고 하는데도 함이 없이 하게 되고요, 남이 주는 거를 받았다 하더라도 받은 사이가 없고 그 상대방도 준 사이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거 이해가 가시는지 모르겠지만 이해가 모두 가셔야 될 겁니다, 아마.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가는 데 '이게 둘이 아니다' 라는 실천을 해야 할 텐데 둘이 아니라는 것을 말로만 알고 있지 실천을 할 수가 없단 얘기죠. '항상 둘이 아니라고 그러시는데 이게 어째서 둘이 아닌가. 저쪽에서 나를 줬고 내가 저쪽에서 받았는데 어떻게 둘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한순간 전깃줄에 닿는 거와 같단 얘기죠. 이 마음이라는 건 그렇게 빨라요, 속도가.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속도가 빨라서 한생각에 그냥 그저 갖다 놓고 '고맙다, 고맙지 않다' 하더라도 그렇고 하나로 그냥 이어지기 때문에 고맙단 말 없이 그냥 고맙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하시게 되면 말을 하시고 그냥 가셔도 되는데 꼭 말을 들으려고 그러거든요, 뒷말을. 뒷말을 들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스님네들도 '자기 몸은 시자로 쓰고 자기 정신은 부처로 쓴다' 이런 말이 있죠. 그래서 항상 스스로서 '둘 아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을 실천을 하시는 데에 그게 묘미가 있다. 어떻게 그러면 생각을 하고 실천을 하느냐. 생각을 하지 않아도 본래 잠재해 있다면 그냥 해도 그게 둘 아닌 줄 알게 되는 거죠. 모르고 우리가 그냥 주고받고 이렇게 해도 그게 둘 아니게 그냥 실천이 됐다는 얘기죠.

모두 내 몸뚱이 네 몸뚱이를 가지고 이렇게 둘 아니게 실천이 되게끔 된다면 일일이 생각을 안 해도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뿌리가 뭐, 떨어졌다가 붙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 항상 자기 뿌리는 자기 뿌리가 가지고 있죠. 자기가 있는 데에 자기 뿌리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상대방이 나를 줘도 상대방 그 사람도 자기 뿌리를 가지고 있고요, 나도 내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한순간에 그 뿌리와 뿌리가 한데 합쳐져 버려요. 합치게 돼 있어요. 이 텔레비전을 끄면 안 나오죠. 켜면 나오죠. 그렇게 자유자재해라 이 소립니다. 우리가 그냥 이렇게 하게 되면 벌써 둘이 아니게끔 된다 이 소리죠.

처음에는 서툴지만 그게 둘이 아니가 되기 때문에 서툴러도 하다 보면은 물리가 터지게 되고 자꾸자꾸 늘어나가게 되죠. 이렇게 되면 생각 자체 하는 것도 요이하게 되고 생각하는 것도 유유하게 그냥 자연적으로 그냥 생각이 들고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악한 거나 선한 거나 둘로 보지 마라." 이랬죠. 그거는 이 모두를 합류화시키는 데 있는 겁니다. "이 몸뚱이도 나 하나로만 보지 마라. 수천, 수천 개가 이 몸속에 살아 있다. 그것이 바로 내 모습이자 내 생명들이다. 그러니깐 너 하나만의 모습을 보고선 너라고 그러지 마라." 이랬죠.

그런데 이게 말로는 할 수가 없는 말이죠. 둘 아닌 도리를 어떻게 실천을 하느냐 하는 그 얘기는 내가 할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대로 마음 놓고 생각 없이 그냥 "아, 이것 좀 먹어 보오." 이러고 줬는데, 그냥 줬는데도 그냥 둘 아닌 줄 알아라 이거죠. 그걸 생각을 일일이 해서가 아니라. 둘 아닌 줄 알고 이렇게 줬어도 그렇고 받았어도 둘 아닌 줄 알게 되면은 이 받은 것이 저절로 일로, 이 대가가 일로 가요. 가는 줄 모르게 가고 오는 줄 모르게 온단 말입니다.

끊임없이 다 줘야만 하는지요

질문 저는 소도시 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불자입니다. 그런데 일주일이면 서너 번 구걸을 하러 오는 분들을 맞게 됩니다. 불자이기에, 더욱이 내가 없는 공부를 하기에 그때마다 고민이 됩니다. 제가 그래도 여건이 될 때마다 형편 되는 대로 드리는 편인데 주위에서는 오히려 저의 섣부른 동정이 그 사람들을 의존하는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한다는 충고를 듣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나와 남이 함께 벗어날 수 있을는지요.

답변 여러분은 고귀한 생명과 삶을 헛되이 보내지 마십시오. 우리가 살아나가는 데에 마음을 착잡하게 또는 어둡게 두지 마십시오. 영원한 것입니다. 모습만 바뀔 뿐이지, 우리의 이 삶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히 남한테 얻으러 다니지 않고, 영원히 담 밑에 돌아가면서 눈물을 흘리고 남한테 짓밟히고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올바로 진실하게, 남에게 주더라도 무주상보시로 주어야, 내가 상(相)을 두지 않고 주어야 상을 두지 않는 그 물건이 바로 나한테 다 있는 것입니다. 그건 왜냐하면 그것도 한 통장에 있기 때문에.

어느 분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여기서 설법을 한 서너 번 들었답니다. 근데 부모가 일찍 돌아가시고 맏이로서 동생 일곱을 다 키웠답니다. 밥장사를 하고 물장사를 해서 키웠답니다. 그랬는데 키워 놓은 동생들은 언니가 동생들을 공부시키느라고 그렇게 고생하면서 공부도 못 하고 자기네들을 공부시킨 걸 모르고, 그 나오는 것이 핏방울인 줄 모르고 아무렇게나 자기들은 구경 다닐 것 다 다니고 없으면 손 벌렸답니다.

그래서 동생들은 부모만 그리웠지 자기처럼 고생하지 않으면서 잘 공부해서 맞이 맞이 만나서 잘 사는데도 조금만 부족하면 와서 막 압박을 하고, 언니는 그렇게 벌어서 쓰면서 왜 주지 않느냐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올바로 그 뜻을 알고 나간다면 줬을 텐데, 그럼 좋겠는데….' 하고 아주 괴로워했답니다. 그랬는데 내 설법을 듣고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얘, 쟤가 쓰는 것이 바로 부처가 쓰는 거고,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면 저 애가 바로 나이기 때문에 내가 쓰는 거니까 그냥 내가 써 보자.' 하고서 자기도 없는 걸, 장사를 하기 때문에 빚을 져 가면서 사는데도 '에라, 이것도 시주다.' 하고선 집어 줬더랍니다. 주니까는 그렇게 마음이 편안하더랍니다. 그렇게 마음이 편안하다 보니까 그저 조그마한 거라도 또 뭐가 팔려서 그걸 메워 나갔답니다.

그랬다고 하면서 "너무도 고맙습니다. 내 마음을 이렇게 넓게, 부드럽게 사랑할 수 있고 둘로 보지 않게 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날까지 그 불쌍한 동생들을 키워 왔건만 오늘날에 보니까 내 동생이 언제 적의 내 동생도 아니고 내 동생 아닌 것도 아니고 모두가, 남들이 남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쓸 때 쓰는 것이지 그렇게도 내가 안 써야만 하겠다고 할 필요도 없고, 그 애 잘못된 거를 아니, 내가 타이른다고 되는 것도 아니건만 왜 그렇게 내 속을 썩여 가면서 쌈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인제 쌈 안 하렵니다." 그러면서 고마워하더군요. 그러니 여러분이 남에게 주어서 쓰는 것도 자기가 쓰는 겁니다.

그러나 공자, 노자가 말씀하셨듯이 "얻으러 온 사람도 주지 않을 사람은 주지 않아야 되느니라." 했습니다. 그건 나도 똑같이 말합니다. 왜 그러냐? 그 뜻을 모르고, 고마운 줄을 모르고 그렇게 함부로 하는 사람 앞에는, 남한테 기대기만 하는 사람, 이런 사람한테는 천만 냥을 보태 주어도 그건 온 데 간 데가 없고, 오히려 반성하는 기간이 늦어져만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지 않는 것도 덕이 되고 공덕이 되고, 주는 것도 공덕이 되고 이러는데, 모든 게 공덕이 된다 하는 것은…, 우리가 이 한 점의 마음, 여기 바로 중심에 부처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일체 우리가, 만법의 만 부처가, 그리고 만 생활이 다 이 한 점의 마음에 들어 있기 때문에, 모든 게 나고 들고 하는 것이 이 한 점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그렇게 살펴서, 오관을 살펴서 오관으로써 모든 걸 해 나가는데 정밀하게 해 나갈 수 있는 건 내 한 점의 마음을 알아야 그렇게 정밀하게 해 나갈 수 있는 거지만, 깨닫지 못했다 할지라도 올바로 진실을 안다면 그게 바로 깨달음의 길입니다.

우리가 진실치 못하고 거짓으로만 나가고 또 나의 어떠한 이름만 가지고서 위대한 어떤 직위만 탐을 낸다면 그것은 바로 나 자체를 모르고 이름만 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상(假想)스러운 인생살이는 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나부터 진실하고 나부터 알아야 모든 살림살이가 아마 적당하고 소소영영하게 나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 이 마음이 자기를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까?
> 반드시 자기를 지킵니다. 내버리니까 지켜요.
> 내가 지키려고 애를 쓰니까 안 지켜지지, 그냥 내버리니까 지키죠.



| 불자 세상보기 |

인터넷 시대의 새로운 口業



선업 스님
통담아카데미아 원장

뜨거웠던 '204번 버스' 게시글
살펴보니 기사 잘못은 없었다
게시자가 양념쳐서 글 게재해

'바르지 않은 사유'로 생긴 일
욕망·화·폭력 연쇄 고리 만들어
현상 좇으며 구업 적립할텐가

"사랑스런 말로 섭수해야 한다"
선플과 정플로 세상을 정화하자

요즘 인터넷 게시글과 댓글로 인해 생긴 부정적 파장으로 세상이 시끄럽다. 인터넷 게시글과 댓글을 구업(口業)의 한 형태로 본다면 결국 신종 구업이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204번 버스 논란이다.

한 아이의 어머니가 잠시 딴청을 피는 동안 아이가 버스에서 혼자 내린 일에 대해 한 네티즌이 버스 기사가 어머니가 울며 이야기하는 데도 그냥 버스를 출발시켰다고 글을 올려서 문제가 확산되었고, 이 글에 네티즌들이 공분하여 버스 기사는 졸지에 죽일 놈이 된 경우이다.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 버스 기사는 적절한 조치를 했고, 문제는 게시글을 올린 사람이 자신이 보고 느낀 바에 양념을 조금 더 첨부해서 글을 올리다 보니 사실과 다른 상황이 연출되어버린 것이다.

부처님은 이런 경우를 '바르지 않은 사유'로 생긴 일이라고 진단한다. '바르지 않은 사유'는 마음에 좋지 않은 새 세 마리가 차례로 날아드는 것으로 비유된다. 그 새들로 인해 좋지 않은 언어가 자동으로 준동하게 된다는 것이다.

첫 번째 새의 이름은 '감각적 욕망'이다. 문제의 게시글을 올린 이는 "이렇게 보태어 이야기하면 훨씬 자극적이고, 사람들의 흥미를 불러일으킬 거야"라는 사욕에 사로잡혀 사실보다는 보고 싶은 대로 본 욕망의 새를 마음에 불러들인 것이다.

두 번째 새의 이름은 '화냄'이다. 공분이란 '대중들이 다 같이 느끼는 분개'를 뜻하기도 하고 '공적인 일에 대하여 느끼는 분개'를 뜻하기도 하는데,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이야기에 사로 잡혀 '성냄'의 새를 마음에 불러 일으켜 단체로 눈이 멀어버렸다.

특히 보호받아야 할 아이와 그 보호자인 엄마라는 대목에서 대중들은 '지금의 분노는 의로운 분노'라는 인식 오류가 낳은 감정적 함정에 빠지고 만 것이다. 대중의 선의가 눈먼 쥐를 따라간 꼴이 된 것이다.

세 번째 새의 이름은 '해코지'이다. 분노한 대중들 중 일부는 204번 해당 기사를 해임해달라고 청와대 홈피에 민원까지 넣었다. 화를 넘어 상대에 위해를 가하는 '해코지'의 단계로 넘어간 것이다. 상상을 가미한 꾸민 이야기가 문제적 사유의 끝판왕격인 '사람을 해치는 폭력 유발의 새'를 마음에 불러들인 것이다.

이 세 단계를 거치는 사이에 구업을 구성하는 동반자들이 등장한다. 도리에 어긋나며 교묘하게 꾸며대는 말인 기어는 문제적 게시글을 올린 이가 처음에 사용한 것이다. 이어서 대중들은 독한 악담을 담아 댓글로 도배하기 시작한다. 뒤이어 진실과는 거리가 먼 망령된 망어들이 세상을 덮어 사회는 구업의 천라지망이 되고 피해자의 상처는 가중된다.

문제는 위의 경우는 단지 한 예에 지나지 않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는데 있다. 진실을 보지 못하고 현상만을 보며 구업에 휘둘리고 있는 경우가 너무 흔하다.

부처님은 이런 경우의 대비책으로 〈핫타까 알라바까와 섭수의 경(A8.24)〉을 통해 "이 사람은 사랑스런 말로 섭수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감각적 욕망과 화냄과 해코지가 없는 바른 사유에 기반한 나눔 정신이 제대로 된 말과 행동의 동인(動因)이 된다는 것이다. 또한 무재칠시 가운데 사랑의 말, 칭찬의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양보의 말, 부드러운 말 등을 의미하는 언시(言施)를 언급함으로써 말로써 베풀고 살아야 공동체가 평화롭게 살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지금부터라도 새로운 구업의 시대를 정화할 바른 글쓰기와 좋은 댓글인 '선플' 달기와 바른 댓글인 '정플' 달기로 혼탁한 세상의 흐름을 바꾸어야 한다. 그래야 또 다른 구업 희생자의 출현을 막을 수 있다.

社說

청렴·투명 선거가 필요하다

조계종이 제35대 총무원장 선거 체제에 돌입했다. 9월 20일 후보 등록을 마감한 결과 이번 선거에는 설정·수불·혜총·원학 스님(기호 순) 4명이 출마했다.

후보 스님들의 면면을 본다면 누구 하나 빠지지 않는다. 설정 스님은 덕숭총림 수덕사를 이끌고 있는 수좌이면서 종회의장과 수덕사 주지를 역임하는 등 행정능력도 갖췄다. 수불 스님은 안국선원을 세우고 간화선 전파와 도심 포교에 힘을 쏟았다. 포교원장을 지낸 혜총 스님은 인망이 두터워 사부대중의 신뢰를 받고 있다. 원학 스님은 한국을 대표하는 남종화가면서도 종단 주요 소임을 맡았다.

이·사판을 두루 거친 쟁쟁한 스님들의 종책 선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쉽지는 않아 보인다. 벌써 여러 논란으로 인해 상호 후보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이 열리고 성명서들이 발표됐다.

한국불교는 현재 위기다. 불자는 300만 명이 감소해 1천만 불자의 시대는 끝났다. 출가자는 현격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한 해 200명 출가도 어렵다. 사회의 탈종교화는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를 틈타 명상 수련을 내세운 대체 종교들이 사람들에게 파고들고 있다.

더 이상 '프레임'을 놓고 정쟁을 할 때가 아니다. 불교 발전을 위한 대안과 종책을 가진 후보들이 경쟁해 대중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 소모적인 감정 싸움과 비방은 선거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

또한, 더 이상 금권선거가 있어서는 안 된다. 한국불교는 백척간두에 서 있다. 조금만 실수하면 대중들의 외면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이번 선거를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조계종 사노위 5주년에 부쳐

오체투지(五體投地)는 무릎을 꿇고 팔을 땅에 댄 다음 머리가 땅에 닿도록 절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장 낮은 자세로 이땅의 모든 생명에 경외심을,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한다.

사회 어려운 이웃들의 아픔을 보듬기 위해 거리에서 오체투지 해 온 스님들이 있다. 행위로서의 오체투지 뿐만이 아닌 승려라는 일종의 권위까지 투지한 스님들, 바로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스님들이다.

2012년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의 하소연을 들은 스님들이 좌복을 박차고 나섰다. 모든 아픔이 있는 낮은 곳으로 향하겠다며 출범한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5주년은 스님들이 진정한 불제자로 거듭난 5년 이었다.

2012년 스님 5명이 작은 책상에서 시작한 사회노동위는 그동안 부처님 가르침을 담은 메시지를 세상에 던져왔다. 쌍용차 희생자를 비롯해 해고노동자, 청소노동자, 세월호 희생자 등 사회 아픔이 있는 곳이 이들의 법당이고, 사찰이었다. 마치 자신의 몸을 던지는 오체투지와 같이 스님이라는 편견까지 깨부수고 피켓을 들고, 때로는 몸싸움도 마다하지 않으며 사회활동에 나섰다.

자본주의 사회는 필연적으로 힘있는 자와 없는 자, 혜택을 누리는 자와 차별받는 자가 나올 수 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의 사회적 약자를 보살피는 것이 바로 불교의 존재 이유이며, 부처님께서 전하신 가르침의 현대적 발현이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5주년은 불교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는 또 다른 시작일 것이다. 사회노동위의 활동은 이제부터다. 노동권 뿐만 아니라 인권, 성차별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차별에 나설 것이다. 차별과 편견으로 생성된 사회갈등이 사라지고, 모두가 화합하며 평등한 그날이 올 때까지 활발발한 활동이 이어지길 기대한다.



기자칼럼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아쉬움 남은 가야불교문화축제

사)가야불교문화진흥원은 출범과 함께 '제1회 가야불교문화축제'를 9월 14일 개최했다. '가야사 복원 사업'이 새 정부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된 상황에서 김해 옛 가야 지역 스님들이 직접 나선 행사라 개최 전부터 관심이 높았다.

하지만 막상 행사가 시작되자 대중의 관심에 비해 "기획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가야불교를 널리 홍포하겠다는 것이 취지였지만 정작 '이 행사가 가야불교와 무슨 상관인가'라는 평가다. 일부에서는 '딴따라 문화'를 불교 행사로 포장했다는 말도 나온다.

프로그램은 '김해 출신 홍도야 우지마라 김영춘 가요제' '고무신 멀리 날리기 및 많이 받기' '108번뇌 마음깨기(사기접시 깨기)' '외국인 우리말 청소년·주부·가족·실버 노래자랑' 등이 마련됐다. 가야불교를 나타내기에는 역부족인 내용이다.

이뿐 만이 아니다. 행사장에서는 불법 부스 설치 문제로 몇몇 상인들의 부스가 강제철거를 당하는 일도 있었다.

12일부터 상인들은 대성동 고분 주변에 부스 설치를 준비했다. 그런데 이튿날인 13일, 김해시는 인력 100여명을 동원해 부스 70개를 철거했다. 고분군이 문화재 보호구역이라 애초 40개 설치만 허가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그런데 상인들은 "주최 측에 정식으로 허가 받아 설치했고, 대가로 설치비도 냈는데 왜 철거하느냐"며 강력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상인들과 몸싸움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는 김해시와 주최 측간 소통 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부스 초과 설치가 초래된 이유에 대해서도 각각 의견이 달라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축제준비위 조유식 (사)행복나눔1%나눔재단 이사장은 "행사 소식을 미리 안 전문 사기꾼들이 공문서를 위조하고 상인을 모집했다"며 "형사 고발로 법적대응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상인에게 부스 신청을 받은 방인수 씨는 "행사 기획 전 부터 조유식 대표와 부스 설치와 관련해 의논하고 이야기를 나눴다. 그러나 부스 설치가 40개 밖에 안 된다는 말을 (김해시로부터)행사 바로 직전 13일 날 들었다. 큰 피해를 입었다"며 고소할 것이라고 대치 중이다. (사)가야불교문화진흥원 이사장 인해 스님은 "그렇게 많은 부스가 설치될 것은 전혀 몰랐다"고 했다.

김해시 문화재관리과 관계자는 "법질서를 위해 집행했다. 현상변경허가신청서(문화재 구역 용도변경 사용 허가서)에 맞게 행사가 치러져야 한다"고 밝혔다.

각각의 첨예한 입장 대립으로 강제 철거 문제는 법적 공방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성동 고분군은 국가 사적 제341호로 지정된 문화재임에도 불구, 행사장에서 통돼지 바비큐가 먹거리로 판매되는 일도 발생해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

불교 문화 영역은 불자를 넘어 일반인을 대상으로 보여주는 불교의 얼굴이다. 문화로 불교는 이미지화되어 기억에 남는다. 부정적인 이미지는 곧 포교와 연결되고, 불자인구 감소에 영향을 끼친다. 불교 문화 행사를 열 때는 불교를 대표한다는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또 부처님께 공양을 올린다는 지극한 마음으로 철저히 검증해야할 것이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혜원 편집인 : 혜도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부산지사 : (051)405-9402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전북지사 : (063)910-8977 영주지국 : (054)634-3429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禪農敎團 우리불교 曹溪宗

종정 홍산 현불

종도모집

◦ 총본산 : 충남 부여군 세도북로 149번길 32번지 마강사
◦ 총무원 : TEL 041)832-4153 / FAX 041)833-4154

세계불교종단연합회(WBOA)
불교 국가간 문화 교류를 통한 힐링 불교의 재 탄생으로
더 큰 불교 세계를 이루고자 종단 참여를 공고합니다.
문의 041)832-4153 / H·P 010-6478-1569
응화세존 3천 4십 3년 음 10월 1일
WBOA 총재 영공 도성 (부산 태종사)
회장 홍산 현불 (우리불교조계종 종정)



입종안내

1) 입종 구비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뒤 사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 승려증 (법사증·포교사)
◇ 사찰 등록증
◇ 주지 임명장
◇ 추대장 및 위촉장(간부스님에 한함)

(宗)선농교단 우리불교 조계종에서는 도제양성과 포교에 함께 할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화엄사상 및 진귀 수인(手印) 수행법 강좌

강좌안내

■ 3개월 과정 (총 10회 강좌/매주 일요일 오후 2시)

- 개 강 일: 2017년 12월 3일 일요일 오후 2시
- 종 강 일 : 2018년 2월 25일 일요일 오후 2시
- 강 사 : 진귀장자
- 장 소 : 깨달음산문 (대구시 소재)
- 수 강 생 : 33명 선착순 접수
- 수 강 료 : 별도문의
- 신청접수 : 1899-9532

※산문강의실이 좁은 관계로 많은 분들을 모시지 못하고 33분만 모십니다.

▣ 수인수행법 무료 공개강좌 안내

공개강좌 일시 : 10월 22일 일요일 오후2시
11월 19일 일요일 오후2시

▶이후 12월부터는 신청자에 한해 3개월 유료강좌로 변경됩니다



깨달음산문 화엄세계회

NAVER 깨달음산문 검색

세상의 마지막 목욕… 生死 경계를 이어내다



테마人 유재철 연화회 대표

우리는 누구나 죽음을 맞는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왕이든 거지든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죽음은 찾아온다. 그래서 인류는 죽음을 맞이하는 의식을 발전시켜왔다.

죽음에 맞이하는 의식인 장례에서 염습(殮襲)은 가장 기본이 되는 과정이다. 습(襲)이란 시신을 목욕시키고 일체의 의복을 입히는 것을 의미하며, 소렴은 시신을 옷과 홑이불로 싸서 묶는 것이며, 대렴은 시신을 아주 묶어서 관에 넣는 것을 말한다. 습과 렴을 총칭하여 '염습'이라고 부른다.

세상의 마지막 이뤄지는 목욕인 '염습'은 생과 사를 이어주는 마지막 행위다. 그리고 이런 염습을 총괄하는 사람을 우리는 '염장이'라 부른다.

'염장이'라는 말이 대중화된 데에는 불교상장례를 전문으로 하는 유재철 연화회 대표의 역할이 컸다. 그도 그럴 것이 유 대표는 2006년 최규하 대통령 국민장, 2009년 노무현 대통령 국민장, 2009년 김대중 대통령 국장, 2015년 김영삼 대통령 국가장을 진행했다. 총 4명의 대통령이 그의 손을 거쳐 묘지에 안장됐다. 그래서 그를 사람들은 '대통령 염장이'라 부른다.

또한 서경보 스님을 비롯해 광덕 스님. 정대 스님, 법정 스님, 대행 선사 등의 다비를 봉행했고, 이맹희 CJ 명예회장 그룹장 등도 주관했다. 사회와 불교계의 주요 인사들의 장례를 담당한 유 대표는 단연 한국 최고 염습 장인이다.

실패 끝에 찾아온 직업 '염장이'

지금은 장례 관련 학과가 생기고, 장례지도사라는 국가공인자격이 있지만, 예전에 염장이는 쉽게 접할 수 있는 직업이 아니었다. 그래서 유 대표에게 물은 첫 질문도 "염습을 직업으로 삼게 된 이유"였다. 그러자 유 대표는 웃으며 "뭐 별거 있겠습니까? 밥 먹고 살기 위해 배웠죠"라고 답했다.

이른 시기 사업에 뛰어든 유 대표는 크게 실패를 맛봤다. 벌여놓은 사업이 모두 실패하고 100일 정도를 누워 지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중앙승가대학교의 전신이 있었던 개운사에 기도하러 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당시 어머니는 집 계단서 다쳐 다리가 불편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아들을 위해 기도하러 사찰에 간 것이다.

이야기를 들은 유 대표는 어머니를 뵈러 사찰로 갔다. 밝은 대낮 어머니와 스님이 기도 소리가 유 대표의 마음을 울렸다. 특히 '신묘장구대다라니'가 가슴에 들어왔다. 집에 와 '신묘장구대다라니'만을 따로 녹음해 보름 정도 반복해 들었다. 그리고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그가 염습을 만난 것은 1994년이다. 대한불교청년회 회원이었던 그는 그해 광주에서 열린 여름 불교청년대회에 참여했고, 능인회 회원들과 만났다. 당시 회원 2명이 장의사를 개업했는데 꽤 운영이 잘 됐다. 유 대표는 그들을 보고 '장례를 배워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 길로 염장이의 길을 걷게 된다.

장의업에 대한 거부감이 없던 것은 가풍의 영향도 많았다. 경기도 광주에서 400년간 한마을에 살았던 유 대표의 가족은 상장례를 스스로 해결했다. 유 대표도 어릴 적부터 아버지를 따라 집안 어른들의 상제례에 함께 참여했다. 실제 유 대표는 중요무형문화재 111호 사직대제 이수자이기도 하다.

"장례를 배우자고 결심하고 전국을 돌면서 전통장례 장인을 통해 장례예법을 배웠어요. 30대 젊은이가 장례를 배우겠다니 장인들도 기특하게 생각하고 마음을 내주셨습니다."

장례에 대한 배움은 배울수록 커졌다. 유 대표는 동국대에 석사 과정인 장례문화학과 개설을 요청해 수학했고,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에서 '한국의 국가장' 논문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미국의 장의대학으로 연수를 가서 '시신약품처리보존기법(Embalming)'도 배웠다. 이런 배움들은 그를 '대통령 염장이'로 만든 원동력이 됐다.

스님들에게 혼나며 배우다

1994년 조계사 앞에 불교장의서비스 회사 연화회를 창업한 유 대표는 이후 주요 스님들의 다비도 맡아왔다.

첫 시작은 1996년 일붕 서경보 스님의 다비였다. 하지만 쉽지 않았다. 스님들에게 전해지던 다비 의식을 재가자가 여법하게 진행하긴 어려웠다.

"서경보 스님의 장례를 진행하는 데 문중의 여러 스님들이 와서 혼을 내셨어요. 그 스님들은 어릴 적 장례를 해본 경험이 있는데 직접 할 힘은 없는 분들이셨습니다. 일반 장의사에게 배운 것으로 불교 장례를 하니 스님들의 눈에 찰 리가 없었죠. 실제 불교 장례는 일반 장례와는 많이 달랐어요. 그래서 그 다른 점들을 스님들에게 혼나면서 일일이 메모하며 공부했죠. 6년간 공부를 하고 매뉴얼로 정리했습니다. 업무 분담까지 세세하게 기록했죠. 정리한 매뉴얼로 진행했더니 스님들에게 더 이상 야단을 안 맞게 됐습니다."

대한민국 대표하는 '염장이'

직접 염습 담당한 대통령만 3명

한국불교 주요 스님 다비 봉행

스님에게 야단맞으며 다비 배워

첫 불교장례서비스 시작

1994년 조계사 앞서 연화회 창립

불교상장례 · 다비 조사 연구 앞장

'연화 다비' 자체 기술도 보유해

그렇게 배운 다비 의식들은 연화회의 독자적 다비 방법인 '연화 다비' 연구 · 개발로 이어졌다. 사찰별 전통 다비 방법의 장단점을 분석해 현대적으로 계승한 '연화 다비'는 기존 다비보다 훨씬 저렴하다. 석유를 사용하지 않으며, 시간은 24시간에서 3시간으로 단축됐다.

"2008년 불교미래사회연구소의 '승려노후복지' 설문 조사 결과 스님의 85%가 입적으로 다비하기를 원하나 현실은 그렇지 않죠. 약 5% 정도의 스님만 다비를 하고 있습니다. 연화 다비를 연구 · 개발한 것은 이런 상황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장례

약 24년 간 장례업에 종사하면서 수 천명의 마지막을 배웅했다. 그런 그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장례를 물었다. 숨을 고른 그는 노무현 대통령의 장례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했다.

"너무 갑작스럽게 돌아가셔서 정신없이 진행됐어요. 그래서 노 대통령의 장례가 기억이 남아요. 하루는 여운계 씨가 돌아가셔서 염을 하고 있었는데 노 대통령이 사망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빨리 밀양 부산대 병원으로 가라는 전갈이었죠. 급히 염을 마무리하고 기차를 타고 갔어요. 가서 보니 노 대통령의 피투성이 시신이 있었습니다. 제가 수습을 해 모셨죠. 황망하다고 할까요. 여러모로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B2면에 계속

유재철 연화회 대표는? 1994년 조계사 앞에 불교장례서비스 전문 회사인 연화회를 창립한 유재철 대표는 불교 상장례 문화를 선도해 왔다. 1996년 일붕 서경보 스님의 다비를 봉행한 이래, 광덕 · 정대 · 지관 · 법정 스님 등 불교계 주요 스님들의 염습과 다비를 도왔다. 또한 최규하 · 노무현 · 김대중 · 김영삼 대통령들의 장례를 진행했다. 동국대 대학원 장례문화학과에서 석사 학위를, 동방문화대학원대학에서 '한국의 국가장' 논문으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현재는 연화회 대표이자 동방문화대학원대학 장례지도사 교육원 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INSIDE

B3 기획연재 박원자의 '인생을 바꾼 108배'

B5 문화 류영배 스님, 수월관음입상괘불탱화 제작

B6 기획연재 '간사이 아줌마'의 일본사찰 엿보기



2010년 법정 스님의 운구 모습. 스님의 유지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장례였다.



2015년 김영삼 대통령 국가장. 상주는 완장 대신 나비 베상장을 달았고 운구병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 모두 장례예법을 바로 잡고자 유재철 대표가 진행한 일이다.

"염습은 내 운명, 기도 없으면 못 버티죠"

'유재철 대표' B1면에서 계속

그러면서 가장 편안했던 장례는 대행 선사였고, 가장 어려웠던 장례는 법정 스님이라고 말을 이었다.

"2012년 대행 선사의 다비는 선사의 수행과 정신이 오롯이 드러나도록 기획됐습니다. 당시 영결식과 다비를 준비하는 데 한마음선원 사부대중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더군요. 선원의 저력을 확인할 수 있었죠."

법정 스님의 다비는 '관과 수의를 마련하지 말고 승복 입은 상태로 다비하라'는 생전 유지를 지키기 위해 어려움이 많았다고 유 대표는 술회했다.

"보통 다비를 할 때 입관하고 이를 다비장까지 옮깁니다. 그런데 송광사 다비장은 성인 남성의 걸음으로 30분 정도 걸리는 산길입니다. 그곳을 관없이 모시고 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법정 스님이 오대산에 계실 때 사용하신 대나무 평상을 가져와 그 위에 모시고 다비장까지 이운했습니다."

장례문화 변화가 필요하다

대통령과 스님들의 큰 장례를 진행했던 그는 현재 한국의 장례문화는 개선돼야 할 부분이 너무 많다고 한다. 예를 들어 상주가 왼팔에 검은 완장을 차는 것은 일제강점기의 잔재다. 또한 대통령 장례식에서 의장대 운구병이 흰색 마스크를 쓰는 것도 본래 예법에는 없던 것들이다. 영정에 검은 띠를 두르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유 대표는 김영삼 대통령 장례식 당시 유족 허락 하에 상주 완장, 의장대 마스크를 없애기도 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현재 장례 의식이 '고인'을 주인공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장례식장에 가서 절하고 방명록에 이름 적고 돌아오는 게 전부인 장례에 추모의 의미가 있냐는 비판도 함께 했다.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인들이 장례 절차를 간소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잔재가 지금까지 남아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왼팔 완장이 전통이라고들 알고 있는데, 이는 일제 강점기 때 조선총독부가 항일집회를 막기 위해 들여 온 것입니다. 지금 장례는 빨리 시신을 처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고인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알려하지 않아요. 5일장이 보편화된 예전에는 3일째가 돼야 수의를 입히고 입관했습니다. 문상객들도 그때부터 받았습니다. 2일 동안 유족들이 슬픔을 삭일 수 있는 시간을 준 것이죠. 그나마 불교에는 이 같은 전통이 남아있습니다."

유 대표가 꼽은 불교 장례와 일반 장례의 차이점 역시 "불교식 장례는 고인이 중심"이라는 것이다.

"불교 장례는 고인이 주인공이 됩니다. 불교에서 임종이란 이 세상의 육신이 그 역할을 멈추는 것이면서 육신에 묶였던 영혼이 자유로움을 갖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임종 직전의 염불 뿐만 아니라 임종 후 장례 절차, 내생의 준비기간인 49일 간의 기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관 내부를 두르는 종이도 그냥 종이가 아니라 사천왕을 그려 넣습니다. 철저하게 고인의 왕생을 기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런 불교장례 정신은 현대 장례문화에서 이어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제례 통한 포교에도 관심을

그래서 유 대표는 불교 상장례 문화를 정리하는 데에도 여러 노력을 기울였다. 2011년 조계종 포교연구실이 편찬한 〈불교 상제례 안내〉에는 연구위원으로, 2013년 진행된 조계종 문화부의 '다비 현황조사'에는 자문위원으로 참여했다. 모두 불교 상장례 문화가 잘 전승되고, 포교로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동참한 것이다.



염습과 불교, 생활이자 운명

생활위해 광주서 염 배우며 시작

염불만일회 초창기 회원으로 활동

불교 신행은 내 직업의 '원동력'

염습 장인의 기억에 남는 장례들

노무현 대통령 장례 가장 기억나

법정 스님 유지 지키느라 애먹어

가장 여법했던 장례는 대행 선사

"가톨릭에는 연령회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매우 잘 짜인 조직인데 이것이 선교에 큰 기여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성당 나오라는 말은 절대 하지 않아요. 오로지 봉사만 할 뿐입니다. 실제 가톨릭에 입교한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가족의 장례 모습을 보고 관심이 생겼다'는 답변이 압도적입니다. 또한, 제사를 지낼 때 사용하는 기도 등의 내용과 운율을 만드는 데 10년을 준비합니다. 중학교 수준으로 이해하기 쉽게 국문학자가 내용을 만들고, 음악 전문가가 운율을 적용합니다. 불교도 〈불교 상제례 안내〉 등의 책을 만들어 보급했는데 대중화되진 못했습니다."

다비 문화에 대해서도 유 대표는 안타까움을 내비쳤다. 다비는 별도로 교육받는 것이 아니라 스님들의 장례를 봉행하면서 습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현재는 다비 전승자조차도 없는 경우가 많아서다.

"스님들은 다비를 하고 싶어 합니다. 현실적으로는 매우 적은 수의 일부 스님만 다비를 하고 있죠. 본사마다 한 곳씩 다비장을 만들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기도 · 신행은 내 버팀목

매일 죽음과 맞이하는 일. 고된 점을 없을까. 유 대표는 "그래서 기도한다. 기도가 없으면 무너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겪은 이야기를 들려줬다.

유 대표가 광주서 장례를 배울 때 일이었다. 어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장례였다. 마음이 안쓰러워 더 열심히 염하고 장례를 진행했다. 그러던 중 영정사진을 보고 기도했다.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았습니다. 좋은 곳으로 가세요.'

그 후, 새벽에 고인의 영가가 자신을 쳐다보고 있는 것을 봤다. 3일 동안 새벽마다 그 영가를 봤다. 결국 당시 지도법사였던 현 조계종 원로의원 암도 스님에게 상황을 여쭸다. 그러자 스님은 "왜 그런 기도를 했느냐. 네가 염라대왕도 아닌데 그런 기도를 해서는 안된다. 너 때문에 혼이 못 가고 남은 것이다. 앞으로는 허튼 짓 하지 말고, 네 일에 집중해라"고 꾸짖었다. 그러면서 "영가를 다루는 사람은 반드시 염불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 일을 겪고 난 후, 유 대표는 기도를 생활화했다. 새벽 4시면 일어나 염불과 기도로 하루를 열고, 염불만일회에도 가입해 꾸준히 활동하고 있다.

"어떤 날에는 하루에 3, 4번의 장례를 치르는데 그 중에는 깨끗한 시신도 있고, 험한 시신도 있습니다. 그것을 다 마음에 담아두었으면 못 버텼을 겁니다. 광주서 영가를 본 뒤, 염하는 순간에만 집중하게 됐습니다. 그 집중과 몰입의 순간이 제게는 큰 기쁨입니다."

유 대표는 항상 생과 사의 경계에 서 있다. 그 경계에 서서 영혼이 육신을 벗고 사후세계로 갈 수 있도록 안내한다. 그게 '염장이'가 하는 일이다. 그래서 유 대표는 "염을 하는 것은 고귀한 일"이라고 강조한다.

그리고 일반인에게도 평소에 '엔딩 노트(Ending Note)'를 작성하는 습관을 권했다. 자신이 죽으면 장례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말을 남길 것인지를 기록하라는 것이다. "죽음을 제대로 준비하고 이해하면 삶을 더 열심히 살 수 밖에 없다"는 게 유 대표의 평소 지론이다. 결국, 삶과 죽음은 둘이 아님을 유 대표는 자신의 직업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글=신성민 기자 · 사진=노덕현 기자

연등시공전문기업 대광불교 연등자동승강장치 최초개발시공업체

대광불교는 연등전문 기업입니다. 대광불교만의 독특한 디자인과 숙련된 노하우로 각종 연등을 제작 보급하고 있습니다.
항상 등불을 밝히는 마음가짐으로 등 제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등 자동 승강장치



연등시공



자동승강장치 특허 자동승강장치 특허 절첩식 연등 특허 LED 전구

대광불교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매자리길 113 e-mail : hskhsg@naver.com | 010-9446-1862 | 010-2788-7270 | 031)768-7270 | 031)768-7271

마음 변화 이끄는 '몸' 알아차림



박원자 작가의
인생을 바꾼 108배

⑲ 청견 스님의 절 잘하는 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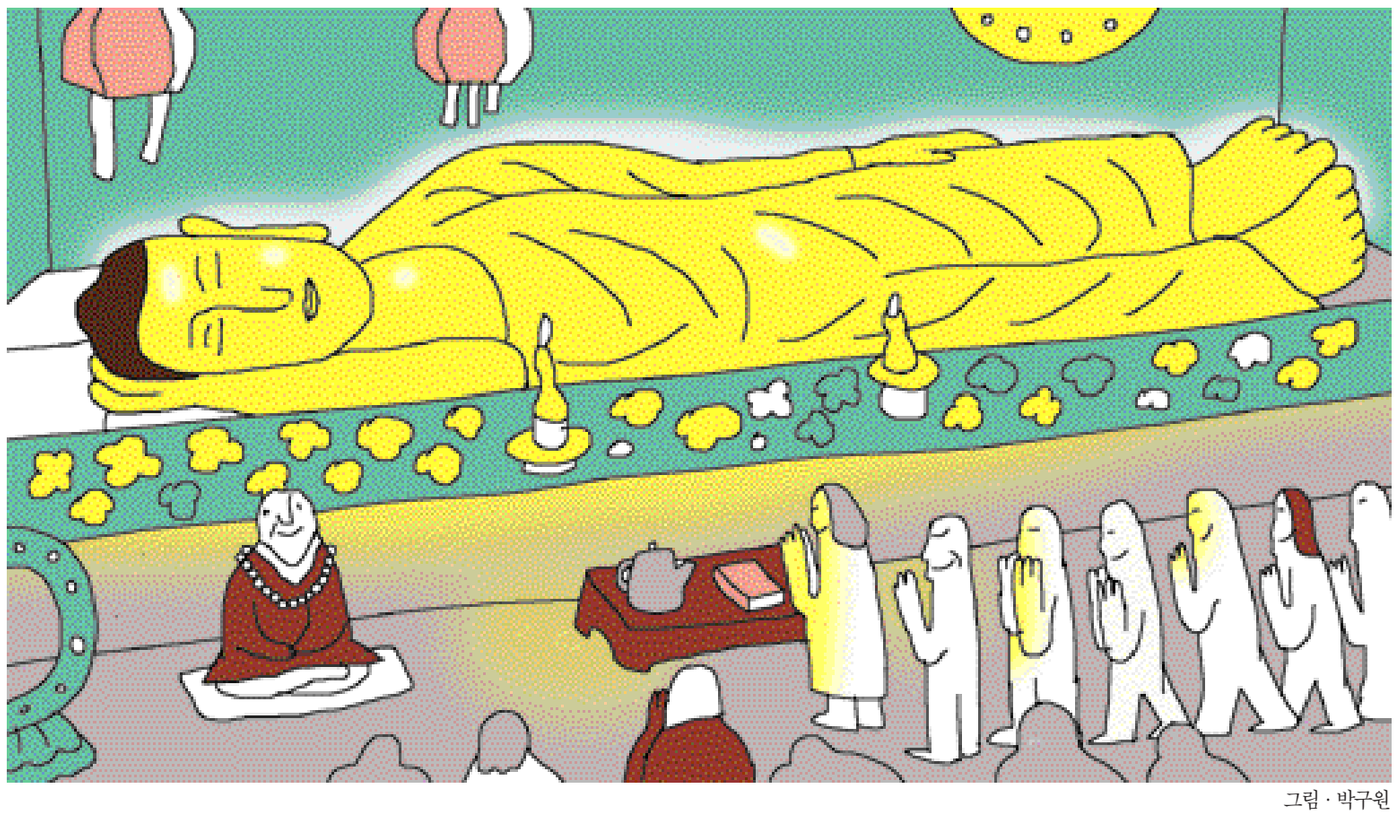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명상의 도시 세도나에서의 만배 정진을 기다리며

절수행의 전설로 회자되고 있는 청견 스님을 만났다.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스님은 20여 년 동안 천만 배의 절을 하고 금강경을 11만 번 독경했으며, 매주 토요일마다 12시간 철야정진을 수백 회 넘게 진행했다. 그동안 스님의 회상을 다녀가며 절 지도를 받은 사람들이 10만 명이 넘는다. 생전에 절수행을 강조하며 수많은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놓으셨던 해인사 성철큰스님 이후로 절수행에 관한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분일 것이다. 두 번째 주와 네 번째 주 일요일에 정기법회가 있다기에 9월 두 번째 주 토요일 새벽 청도행기차표를 끊었다. 매일 오전 열리고 있는 11시 정진에 참석하고 스님을 인터뷰한 다음 일요일 법회에 동참할 예정이었다. 무엇 때문에 그토록 많은 절을 했으며, 스님이 맞은 변화는 무엇이며, 스님의 지도로 인해 병을 치유하고 인생을 변화시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었다. 본인의 체험과 수많은 사람들을 지도하며 얻은 절수행 비전에 대한 생각도 궁금했다.

청도역에서 스님이 계신 법왕사 가는 길은 끝없이 펼쳐지는 크고 작은 능선들로 아름다웠다. 두 번의 인터뷰와 두 시간의 수행, 일요 정진법회 법문을 들으면서 정말 많이 웃었다. 세계 43개국의 수행처를 방문, 정진하면서 인류에게 가장 효율적인 수행이 무엇일까를 고민한 분답게 스님은 시종일관 진지하고 유쾌했다. 쉰 살 이전엔 웃지 않았다고 하는데, 무슨 일로 그렇게 미소가 얼굴한 가득인지, 우리의 삶에 미소가 왜 중요한지를 들었다. 스님을 뵙고 가장 놀란 것은 스님의 연세. 사십대 후반쯤일까 했는데, 올해 예순여덟이라고 고백하셨다. 2010년, 한 대형 병원에서 측정한 생물학적 나이가 이십대 초반이었는데, 지금 다시 해보면 아마 10대 신체나이로 나올 것이 확실하다고 했다. 여태까지의 삶에서 지금이 가장 좋기 때문이다.

스님의 일상과 유일한 취미는 수행. 스물네 시간 몸과 마음이 깨어있으면서 법왕정사에서 매달 한 번씩 진행하는 3천배 수행에서도 죽비를 손수 치고 절하며 동참자들을 이끌고 있다. 매일 빠짐없이 사시 예불 정진을 두 시간씩 하고, 찾아오는 이들에게 일일이 수행법을 알려주고 점검해주며, 몸이 아파 찾아온 사람들을 빨리 나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뵙고 있는 내내 얼굴에 생기가 가득하고 발걸음이 가벼워보였다. 지금, 스님은 전 세계인들이 절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 건강과 행복을 찾기를 발원하고 있다. 해서, 미국 서부 명상의 도시 세도나에서 108명과 함께 만배 정진을 할 계획이다. 잠을 자지 않고 묵언과 단식을 하며 2박 3일 동안 만배를 하면서 절하기 전과 후를 의학적으로 체크해 절수행이 인류를 위해 얼마나 좋은 건강법인가를 확실히 증명해 알리고 싶기 때문이다. 나도 그 수행에 동참하기로 예약하고 돌아왔다.

절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세(동작)

스님이 절 수행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자세다. 첫 단추가 잘못 꿰어지면 나머지가 모두 흐트러지듯 자세가 바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다. 절하는 내 모습을 본 스님께서 일요법회가 열리기 전 나를 부르더니, 하나하나 자세를 교정해주셨다. 나름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교정볼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었다. 절 동작 하나마다에 그렇게 많은 의미와 건강과 직결된 효능이 있다는 게 새삼 놀라웠다. 독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 스님의 말씀과 책 〈깨달은 절수행이란〉에 근거해 자세히 기술해본다.

먼저 합장하는 자세. 다섯 손가락을 가지런히 붙인 후 양손을 마주 붙여야 한다. 합장한 손끝이 미간, 코끝, 배꼽과 일직선이 되게 하고 심장 부근 가슴 한 가운데 놓고 팔꿈치는 옆구리에 가볍게 댄다. 스님은 나에게 엄지손가락이 나머지 네 손가락과 많이 벌어지는 것을 지적하셨다. 엄지손가락을 벌리면 에고가 강해지고 새끼손가락을 벌리면 힘이 빠진다고 한다. 간혹 양팔과 손을 직각이 되게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는 어깨, 팔꿈치, 손목, 얼굴이 굳어져 스트레스 받은 것과 똑같이 된다고 한다.

다음은 서 있는 자세. 정수리의 백회혈에서 회음혈까지 일직선이 되게 한다. 양 발 뒤꿈치와 엄지발가락, 양 무릎을 붙이고 허리, 어깨, 가슴을 쭉 편다. 이러한 자세가 될 때에 우주의 기운이 단전에 모이고 저절로 단전호흡이 된다. 대부분 어깨를 앞으로 하는데 나는 지나치게 어깨와 가슴을 뒤로 젖혀 지적을 받았다. 무엇이든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한 법, 이럴 때 오히려 경직이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가장 많이 지적을 받는 것은 자꾸만 양 발이 벌어지는 것. 발이 벌어지면 허리가 굽어지고 기가 빠져나가며, 기가 빠지면 부정적인 마음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청도서 만난 청견 스님
절수행의 비결 가르쳐줘
절차따라 몸 움직여야

다음은 기마자세와 무릎 꿇는 자세. 허리는 반듯이 펴고 양발을 붙인 상태로 무릎을 땅에 닿게 하는데, 이때 소리를 내지 않게 한다. 양 무릎도 붙이며 양 엄지발가락을 축으로 뒤꿈치는 엉덩이가 들어갈 정도로 벌리고 발가락을 꺾으며 무릎을 꿇는다. 이 동작은 대단히 중요해서 효과도 크다. 발가락의 모세혈관이 열려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발목이 튼튼해지며 장딴지의 군살이 빠지고 무릎과 허리, 골반까지 튼튼해진다. 뇌가 각성되어 머리가 맑고 깨끗해지며 눈이 시원해지고 눈동자에서 빛이 난다. 무릎을 구부려 기마자세를 할 때 태양의 기운이 정수리를 통해 몸으로 들어오고 무릎을 펴고 일어설 때 땅의 기운이 용천혈을 통해 단전에 모인다.

이렇게 많은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무릎에 대해 걱정한다. 반복해서 무릎을 굽혔다 폈다 하는 동작이 무릎이 약한 사람들에게 과연 좋겠느냐는 걱정이 그것인데, 이에 대한 스님의 답은 물론 괜찮다는 것. 무릎이 약하다고 절을 안 하고 있으면 더 나빠진다는 것이다. 스님 자신도 무릎 관절이 얇은데 지금까지 그렇게 많이 절을 했어도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정확한 자세로 하면 무릎 주변 특수근육과 인대를 발달시키는 최고의 무릎건강법이 된다는 것이다. 무릎이 아픈 사람들의 특징은 배가 차갑고 신장 기능도 떨어진다고 한다.

다음은 무릎을 꿇은 자세에서 바닥에 손 짚기. 발가락을 꺾고 허리를 펴고 합장한 자세에서 손과 손 사이는 얼굴 볼 간격으로 벌리며 허리를 구부리고 팔을 쭉 펴면서 손을 짚는다. 이때 손을 짚는 위치는 양 무릎 조금 앞에 있어야 한다. 다음은 손을 짚고 앞으로 살짝 나가며 발 포개기. 손목이 꺾이며 손등과 팔이 직각이 될 정도까지만 상체를 앞으로 내보낸다. 손등과 팔이 직각으로 꺾일 때 손바닥의 노궁혈이 열리며 머리와 심장, 폐에 필요 없이 차 있던 높은 압력이 떨어진다고 한다. 또 상체가 앞으로 나가며 목, 어깨, 팔, 등허리, 엉덩이, 대퇴부 근육이 풀리며 유연해진다. 나는 절을 빨리 하려는 마음 때문인지 계속 팔꿈치가 직각으로 되지 않은 상태, 즉 구부러진 상태로 바닥을 짚고 일어서는 자세를 취했는데, 이럴 때 혈압이 점점 올라간다고 지적하셨다. 저혈압인 경우에는 혈압이 떨어진다고 한다. 발을 포갤 때는 왼발 엄지발가락이 오른쪽 셋째 발가락쯤에 닿게 하고 가볍게 포갠다. 다음은 엉덩이를 발뒤꿈치에 붙이고 이마를 땅에 대기. 엉덩이를 발뒤꿈치에 대면서 동시에 팔꿈치는 무릎 앞바닥에 대고 이마를 바닥에 댄다. 이마를 바닥에 댈 때 목과 어깨를 늘리고 고개를 숙여 이마와 코가 동시에 바닥에 닿게 한다. 이때 대부분 엉덩이가 대부분 들리는데, 대퇴부가 굵거나 단단하게 굳어있고 배에 지방이 많은 사람들이 대체로 그렇다고 한다. 몸을 최대한 바닥에 낮추고 엉덩이를 뒤꿈치에 대면 척추가 바르게 교정되고 척추측만증과 디스크 같은 허리병이 치유된다고 한다. 또 이마와 코를 바닥에 대지 않으면 스트레스로 인한 목 뻣뻣함, 어깨 굳음, 뒷골 당김, 턱관절 등이 풀리지 않고 중단전이 열리지 않는다고 한다. 이 때 중요한 것은 이마, 코, 팔꿈치, 무릎은 바닥에, 엉덩이는 발뒤꿈치에 동시에 닿게 하고 눈을 감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눈을 감으면 부정적인 잡생각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108배 동작에 스며있는 수많은 효능

다음은 접족례. 엉덩이를 뒤꿈치에 대면서 팔꿈치, 팔, 손바닥을 바닥에 대는 순간, 손바닥을 뒤집어 놓은 상태로 손목 부분이 귀 앞에 놓이게 하고 손가락을 가지런히 붙인다. 손바닥을 펴고 손목을 꺾으며 손바닥이 바닥과 수평을 이루게 하는 동시에 이마와 코를 바닥에 댄다. 이때 자신을 온전히 낮추고 부처님을 높이 받드는 공경심으로 손등 쪽 손목을 꺾으며 손을 올리면, 손바닥의 노궁혈이 열리고 혈압은 떨어지고 심장이 튼튼해지며 가슴이 시원해진다. 손에 마음을 집중해서 천천히 접족례를 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몸에 대한 알아차림으로 절을 하면 즉석에서 번뇌망상이 사라지고 마음도 밝아진다.

다음은 손 짚고 머리를 들며 팔꿈치를 펴서 앞으로 나가며 발가락 꺾기. 접족례를 한 다음 손 짚고 머리를 들며 팔꿈치를 펴고 앞으로 나아가며 양 엄지발가락은 붙이고, 양 뒤꿈치는 벌어지게 하고, 발가락을 꺾고 마음을 발가락에 고정시킨다. 상체가 앞으로 나아갈 때 목과 고개를 숙이지 않고 반듯하게 서 있을 때의 목과 머리, 상체로 나아간다.

다음은 엉덩이를 집어넣고 허리세우고 합장한 다음 탄력으로 일어서기. 양쪽 엄지발가락과 뒤꿈치를 붙이고 양 무릎을 붙이며 발가락의 탄력으로 일어서면, 복잡한 생각들이 사라지고 답답한 마음이 없어진다. 이때 또 중요한 것은 허리와 어깨와 가슴, 얼굴을 펴야한다는 것. 특히 움푹 들어간 오목가슴을 펴지 않으면 조급한 마음이 생겨서 자신도 모르게 절을 빨리하고 빨리 끝내려고 한다. 이때 허벅지 바깥근육, 엉덩이 아래 근육, 괄약근, 아랫배, 치골(엉덩이뼈 앞쪽 아래 가운데 부위에 있는 뼈)부위가 저절로 조여진다. 또한 배는 들어가고 엉덩이는 올라가며 저절로 단전 복식호흡이 되어 기운이 모아지고 가슴이 열린다. 다리의 피가 뇌에 공급되어 의식이 밝아지고 집중력이 높아지며, 의욕을 북돋우는 뇌 활동으로 도전정신이 강해지고, 용기와 배짱이 생긴다.

발뒤꿈치 위에 있던 엉덩이가 안정된 상태에서 힘을 빼고 일어나야 바른 자세로 일어서는 것이다. 또 발가락이 꺾인 상태에서 힘을 빼고 일어서야 하는데 발바닥을 바닥에 먼저 댄 뒤 허리를 구부려 일어서면 힘이 들고 척추와 골반, 어깨가 흔들리게 된다. 이때 일어서자마자 앞을 바라보지 않은 채 고개를 숙이고 절을 하면 안 된다. 기가 빠져나가기 때문이다. 여기까지가 절을 하는 완벽한 자세다. 이렇게 완벽한 자세가 형성되고 나면 반드시 익혀야 할 자세가 입꼬리를 올리며 미소짓고, 눈의 시선을 180도로 통째로 둔 채 바라보며, 털끝 하나 움직이지 않고 몸과 마음을 지켜보는 일이다. 이에 대한 스님의 말씀이 아주 흥미롭고 유익했다.

〈다음 회에 계속〉





연꽃향 국내산

연꽃향의 은은한 연꽃향이 번뇌로 복잡한 마음과 정신을 바로잡아 깨끗하고 맑은 기운으로 전해지길 바라봅니다. 연꽃향은 맑고 깨끗한 아침 연못의 고요한 연꽃향과 고급 목분이 만들어내는 완벽한 조합으로 지쳐있는 심신을 다스립니다.

[장, 단] 10,000원 (제조 : 국내산)
[대바라] 15,000원 (제조 : 국내산)

강화(사자발) 약쑥향 국내산

강화도에서 심고 가꾸어 엄선한 사자발 약쑥으로 만든 완벽한 조합이 지쳐있는 심신을 다스립니다. 조연향당이 전하는 은은한 강화 사자발 약쑥향이 번뇌로 복잡한 마음과 정신을 바로잡아 깨끗하고 맑은 기운으로 넘칠 것입니다.

[장, 단] 10,000원 (제조 : 국내산)
[대바라] 15,000원 (제조 : 국내산)

향나무향 국내산

향나무향은 수백년 풍상을 견뎌낸 향나무를 구하여 본사에서 직접 분쇄하여 염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향입니다. 조연향당은 향나무향의 지속적인 연구로 향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장, 단] 10,000원 (제조 : 국내산)
[대바라] 15,000원 (제조 : 국내산)



소이(SOY) 왁스 양초
미국산 LOTUD

로터스 양초 특징 :
① 그을음이 거의 없습니다.
② 대두(콩)에서 추출한 순수식물성입니다.

법당에서 초공양을 쉽게 올릴 수 있도록 연꽃 모양의 크리스탈 받침대와 밀납양초로 손쉽게 양초를 교체할 수 있는 신제품을 개발하였습니다. 밀납양초는 특수 PC컵을 이용하여 화재위험을 완벽하게 방지 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법당 및 야외 어디서나 안전하게 초 공양을 올릴 수 있습니다.

크리스탈 연꽃 받침대 밀납양초 교체형

※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불교양초를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www.shcandle.com

조연향당 조연향당은 국내향 제조 연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 창 산 업 SHC 삼환종합양초 농협 221133-51-020122 (입금자 : 장경분) 상담문의 031)766-0242 / 팩스 031)766-0233 소비자 무료전화 : 080-0766-8888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봉골길 131-14

지혜의 보고 佛書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2017.9.20~2017.9.26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불화의비밀	자현	(주)조계종출판사
2	오직한생각	종범스님	한생각
3	원욱스님의나를바꾸는화엄경	원욱	민족사
4	과학의불교	사사키시즈카/법장	모과나무
5	아름다운인생은얼굴에남는다(원철스님산문집)	원철	불광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6	봉암사의큰웃음(향곡큰스님일화)	법념/서주	답게
7	스스로를달빛삼다	원철	휴(한겨레출판)
8	달라이라마의인생론	달라이라마	마음서재
9	호흡법문핵심강의	남회근	마하연
10	티베트마음수련법로종	따렉깝괸	담앤북스

현불Shop OPEN MARKET www.hyunbulshop.com

깊은 안목으로 해설한 〈금강경〉 최고봉

금강경오가해 강설

학산 대원대종사 강설 | 지선 엮음 | 운주사 펴냄 | 3만 8천원





〈금강경〉을 이해하는 고전적 길잡이
선적 · 교학적 지식과 현대적 해설 돋보여

규봉종밀, 육조혜능, 부대사, 야부도천, 예장종경 등 다섯 조사의 〈금강경〉 주석을 모아 엮은 〈금강경 오가해(五家解)〉는 금강경을 이해하는 고전적 길잡이, 금강경 공부의 기본 텍스트, 금강경 해설의 최고봉으로 일컬어진다. 여기에 함허득통 스님이 설의를 붙이니 '육가해(六家解)'가 되고, 다시 학산대원 스님〈사진〉이 강설을 덧붙이니 '칠가해(七家解)'가 되었다. 이 일곱 선지식들의 주석이 〈금강경〉을 이해하는 깊고 바른 안목을 전해줄 것이다.

〈금강경〉은 대승불교의 대표적 경전이다. 당연히 대승불교권인 중국과 한국서도 종파를 떠나 가장 널리 읽히면서 큰 영향을 끼쳤다. 402년 구마라집에 의해 한문으로 번역된 이래, 육조 스님 당시(700년경)에 그 주석서가 800종이 넘었다 하니, 가히 〈금강경〉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짐작해볼 수 있다.

〈금강경오가해〉는 그 많은 주석서 중 다섯 조사의 주해를 모아 엮은 것으로, 당(唐)나라 규봉 종밀(圭峰宗密)의 〈금강반야경소론찬요(金剛般若經疏論纂要)〉, 당나라 육조 혜능의 〈금강반야바라밀다경해의〉, 양나라 부대사의 〈금강경송〉, 송나라 야부 도천의 〈금강경주〉, 송나라 예장 종경의 〈금강경제강〉이 그것이다. 선과 교의 일치를 주장한 규봉의 주석에는 논리적이고 교학적인 측면이 드러난다. 중국 선종의 6조인 혜능은, 그 자신이 금강경의 구절을 듣고 깨쳤으며, 자성청정한 본심을 강조한다. 혜능으로부터 〈금강경〉이 선종의 소의경전이 되었다. 재가거사인 부대사는 경문에 송을 붙여 표현했는데, 주요하게 지혜바라밀을 강조한다. 임제의 6세손인 야부는 경의 요지를 간결한 선적 언어나 송으로 표현했으며, 주로 평상적인 도리를 드러내 보인다. 종경은 무상을 밝히는 것이 경의 취지이며, 따라서 허망한 상과 지견을 쓸어버릴 것을 권한다.

그리고, 조선조 함허득통 스님이 〈금강경〉 경문과 다섯 조사(주로 야부와 종경)의 주해에 다시 주석을 덧붙이니 이것이 〈설의〉이다. 분량상으로 보아도 함허의 주석이 가장 많고, 내용상으로 보아도 간결하면서도 명료한 설명으로 경의 이해에 큰 도움을 주고 있으므로, 그의 〈설의〉까지 합해 〈금강경 육가해〉라 칭해도 부족하지 않다. 여기에, 현재 오등선원에 주석하면서 납자들을 지도하는 학산대원 스님이 곳곳에 선적(禪的) 안목으로 현대인에게 맞게 강설을 덧붙이니 이제 현대판 '칠가해'가 된다 하겠다.

〈금강경〉은 역사적으로 한국불교계서 가장 사랑받은 경전인 만큼, 그에 대한 해설서가 속된 말로 발에 치일 정도로 많다. 그리고 다양하게 저술된 책들은 한편으로 금강경에 대한 이해를 보다 폭넓게 해주는 측면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금강경의 본체를 보지 못하고 곁가지만 보거나, 전혀 엉뚱한 곳에서 헤맬 우려도 있다. 그래서 항상 중요시하고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기본이고 근본이다.

〈금강경〉 해설에 관한 한, 〈오가해〉가 기본이고 근본이라고 할 수 있다. 〈오가해〉가 엮어질 당시 이미 수천(?) 종에 달했을 금강경 주석서 중에서 가리고 가린 다섯 주석과 해동(조선)선의 안목(함허)이 함께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교학을 꿰뚫어 대강백 혼해 스님으로부터 전강을 받았으며, 고암 대종사로부터 전법을 부촉받아 눈푸른 납자들을 지도하고 있는 대원 스님이, 경의 요처마다 선적, 교학적 안목과 현대적 시선으로 해설을 덧붙여 그 가치를 더한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저자 학산 대원대종사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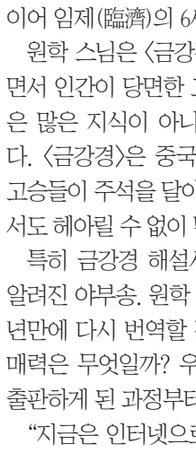
1942년 경북 상주서 태어났다. 14세인 1956년 상주 남장사서 고암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동산 스님을 계사로 득도 수계했다. 대교를 이수하고 혼해 스님으로부터 전강을 받았으며, 이후 제방선원에서 정진 수행했다. 1973년 해인총림에서 고암 방장실을 참문하고 공부를 점검하던 중 홀연히 깨닫고 오도송을 지어 고암 대종사로부터 전법게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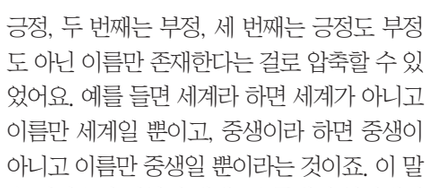
1988년 계룡산 제석사 터에 학림사를 창건하고 오등선원을 열어, 간화선 수행 가풍의 진작과 선불교 대중화에 진력한다. 전국선원수좌회 수석대표를 역임했으며, 대한불교조계종 원로의원(2013), 대종사(2014), 종정 자문위원(2017)으로 위촉돼 정진한다.

아름다운 이름 남기려면?… "중생도 부처도 모두 돼 봐야"

지혜로운 사람은 어리석음을 꾸짖지 않는다

원학스님 펴냄 | 모과나무 펴냄 | 1만 8천원





중국 남송시대 야부선사 착어와 송 번역
1996년 첫 출간 이후 윤문 보완해 개정

〈금강경야부송〉을 삼이원학(三耳圓學) 스님〈사진〉이 번역 해설해 〈지혜로운 사람은 어리석음을 꾸짖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출간했다. 한국 불자들에게 가장 많이 읽히는 경전중 하나가 〈금강경〉이다. 이 내용을 선적 체험에 의한 견해를 붙이고 경전의 뜻을 정형화된 선시로 읊은 야부선사(冶父禪師)의 착어(著語)와 송(頌)이 〈금강경야부송〉으로 전해진다. 이는 그 뜻이 높고 깊어서 예로부터 선학을 공부하는 수행자들에게 빼놓을 수 없는 수행 지침서가 돼왔다. 야부선사의 생몰 연대는 자세히 알 수 없으며, 다만 남송(南宋) 시대의 인물로서 정인계성(淨因繼成, 1101~1125)의 법을 이어 임제(臨濟)의 6세손이 된다.

원학 스님은 〈금강경야부송〉을 번역 해설하면서 인간이 당면한 고뇌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은 많은 지식이 아니라 '참지혜'라고 강조한다. 〈금강경〉은 중국불교에 있어서도 수많은 고승들이 주석을 달아 연구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해설서가 나와 있다.

특히 금강경 해설서중 가장 어려운 것으로 알려진 야부송. 원학 스님이 1996년에 이어, 20년만에 다시 번역할 정도로 이 책에 천착하는 매력은 무엇일까? 우선 스님은 두 번에 걸쳐 출판하게 된 과정부터 차근차근 설명했다.

"지금은 인터넷으로도, 활자로도 쉽게 접할 수 있지만 첫 출간 당시에는 가리방으로 긁어서 펴냈습니다. 그걸 전국 강원에 다 보내줬지요. 지금 기억하는 첫 출간 시기는 1996년보다 훨씬 이전입니다. 책을 펴내기 전, 범어사 강사시절 야부송의 내용만 뽑아서 기록하고 가르쳤지, 번역이 제대로 안됐었죠. 그래서 언제 기회가 된다면 번역을 꼭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던 중 조계종 중앙종회 사무처장을 할 당시인 1996년에 갑자기 사정이 생겨 사표를 내고 조그만 암자를 지어놓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하루 30~40매에 해당하는 양을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1년만에 그 책을 완성한 것이 첫 출간입니다. 그 시절에는 한문을 많이 쓰던 시절이다 보니 한문 모르는 사람은 사실 이 책 읽기가 힘들었죠. 이후 강남 봉은사 주지 시절과 주지직을 내려놓고 나서도 금강경 야부송 법문을 한 2년동안 했죠. 신도들에게 인기가 많아 현대인들이 읽기 쉽게 고쳐서 다시 출판해야 겠다는 서원을 세웠습니다."

이어 원학 스님은 20년 전 번역하고 지금 번역할 때 맛이 어떻게 다르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금강경의 내용을 추상적으로 생각하다가, 20년만에 다시 번역하니 금강경 내용을 정말로 모두 체험했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금강경〉하면 모든 사람이 그 내용을 어느 정도는 알잖아요. 내가 이번에 다시 느낀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부처님과 수보리의 대화가 다양하게 나오지만 간결히 줄여서 할 수 있는 내용이 뭘까 생각해 봤죠. 첫째는 긍정, 두 번째는 부정, 세 번째는 긍정도 부정도 아닌 이름만 존재한다는 걸로 압축할 수 있었어요. 예를 들면 세계라 하면 세계가 아니고 이름만 세계일 뿐이고, 중생이라 하면 중생이 아니고 이름만 중생일 뿐이라는 것이죠. 이 말을 뒤집으면 현실의 세계, 즉 중생의 입장에서 보는것이 차이점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인 중생의 입장에선 중생이 중생이지 왜 중생이 아닙니까? 세계서 지위가 다르고 능력이 다르고 권세가 다르고 살아온 형태가 다 다른데 어떻게 이것을 아니라고 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양한 현실속의 중생이라 우리가 이름 붙였지만, 부처의 세계서 보면 본래 다 부처다 이것이지요. 본래 부처지, 중생이라는 그 어리석음이 있다는 것은 부처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현상은 누군가가 이름 붙여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중생이니 부처니 하는 것도, 중생이 스스로 중생이라고 하는것도 아니고 부처가 스스로 부처니 중생이니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중생과 부처를 나누게 됐을까요? 이것은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속에서의 차별이죠.

여기 있는 모든 것은 다 이름이 있습니다.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컵이 있지만, 이 컵이 없어져도 컵이라는 이름은 남습니다. 이것이 바로 금강경의 원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이름을 남겨야 할까요? 당연히 좋은 이름을 남겨야 겠죠. 역사 속 위인, 군자라는 분들이 수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계속 남겨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좋은일을 많이 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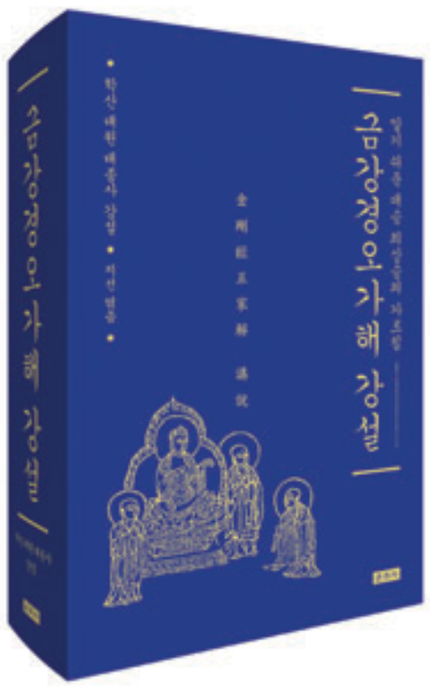
원학 스님의 〈금강경〉 법문은 계속 이어졌다. "그러면 우리가 중생도 부처도 아니지만, 삶을 살아갈 때 마지막에 정말로 오랜 역사 속 수많은 사람들이 기억할 수 있는 이름으로 남아야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부처님이 수보리에게 일러주셨고, 그 법문에 야부 스님이 송을 붙인 것이 야부송입니다. 책을 읽다보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뚜렷이 알 수 있습니다. 권력은 순간이죠. 영원한 것은 아름다운 이름이 남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중생의 입장도 되고 부처의 입장도 돼 봐야지, 어느 한쪽만 고집하면 안되죠."라고 강조했다.

주변으로부터 정인군자(正人君子)란 말을 듣는 원학 스님은 삼국유사의 성지 인각사 주지 를 맡고 있다. 종무행정의 이력도 화려하다. 조계종 총무원 재정국장, 문화부장, 총무부장, 중앙종회 사무처장, 제 10,11,12,15대 중앙종회의원, 봉은사, 조계사, 봉국사, 진주 연화사, 대구 용연사 주지 등을 역임했다. 특히 2009년 총무부장을 맡았을 때 스스로 '삼이(三耳)'란 호를 지었다. "총무원 소임은 봉사하는 자리. 즉 머슴살이와 같은데 귀 밝은 머슴이 되기 위해서는 귀가 세 개쯤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또한 2015년 봉은사 주지 소임을 끝으로 현재는 시골 암자서 다도회 모임을 주관해 매주 토요일 강의와 함께 인각사 일연선사의 복원 불사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각계 다인(茶人)들과 함께 초의문화제를 창립 발기해 초의선사의 다도정신을 계승하였고, 초의선사의 〈동다송(東茶頌)〉을 번역 해설한 〈향기로운 동다여 깨달음의 환희라네〉를 2014년에 출간했다. 1996년도에 번역 해설한 금강경 야부송 〈지혜로운 사람은 어리석음을 꾸짖지 않는다〉를 윤문 보완해 이번에 개정 출간 했다.

이 책 제목인 〈지혜로운 사람은 어리석음을 꾸짖지 않는다〉는 야부선사의 게송 가운데 지불책우(智不責愚)라는 말에서 가져온 것이다.

김주일 기자

금강경 이해의 길잡이,
금강경 해설의 최고봉이라 일컬어지는 『금강경오가해』!



학산 대원 대종사 강설/신국판양장/912쪽/값 38,000원

금강경오가해 강설

학림사 오등선원의 학산 대원 대종사, 강설을 붙이다!

-경의 요처마다 선적, 교학적 안목과 현대적 시선으로 해설을 덧붙여 바른 안목으로 이끌어준다.

『금강경오가해』는 규봉종밀, 육조혜능, 부대사, 야부도천, 예장종경 등 다섯 명안 조사의 금강경 주석을 모아 엮은 것이다. 여기에 해동의 함허득통 스님이 설의를 붙이니 '육가해六家解'가 되고, 다시 학산대원 스님이 강설을 덧붙이니 '칠가해七家解'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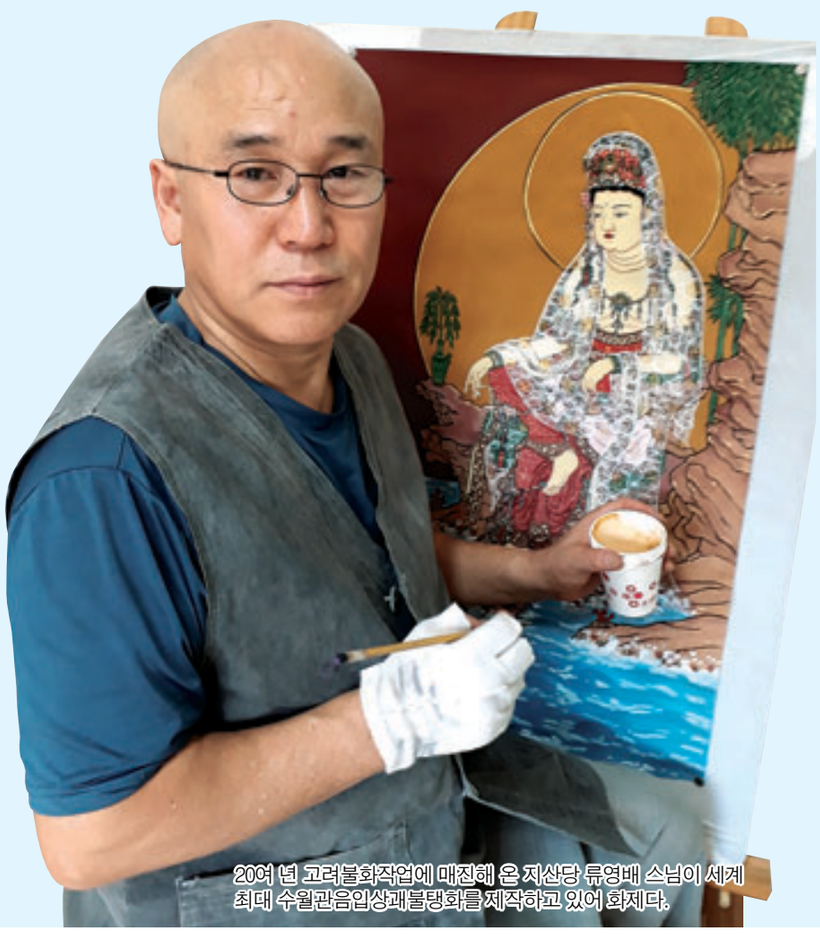
학산鶴山 대원大元 대종사는
1956년 고암 스님을 은사로 출가하여 동산 스님을 계사로 득도 수계했다. 대교를 이수하고 혼해 스님으로부터 전강을 받았으며, 정진 수행 중 홀연히 깨닫고 고암 대종사로부터 전법게를 받았다. 1988년 학림사를 창건하고 오등선원을 열어, 간화선 수행 가풍의 진작과 선불교 대중화에 진력하고 있다. 전국선원수좌회 수석대표를 역임하였으며, 대한불교조계종 원로의원, 대종사, 종정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어 정진하고 있다.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세계 최대 괘불탱화로 평화 기원합니다”

지산당 류영배 스님, 세계 최대 수월관음입상괘불탱화 제작 화제

출가 전 불교·그림에 문외한
꿈속에서 관세음보살 만난 후
32살 때 출가, 화승의 길 걸어
국태민안 발원한 고려 승려처럼
평화 위해 초대형 탱화 원력


20여 년 고려불화작업에 매진해 온 지산당 류영배 스님이 세계 최대 수월관음입상괘불탱화를 제작하고 있어 화제다.

“원래 그림을 아예 못 그렸어요. 붓을 잡아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꿈에서 제가 자꾸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그때는 제가 무얼 그리는지 몰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관세음보살님이셨죠.”

출가 전 그림과 불교에는 문외한이었던 지산당 류영배 스님은 처음에는 꿈 속 그림의 정체가 관세음보살인지 깨닫지 못했다고 한다. 막연히 ‘천사의 모습일까’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누군가 “관세음보살인 것 같다”는 말에 망치로 머리를 맞은 느낌이었다. 스님은 그 꿈을 계기로 32살 되던 해 발심 출가, 화승(畵僧)의 길에 접어들었다.

여류문인 김일엽 스님의 아들 일당 김태신 스님의 맥을 이어 고려불화 작업에 매진하고 있는 지산당 류영배 스님이 세계 최대의 수월관음입상괘불탱화를 제작하고 있어 화제다. 무려 높이 30m, 가로 8m 규모다.

지산 스님은 2001년 2월 삼화불교대학 불교미술학교를 졸업한 후 김태신 스님의 제자가 됐다. 이후 본격적으로 고려불화 작업에 몰두했다. “고려불화는 가히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작품”이라고 말하는 지산 스님은 “한국의 불화는 단순한 그림에서 끝이 아니라 역사와 종교관, 우주관, 인생관 등 내면세계가 폭넓게 담겨있다. 고려불화는 우리 민족의 삶을 반영해왔다”고 고려불화의 매력을 자랑한다.

스님이 초대형 괘불탱화를 그리기로 마음먹은 것은 드라마틱한 계기에서 비롯된다. “공주 갑사에서 괘불탱화를 처음 봤는데 몸에 전율이 왔습니다. 전생에서 내가 괘불탱화를 한 번 쯤 꼭 그려본 것만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때부터 잠을 못 이룰 정도로 괘불탱화에 빠져 있다가 ‘이걸 꼭 그려야겠다’는 원을 세웠습니다.”

늘 서원했던 괘불탱화 작업은 국가정세와 맞물리며 현실이 됐다. 2015년 여름, 대립된 남북관계를 보며 큰 한탄을 느낀 스님은 고려시대 나라를 위해 불화를 그렸던 화승의 마음으로 화폭 앞에 섰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녕을 기원하고자 세계 최대 수월관음입상괘불탱화를 제작하기로 마음먹은 것이다.

하지만 규모가 큰 만큼 작업은 수월치 않았다. 종이를 폈다 접었다 하는데도 체력 소모가 심했고, 한 여름 비닐하우스 안에서 작업해야할 때도 있었다. 스님은 “구도 맞추는 게 너무 힘들어 그렸다 지웠다를 계속 반복했다. 쓴 지우개만도 수백 개가 될 것”이라며 웃어 보였다.

수월관음입상괘불탱화는 현재 2년에 걸쳐 밑그림을 완성한 상태로, 금분을 사용한 채색 및 배접 작업이 남아있다. 문제는 만만치 않은 작업 비용이다. 고려불화 특성상 진금(眞金)이 사용돼야하며 배접 작업에만 엄청난 비용이 드는데 산중 스님이 혼자 감당하기에는 버거운 것이 사실이다.

스님은 “‘꼭 완성하고야 말겠다’는 내 의지가 뚜렷하니 이후에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다. 김기정 포유커뮤니케이션 대표와 홍성찬 감독 등이 ‘아이고, 그 큰 작품을 어떻게 혼자 그리시려고요’라고 하며 도움을 주겠다고 했다”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줘 작업을 꼭 마무리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지산 스님의 작업 과정은 일대기 형식의 영화로도 제작된다. 제작사는 바람소리픽쳐스이며, 홍성찬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 추후 기네스북 등재도 추진될 예정이다.

이번 작업이 마무리 되면 고려불화를 배우고 싶은 사람들에게 화풍을 계승하고 싶다는 지산 스님. 스님의 바람처럼 세계 최대 괘불탱화에 깃든 원력으로 한반도의 안녕과 세계평화가 찾아올 수 있길 기대해본다.

지산 류명배 스님은 범어사에서 출가하고, 삼화불교대학 불교미술학교를 졸업했다. 신춘기획 작품 초대전, 한중미술 교류전, 국제문화 정수전, 국제예술문화교류협회전, 종로미술협회전, 국제현대서화작품전, 종로문화역사행상전, 세계평화교류 서화작품전 등에 참여했다. 한국새늘미술대전서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스타 힐링멘토 4인과 ‘슈퍼 소울 릴레이’

10월 20~25일 서울·제주서 열려

세계적 힐링멘토들이 릴레이로 참여하는 지구촌 힐링 프로그램 ‘슈퍼 소울 릴레이’가 올해 더욱 화려한 라인업으로 찾아온다.

리탐빌은 ‘제3회 슈퍼 소울 릴레이’를 10월 20~25일 서울과 제주에서 개최한다. ‘슈퍼 소울 릴레이’는 힐링 멘토들이 나서 콘서트 및 명상 교육을 실시하는 행사다.

이번 힐링멘토로는 ‘더 시크릿’의 멘토 마이클 버나드 백위스를 비롯해 혜민 스님, 야구선수 박찬호, 김창옥 ‘세.바.사’ 대표강사가 나선다.

세부일정은 △버나드 백위스·김창옥과 떠나는 특별강연 워크숍(10월 23~25일, 제주) △버나드 백위스·혜민 스님·박찬호와 함께하는 특별강연(10월 22일, 상명아트센터 계당홀) △국민들과 함께하는 기부나눔, 박찬호 명상&맥주요가(10월 21일, 서초문화예술공원) 등으로 진행된다. 또한 사회공원 차원으로 교정교화 프로그램 및 힐링문화 캠페인이 함께 진행된다. (02)3448-9901

박아름 기자



2017 제3회 슈퍼소울 릴레이에는 ‘더 시크릿’의 멘토 마이클 버나드 백위스를 비롯해 혜민 스님, 야구선수 박찬호, 김창옥 ‘세.바.사’ 대표강사가 나선다.

그리운 금강산, 흑백 필름으로 만나다

고성군·건봉사, 10월 말까지 ‘금강산 전통사찰 과거와 현재’展


1912년 촬영된 건봉사 대웅전 앞 주지스님과 대중스님들. 국립중앙박물관제공 유리건판사진.

금강산 4대 전통사찰의 옛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희귀사진 전시회가 열린다.

강원도 고성군과 건봉사는 ‘금강산 전통사찰의 과거와 현재’ 사진전을 9월 20일부터 10월 말까지 건봉사 봉서루에서 개최한다. 문화재청이 선정한 2017 전통산사 문화재활용사업 일환으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는 금강산 4대 전통사찰인 유점사, 장안사, 표훈사, 신계사를 비롯해 건봉사와 관련된 희귀사진을 만나볼 수 있다.

사진들은 고성군청이 국립중앙박물관에 요청해 일반에 특별 공개된 것으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일제강점기 유리건판 사진 중에서 금강산 지역 전통사찰의 과거 모습이 담긴 사진들이 대거 포함돼 눈길을 끈다.

특히 그동안 엽서 크기의 사진으로 볼 수 있던 1912년 촬영 건봉사 대중스님들의 사진은 인물의 얼굴과 복장을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을 만큼 확대 복원돼 근대불교사 연구 자료로써 활용가치가 주목된다.

한편 고성군과 건봉사는 ‘금강산 건봉사 불이문화제’와 ‘호국영산재’도 9월 23일 열었다. 두 행사도 2017 전통산사 문화재활용사업의 일환이다.

불이문화제는 고성군의 제1경인 건봉사의 능파교(보물 제1336호), 고성 건봉사지(강원도 지방기념물 제51호), 불이분(고성군 지정문화재 제35호) 등 유무형의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사업이다. 또한 호국영산재는 니르바나필하모닉오케스트라(단장 강형진)가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영산재를 재해석해 서양 고전음악과 크로스오버 공연으로 기획했다.

박아름 기자

“T맵, BBS 틀어줘!”

SKT 내비게이션 T맵서 불교방송 라디오 청취 가능

BBS불교방송 라디오를 SKT 내비게이션 T맵에서 청취할 수 있게 됐다.

BBS불교방송(사장 선상신)은 “SK텔레콤과 제휴를 통해 ‘T맵X누구’에 BBS불교방송 FM라디오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9월 15일 밝혔다. ‘T맵X누구’는 SK텔레콤이 T맵에 음성인식 및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해 운전자의 말을 알아듣는 내비게이션이다. 이에 청취자들은 T맵을 다운로드 또는 업그레이드한 후 T맵에 “불교방송 틀어줘”라고 음성지시하면 주파수를 맞추지 않고서도 BBS불교방송의 FM라디오를 들을 수 있다.

BBS불교방송 측은 “청취자가 운전 지역에 따라 지역 주파수 변경 등으로 방송을 제대로 들을 수 없던 불편함이 해소될 것”이라면서 “또 주파수를 잘 모르거나 난청 지역 거주자들도 편리하게 BBS불교방송 청취가 가능, 청취자 및 가청권 확대로 불법홍포에 더욱 매진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박아름 기자





물에 비친 金閣 무상함을 전하네



'간사이 아줌마'의
일본사찰 엿보기
⑱ 킨카쿠지와 료안지



일본을 대표하는 사찰 중 하나인 '킨카쿠지(金閣寺)'의 모습. 정원 연못에 비친 금각의 모습이 아름답다.

눈부신 금빛 전각의 '金閣寺'
방화로 소실… 1955년 복원
미시마 유키오 소설 배경돼

료안지, 가레산스이 정원 전형
모래 · 돌만으로 山水를 표현해



료안지의 석정 전경. 하얀 모래와 돌로 산수를 표현하는 일본 가레산스이 정원의 전형을 보여준다.

킨카쿠지 료안지 답사 안내

대중교통으로 킨카쿠지에 갈 때는 버스를 타고 가는데 어디서 몇 번 버스를 타면 될지 고민할 것이다. 킨카쿠지 바로 앞에 있는 정류장이 킨카쿠지마에(前)이다. 킨카쿠지미치(道) 정류장에서 내리고 걸어가도 된다. 나는 오사카 우메다역에서 한큐를 타고 사이인(西院)역에서 내리고 205번 버스를 타고 킨카쿠지미치에서 내린다. 이런 식으로 가면 버스를 타는 시간이 길지 않아 비교적으로 편하다. 킨카쿠지에서 료안지까지는 걸어서 20분 정도인데 버스를 타고 갈 수도 있다. 료안지에서 다른 곳에 갈 때는 버스도 있고, 10분 정도 걸어가면 노면전차 료안지역이 있다. 료안지에서 이전에 소개한 닌나지(仁和寺)도 가깝다.

킨카쿠지는 임제종 쇼코쿠지(相國寺)파, 료안지는 임제종 묘신지(妙心寺)파에 속하다. 쇼코쿠지, 묘신지는 킨카쿠지, 료안지 처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가볼만한 사찰이다. 쇼코쿠지, 묘신지에서 운룡도도 볼 수 있다. 또 쇼코쿠지에 있는 조텐카쿠(承天閣) 미술관에서는 킨카쿠지의 장벽화가 전시되어 있다. 중요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이 장벽화는 에도 시대의 유명한 화가 이토 자쿠추(伊藤若 w 1716~1800)에 의하여 제작된 것이다. 좋은 전시가 많은 이 미술관도 가 볼만하기에 추천한다.

킨카쿠지

도다이지(東大寺), 기요미즈데라(淸水寺)와 함께 외국인 방문객의 일본 명소 인기 랭킹 상위권에 들어가는 킨카쿠지(金閣寺)는 눈부시게 금 빛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방문객을 맞이한다. 이전에는 여름이나 겨울에 비교적으로 사람이 많지 않았으나 요즘엔 계절에 상관없이 많은 방문객이 킨카쿠지를 찾아간다. 특히 화려한 것을 선호하는 중국계 방문객의 인기를 끌고 있다. 한국 한자 발음으로 '금각사', 다음 회에 소개할 사찰인 '은각사(銀閣寺)'라고 표기하는 두 사찰이 일본어 발음을 한글로 표기하면 똑같은 '긴카쿠지'가 된다. 그래서 구별하기 위해 금각사를 '킨카쿠지'라고 표기한다.

킨카쿠지 정식 명칭이 로쿠온지(鹿苑寺)라고 한다. 현재 킨카쿠지가 있는 곳이 원래 무로마치 막부(室町幕府) 3대 장군인 아시카가 요시미쓰(足利義滿, 1358~1408)의 별장 기타야마전(北山殿)이 있었다. '로쿠온'은 요시미쓰의 법호인 '로쿠온인(鹿苑院)'에 유래된다. 킨카쿠지라는 이름이 널리 알려진 것이 에도시대에 들어서다. 요시미쓰는 황실이 남조(南朝)와 북조(北朝)로 대립했던 것을 통일시키고 막부의 전성기를 이루었다. 기타야마전 이전에는 귀족 가문의 별장, 그리고 별장 안에는 사찰도 있었던 이 땅에 14세기 말에 요시미쓰가 기타야마전 건립을 시작하고 여기서 천황을 초대해서 성대한 연회를 열었다. 명나라 사신을 맞이하기도 했다.

1408년에 요시미쓰가 세상을 떠난 후 기타야마전의 대부분이 해체되어 다른 사찰로 옮겨졌다. 유일하게 남은 것이 훗날 킨카쿠라고 불리는 사리전(舍利殿)과 정원이었다. 이 사리전을 중심으로 창건된 사찰이 바로 킨카쿠지다. 1420년 무렵에 덴류지 개산조사인 무소국사(夢窓國師)를 권청개산(勸請開山)으로 기타야마전이 로쿠온지가 되었다고 전한다(권청 개산이란 실제 개산이 아니라 신앙 상 과거의 사람을 개산으로 할 때 그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다).

3층으로 구성되는 킨카쿠는 2층과 3층에 금박을 입힌다. 금박이 없는 호수인(法水院)이라고 불리는 초층은 천황이 거주하는 고쇼(御所) 건물을 모델로 만들어진 것이고, 그 안에 보관석가여래상, 요시미쓰 초상조각상이 안치되어 있다. 연못인 교코치(鏡湖池) 뒤에 있는 킨카쿠는 초층의 창문이 열려 있어 그 모습을 멀리서 볼 수 있다. 2층은 무가(武家) 주택 양식의 영향을 받은 조온도(潮音洞)라고 하는 관음상과 사천왕상이 안치되어 있는 공간이다. 3층은 굿쿄초(究竟頂)라고 불리는 선종 양식으로, 한가운데 사리함이 안치되어 있다.

킨카쿠를 대표로 하는 무로마치 시대에 꽃 피는 문화를 기타야마 문화라고 부른다. 기타야마 문화는 황실의 전통 문화와 대륙 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 특징으로 킨카쿠를 보면 그 맛을 느낄 수 있다.

창건 후 큰 전란이나 화재가 있으면서도 버텨오고, 살아남은 킨카쿠이었지만, 1950년에 방화로 건물과 안에 있던 문화재 6점이 소실되었다. 범인은 킨카쿠지의 21세 학승이었다. 이 사건을 소재로 만들어진 소설이 미시마 유키오(三島由紀夫, 1925~1970)의 〈킨카쿠지〉인데 한국어로 번역되어 있다. 다행히 메이지 시대에 킨카쿠를 해체 · 수리했을 때의 기록이 남아 있어 이것을 기반으로 1955년에 복원되었다. 또 1987년에 보통 금박보다 5배 두꺼운 금박을 입혔다.

킨카쿠는 신록과 잘 어울리고 단풍과도 잘 조화된다. 하지만 내가 개인적으로 가장 감동을 받은 것이 눈이 내리는 킨카쿠다. 교토는 겨울이 몹시 추워도 눈이 자주 내리지는 않아서 눈 내리는 날의 킨카쿠 풍경을 볼 기회가 별로 없지만 독자분들에게는 이런 기회가 주어지기를 바란다.

료안지

'일본의 미(美)'라고 하면 떠오르는 것의 하나가 가레산스이(枯山水) 정원이다. 일본 정원 양식의 하나인 가레산스이는 물을 사용하지 않고 돌과 모래 등으로 산수의 풍경을 표현하는 정원이다. 무로마치 시대에 수입한 중국 산수화의 영향을 받으면서 특히 선종 사찰에서 만들어지고 발달했다. 일본어로 가레산스이를 검색하면 사찰 이름이 속속 나오는데 일본 여행 때 짧은 시간에 일본의 아름다움인 가레산스이를 즐기기 위해 정원을 하나만 고른다면 나는 료안지 석정(石庭)을 추천한다. 일본을 대표하는 가레산스이라는 것도 물론이지만, 료안지는 킨카쿠지에서 가까워 일본 명찰(名刹)을 한꺼번에 돌아다닐 수 있고 예약하지 않고도 편하게 찾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료안지 자리에는 10세기 말에 천황의 발원으로 건립된 사찰이 있었고, 12세기 중반에 후지와라 가문의 귀족이 여기에 산장(山莊)과 사찰을 지었다. 무로마치 시대에 들어 장군을 보좌하는 관령(管領) 직을 맡은 호소카와 가쓰모토(細川勝元, 1430~1473)가 이 땅을 양도받아 1450년에 기텐겐쇼(義天玄承, 1393~1462) 선사를 개산으로 료안지를 건립했다. 가쓰모토는 기텐겐쇼 선사에 깊이 귀의했었다. 두 분의 관계는 마치 북송(北宋) 용안산(龍安山) 도설사(兜率寺)의 종열(從悅)선사와 재상(宰相) 장상영(張商英)의 깊은 관계와 비슷하다고 해서 사찰 이름이 료안지가 되었다.

료안지는 1467년에 시작한 교토를 중심으로 벌어진 큰 전란으로 소실되었다. 불행하게도 가쓰모토는 그 전란 가운데 중심 인물의 하나였다. 가쓰모토가 죽은 후 가쓰모토 아들이 사찰 재건에 나섰다. 석정은 그 때 만들어졌다고 전한다.

나무도, 풀도, 꽃도 없고, 하얀 모래(白砂)와 돌만으로 구성된 약 250㎡ 넓이인 이 석정은 수수께끼 많은 신비로운 정원이다. 누가 만들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주장이 있으나 명확하지 않고 무슨 의도로 만들어졌는지 미스터리이다. 먼저 고리(庫裏)에 들어가 입장료를 지불한 후, 석정으로 나아가면 석정 동쪽이 나온다. 석정에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5개, 2개, 3개, 2개, 3개씩 무리지어 있는 합쳐서 15개의 크고 작은 돌이 배치되어 있다. 특별히 귀한 명석(名石)도 아닌 이 돌들이 산이나 다리 등 무엇을 상징하는지도 밝혀지지 않고, 간소하고 추상적인 조형으로, 그 절묘한 배치가 매력적이다. 일본인들이 15개의 돌이 표현하는 것에 대해 해석하려고 했다.

유명한 것이 호랑이 새끼가 강을 건넌다는 설이다. 새끼 중 한 마리가 사나워서 어떻게 새끼들을 데리고 강을 건너면 사나운 새끼가 다른 새끼를 잡아먹지 않고 무사히 건널 수 있을까라는 중국 고사에 유래되는 것인데 돌이 마치 어미 호랑이가 새끼 호랑이들을 데리고 강을 건너는 모습으로 보인다는 것으로 나타난 설이다. 그런데 나는 개인적으로 석정이 표현하는 것을 추구할 필요는 없고, 그냥 마음대로 관상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추상적이면서 해석이 어려운 석정이지만 긴장감이 없고 편하게 마음에 다가온다. 그것은 석정을 둘러싸고 있는 흙담 때문이다. 낮고 갈색인 아부라도베이(油土ÆV)라고 불리는 이 흙담은 자체가 유명하다. 유채나 찹쌀을 씻고 생긴 물을 섞어 반죽한 흙으로 만든 이 흙담이 이렇게 함으로써 더욱 강고하게 되고 방수성(防水性)도 높아진다고 한다. 멋지면서도 실용성이 있는 담장이다. 만약 담장이 높고 흰색이었다면 석정 인상이 전혀 다르게 보일 수도 모른다.

오래 전부터 개성적인 정원으로 알려진 료안지 석정이었지만, 일반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된 것이 20세기 중반부터였다. 서양의 작가나 철학자 등 문화인들이 료안지 석정을 방문해 칭찬한 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일본 정원이 되었다. 특히 1975년에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이 료안지 석정을 방문해 크게 칭찬한 것이 유명하다.

석정 북쪽엔 방장(方丈)이 있다. 방장 남쪽에 있는 긴 툇마루에 앉아서 석정을 바라볼 수 있는데 항상 사람이 많고 반드시 외국인 방문객이 있다. 종교도 다르고 문화 배경도 다른 사람들이 각자 석정을 보고 느끼는 것, 석정을 관상하면서 생각하는 것이 다를지도 모르지만 국경을 넘어 석정을 즐길 수 있는 것 차제가 좋은 일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글 · 사진=나카노 요코
감수=홍은미 옥천사 성보박물관 학예실장

탱화 청동불상 전문 [1,000불 3,000불 10,000불]
상설전시관 100여평 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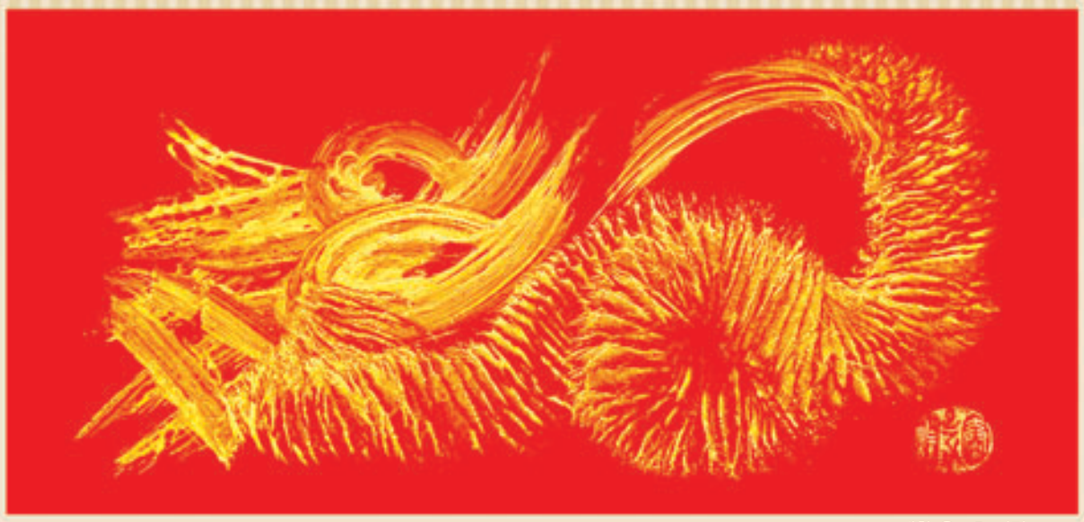



신중탱화

四 代 傳 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효 → 보응당 문성 →
회응당 상균 → 원만당 석윤

해 동 불 교 미 술 원
010-6338-5167 / 010-3743-5167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1동 183번지 해동빌딩

달마도를 능가하는 신통방통大통 호신용
용 · 호 선경도 출현하다



태황 용 · 호 선경도

용은 하늘의 제왕, 호랑이는 지상의 제왕으로 보는 사람에 따라 용도 되고 호랑이도 되는 세계 유일의 작품입니다.
용 · 호 선경도가 스님의 기도중에 현몽으로 탄생하였습니다.
용 · 호 선경도의 위신력(威神力)이 당신을 고통에서 해방시킬 것이고, 소장하는 것 만으로도 기운이 달라 지고 액운을 막아주며 소원성취가 될 것입니다. 건강성취 · 합격성취 · 사업성취 · 가내평안 · 집안우환 · 병고로 고통 받는분, 신통방통大통 될 것입니다.

태황 용 · 호 선경도	크 기
핸드폰, 자동차 부착용 (3D)	
사무실, 거실 등 액자용 (大)	550㎜ × 360㎜
책상, 침실 등 액자용 (小)	460㎜ × 295 ㎜

※본 작품은 작가의 허락없이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사용시 법적인 책임을 받습니다.
세계 40여개국 저작권이 있습니다. Copyright©2017 Tae Hwang All rights reserved

학업성취 · 사업번창 · 병고액난 소멸 · 가정화평 · 좋은인연 · 결혼성취 등

• 구입문의 : 법향선원 031-886-1179 / 050-2879-8709
• 입금계좌 : 농협 301-0184-2624-71

박재완의 **포토 색즉시공**

가을바람

며칠 새 바람이 달라졌다. 바람이 달라진 것은, 바람이 스치고 지나온 것들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오늘은 가을을 알아차린 산새의 날개를 스치고, 길어진 밤이 피운 가을꽃들을 스치고 지나간다. 달라진 바람이 불어온다. 내일은 나의 가슴을 지나가리. 나는 꽃들이 흔들리듯 그냥은 있지 못하리. 그리고 내일, 너에게 닿는 바람은 그렇게 나를 스쳐간 바람일 것이다. 너 또한 그냥은 있지 못하리.

글 · 사진=박재완 사진작가





신현득 작가의 **동화 팔만대장경**

⑲ 어린 사미의 법문

나이 많고 적음으로 판단 말라

"아기 용이 어리다 해서 업수이 보지 말라. 아기 용도 능히 구름을 일으킨다. 번개를 치고, 천둥을 울리고, 비를 내려, 풍년이 들게 한다. 사미가 어리다 하여 낮추어보지 말며, 왕자가 어리다 하여 낮추어보지 말라. 나이가 어린 사람을 낮추어보지 말라."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부처님의 이 말씀을 실천하는 왕이 나타났습니다. 자기를 뉘우치며 부처님 법을 지키기로 한 아육왕(阿育王)입니다. 아육왕은 부처님 법으로 천하를 다스린 영웅이었습니다. 8만4천의 절과 8만 4천의 보배탑을 세우고, 부처님의 평등사상을 실천한 대왕이었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구름을 일으켜 비를 내리는 아기 용을 어리다 해서 무시할 수는 없지. 사미와 왕자의 나이가 어리다 해서 낮추어 보아서는 안 돼. 부처님 가르침이 옳고말고.'

부처님 말씀을 따라 사미 스님을 존경해 온 아육왕이었습니다. 어느 날 왕이 신하와 호위병을 거느리고 행차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사미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아주 어린 스님이었습니다.

"수레를 멈추어라!" 수레를 멈춘 왕은, 곧 타고 가던 수레에서 내렸습니다. 사미를 조용한 곳으로 데리고 가서 머리를 숙여 예배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합장을 한 채 말했습니다.

"사미 스님을 존경합니다. 그러나 나라의 왕이 스님께 예배를 올리더라는 걸 남에게 얘기하지는 마십시오."

왕이 나이 어린 사미 스님들에게 예배 올리는 것을 못 마땅히 여기는 신하가 있어서, 말을 막으려고 하는 부탁이었습니다. 그러자 사미는 몸을 작게 하더니, 손가락만큼 작아져서, 가지고 가던 물병 속으로 쏙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대왕님, 소승이 물병 속에 들어간 걸 분명이 보셨지요?"

사미는 물병 속에서 물병을 똑똑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그러던 사미가 물병에서 나오더니 다시 말했습니다.

"대왕님을 존경합니다. 그러나 이 사미가 물병에 들어갔다 나왔다는 걸 남에게 얘기하지는 마십시오."

사미의 말에 대왕은 크게 깨달았습니다. "저 사미 스님 법문에 내가 깨달았다. 옳은 일에는 남의 눈치 볼 거 없다는 법문이군. 저 사미 스님이 대덕이라 불리는 스님들과 똑같은 법력을 지녔구나!"

용기를 얻은 아육왕은 어린 사람들을 어른들과 똑같이 대우하는 데에 더욱 힘을 기울였습니다. 어린 사미 스님을 큰 스님과 똑같이 예우하는 일에 더욱 힘썼습니다. 자주 대궐 안에다 큰 잔치를 차리고, 수많은 스님을 초대하여 공양을 올렸습니다. 이때 대왕은, 향기가 나는 물에 몸을 씻은 뒤 새 옷을 갈아입고 누각에 올라 스님들을 맞았습니다. 큰 스님과 사미스님에게 똑같이 예배를 올리고, 똑같이 대접했습니다. 큰 스님, 사미 스님들께 조금도 차별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림 · 강병호

스님들은,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는 아육왕을 장한 임금이라며 칭찬했습니다. 그러나 신하들은 모두 불만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어린애들에게 머리를 숙이는 것은 지나치셔." "나도 같은 생각이요."

신하들이 주고받는 말이었습니다. 야사라는 신하는 그 중에서도 불만이 컸습니다. 왕의 행동을 보고만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 그는 왕에게 여쭈었습니다.

"대왕님의 처사는 참으로 불만입니다. 왜 귀하신 대왕님이 어린애들에게 머리를 굽히십니까?"

왕은 껄껄 웃으며 신하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짐이 숙제를 내겠다. 모든 신하들은 죽은 짐승의 머리 하나씩을 구해 오도록 하라. 그리고 신하 야사는, 죽은 사람의 머리 하나를 구해 오라!"

왕명을 받은 신하들은 짐승의 머리 하나씩을 구해 왔습니다. 쇠머리, 돼지 머리, 양의 머리 등 가축의 머리였습니다. 야사는 힘을 들여서 죽은 사람의 머리 하나를 구해 왔습니다. 그러자 다음 명령이 내렸습니다.

"그것을 시장에 내다 팔아서 그 돈을 가지고 오라!" 신하들이 시장으로 갔습니다. 짐승의 머리는 그 자리에서 팔렸지만 사람의 머리를 살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죽은 사람의 머리를 팔러 다니다니, 당신은 사람을 잡아먹는 야차 귀신 인가요?"

사람들은 야사를 보고 욕을 하며 따졌습니다. 아무리 해도 사람의 머리를 팔 수는 없었습니다. 야사는 왕에게 가서 보고를 올렸습니다.

"대왕님. 죽은 사람의 머리를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왕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살 사람이 없으면 거저 주고 오지, 그랬어?"

"거저 가지라는 말도 해봤지만 가져 갈 사람이 없었습니다. 도리어 야차 귀신이 아니냐며 욕을 했습니다."

왕은 다시 물었습니다. "사람의 삶은 고귀하지만, 죽은 뒤 그 주검은 가장 쓸모가 없다. 임금인 내가 죽으면 내 주검, 내 머리도 그럴까?"

야사는 엎드려서 왕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황공하오나, 대왕님의 주검도 그럴 것이옵니다."

"내 주검의 머리도 그처럼 천하게 될 것이면 내가 어린 스님들에게 머리 숙이는 것에 불만을 가질 필요는 없지 않을까? 나는 쓸모없게 될 머리를 숙여서 나라의 복을 짓고 있는 걸. 사람은 같은 거야. 나이가 어리다 해서 지위가 낮다 해서 차등을 두는 건 안 돼. 부처님 가르침이 그렇지 않거든."

대왕의 말씀에 야사는 크게 깨닫고 삼보를 공경하게 되었대요. 어린이 사랑이 부처님 말씀에서 시작되었다는 걸 알았을 테죠?

〈법원주림 경승편(法苑珠林 敬僧篇)〉



"가정에 수호신을 모셔 두십시오"

달마도족자

십장생이 들어간 16나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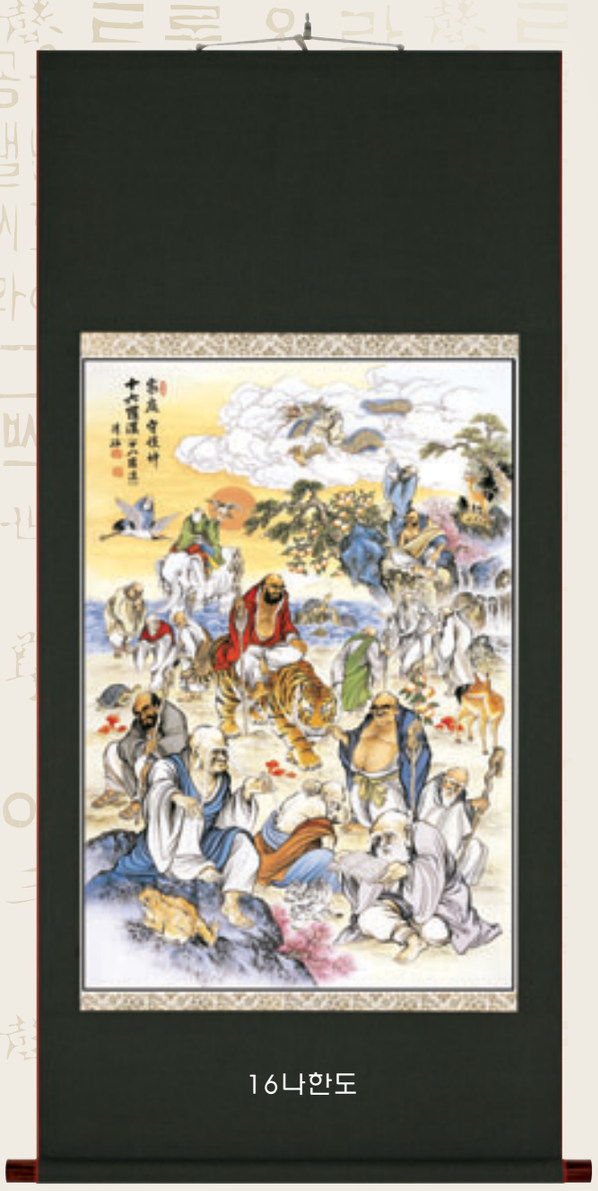
작품 한점 한점 마다 수호신이 될 것이며 그림에서 발산하는 기운은 가정을 평화롭게 지켜줄 것이며 가족의 건강을 지키고 모든 어려운 일들이 순조롭게 풀리며 만사가 형통할 것입니다.

달마도와 포대화상도, 나한도
그리고 여러가지 스님과
사찰 풍속도를 그려온 청곡 이한동화백의
작품을 족자로 제작하여
불자님들에게 보급합니다.

■ 그 림 만 : 70㎝ × 폭 44㎝ | ■ 판매가 : 각 70,000원

■ 족자포함 : 120㎝ × 폭 54㎝ | ■ 판매가 : 각 100,000원

나한은 아라한의 준말입니다. 나한 중에서도 16나한은 가장 대표되는 나한이며, 부처님께서 열반에 들기 전, 미륵불께서 세상에 나오실때까지 불법을 수호하고 중생들에게 복전이 되어 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이들 나한들은 6가지 신통력과 8가지 해탈법 등 삼장에 두루 통달하여 번뇌를 아주 떠난 부처에 버금가는 성지입니다. 16명의 나한 외에 미륵불의 하연이며, 용을 타고 복을 전해준다는 항룡나한과 야수를 다스리며 악귀를 물리친다는 복호나한을 더하여 18나한이라고 합니다. 이들 18나한들은 열반에 들지않고 영생을 누린다는 뜻에서 한 분 한 분의 신비한 모습들을 십장생도와 함께 모셨으며, 이 영원한 수호신을 모셔주기를 바랍니다.


16나한도


달마도

16나한도를 구입하시면 「16나한의 이름과 권속나한들과 같이 살고있는 곳을 기록한 설명서」를 드립니다.

현 불 샵 ☎ 02)2004-8213, 010-6701-7709 | 입금 계좌 : 농협 053-01-269062(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불기 2562 무술년 불교달력 새롭게 출시되었습니다!

현대불교신문사로 주문하십시오



여러 분야의 작품들을 선정하여 최고의 디자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좋은 품질과 저렴한 가격으로 주문과 동시에 신속한 납품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야생화(小)



행복한 세상(大, 小)



선화의 향기(大, 小)



선으로 가는 길(大, 小)



천진불(大, 小)



달마도(大, 小)



붓다의 향기(大, 小)



산사의 향기(大, 小)



암자에 길을 묻다(大, 小)



관음도(大, 小)



그리운 금수강산(大, 小)



밝고 향기롭게(大, 小)



부모은중경(大, 小)

☎ 문의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4 [입금계좌: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 신문사]